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가이드북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생활사

장 윤 희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이 영상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AKS-2021-KDA-1250006)

강의계획서

- 강의명: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생활사
- 강사명: 장윤희
- 구성: 총 10강
- 분과: 한국어학
- 수준(난이도): 고급
- 특징: 권역형, 학제간
- 수업방식: 강의형

- 강의 목표

본 강의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생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여 역사적으로 긴밀함은 물론, 한동안 공통의 문자와 문어를 통해 교류함으로써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긴밀한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적인 언어생활사적 특징과 차별성 있는 사실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 생활은 물론 한국의 언어와 문자, 언어생활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1차시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자 개관	① 동아시아란? ② 한국의 언어와 문자 ③ 중국의 언어와 문자 ④ 일본의 언어와 문자 ⑤ 정리
2차시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	①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양층 언어 상황 ② 공동 문언어를 통한 동아시아 교류의 한 풍경 ③ 동아시아의 한문 수용과 문화 ④ 한국의 한문과 한국어 인식 ⑤ 정리
3차시	동아시아와 한국의 출판·인쇄 문화사	① 강의 개관 ② 동아시아 책의 역사 ③ 동아시아 옛 책의 유형 ④ 한국 한글 간본의 형태와 특징 ⑤ 정리
4차시	한글 창제 이전 한국의 문자 생활 I: 사고 표현을 위한 문자 생활	① 강의 개관 ② 차자 표기법(借字表記法)의 등장 배경 ③ 차자 표기법의 원리 ④ 한국어 단어의 차자 표기: 고유명사 표기 ⑤ 한국어 문장의 부분적 차자 표기: 이두 ⑥ 한국어 문장의 전면적 차자 표기: 향찰 ⑦ 정리

5차시	한글 창제 이전 한국의 문자 생활 II: 한문 이해를 위한 문자 생활	① 한국의 한문 수용과 구결(口訣) ② 음독(音讀) 구결 ③ 석독(釋讀) 구결 ④ 구결의 변화 과정 ⑤ 차자 표기법 체계와 구결 ⑥ 정리
6차시	한글의 제자 원리	① 강의 개관 ② 한글의 문자론적 성격 ③ 한글 창제의 문자 생활사적 배경 ④ 한글 창제의 기반이 된 인식 ⑤ 초성자의 제자 원리 ⑥ 중성자의 제자 원리 ⑦ 종성자의 제자 원리 ⑧ 한글의 음절 표기 방식 ⑨ 정리
7차시	한글 창제 이후 한글 표기법의 변화	① 강의 개관 ② 표기법의 원리 ③ 15세기의 한글 표기법 ④ 16세기의 한글 표기법 ⑤ 17-19세기의 한글 표기법 ⑥ 20세기의 한글 표기법 ⑦ 정리
8차시	한글 창제 이후 한국의 언어생활	① 한글 창제 전후의 문자 생활 ② 한글의 보급과 확산 ③ 한글 학습의 방법 ④ 정리
9차시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 문제	① 강의 개관 ②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 ③ 중국의 어문 혁신 ④ 일본의 국어·국자 문제 ⑤ 한국의 국문과 언문일치 ⑥ 정리
10차시	동아시아의 서구 문화 수용과 언어 변화	① 동아시아의 서구 문화 접촉과 수용 ② 근대화와 중국의 언어 변화 ③ 근대화와 일본의 언어 변화 ④ 근대화와 한국의 언어 변화 ⑤ 정리

-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강좌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1차시>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자 개관

■ 학습목표

1. 문화지리적 관점에 따른 동아시아의 범위를 확인한다.
2. 동아시아 삼국, 한국·일본·중국의 언어의 특징을 살펴본다.

■ 강의 목차

1. 동아시아란?
2. 한국의 언어와 문자
3. 중국의 언어와 문자
4. 일본의 언어와 문자
5.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동아시아란?

동아시아는, East Asia라는 말 그대로 동쪽 아시아, 곧 아시아 대륙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아시아가 지리적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시아를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이지요. 이런 지리적 관점에서의 동아시아는 과거 서구의 관점에서 극동(Far East)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동아시아에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의 국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과 대만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북한은 한국에, 대만은 중국에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라는 말이 이런 지리적 관점과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현재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은 한동안 공통의 문자와 문어를 사용하면서 정치·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해 왔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3국은 문화적으로는 물론 언어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통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들 3국의 문화적, 언어적 공통성 또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3개국을 한자 문화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종의 문화적 관점에서 부르는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과거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여 상호 교류했던 역사적 경험을 지닌 또 다른 나라로 베트남도 있습니다. 한자와 한문을 통한 베트남과 중국,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에 대한 실증적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한자 문화권이라는 의미로 동아시아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베트남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라는 말은 지리적 관점에서 가리키는 대상과 문화적 관점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지리적 관점에서의 동아시아와 문화적 관점에서의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절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곧 이 강의에서 말하는 동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의 3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동아시아 3국 각각은 현재 어떠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3국의 언어와 문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지 등의 사실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한국어에 있으므로 한국의 언어와 문자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다른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자는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2. 한국의 언어와 문자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한국어는 어떠한 언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국어는 외국인 학습자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손꼽히는 언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한국어는 물론 한국어학과 한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1) 한국의 언어

우선 한국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언어와 한국어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어는 주변의 중국어나 일본어와 그렇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언어입니다. 물론 일본어와 유사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간의 유사점이나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 연구가 19세기 이후, 특히 19세기에 활발하게 연구된 역사비교언어학입니다. 이는 둘 이상의 언어들의 통시적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그 언어들이 계통적으로 같은 조상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언어 사이의 친족 관계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같은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언어, 곧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들은 매우 유사한 언어 질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특정 언어의 계통, 곧 조상 언어로부터 이어져 온 과정은 물론 같은 조상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또 다른 언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계통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언어계통론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는 몽골어, 만주어, 튀르키예어와 같은 조상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언어, 곧 이들 언어와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친족 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몽골어, 만주어, 튀르키예어와 함께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20세기 초 러시아의 폴리바노프, 핀란드의 람스테트가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설을 주장한 이후, 이 학설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과는 다른 계통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와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

들 사이에 규칙적인 음운 대응이나 기초 어휘의 일치 등과 같은 친족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확보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알려진 언어들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 특징들이 많은 점을 근거로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설이 꾸준히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 특징은 한국어의 개략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알타이 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 모음조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음조화란 한 단어 내부에는(여기서 단어 내부는 활용형이나 곡용형을 포함한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특성의 모음들만이 오는 현상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줄줄’ 과 ‘줄줄’, ‘아장아장’ 과 ‘어정어정’ 과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 부사에서는 여전히 모음조화 현상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과 ‘너는’, ‘가는’ 과 ‘우는’ 과 같은 15세기 한국어와 같이 과거에는 한국어에서 모음조화에 따른 형태소 교체가 발견될 정도로 모음조화 현상이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알타이 제어와 마찬가지로 어두 자음의 조직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 자음, 즉 두음으로 ㄹ이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 위치에는 단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을 뿐 둘 이상의 자음, 곧 어두자음군이 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알타이 제어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는 모두 유형론적으로 교착어라는 점입니다. 교착어란 어휘 요소에 특정한 문법적 의미를 지닌 요소가 붙어서 문법적인 의미가 표시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렇게 문법 요소가 첨가된다는 의미에서 교착어를 첨가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길-’ 라는 어휘 요소, 곧 어간에 “평서 종결” 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지닌 ‘-다’ 를 결합하여 ‘길다’ 로 나타나고, 여기에 “과거” 라는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선어말어미 ‘-었-’ 이 결합하여 ‘길었다’ 가 되는 식입니다. 이는 영어와 같은 굴절어에서는 ‘go’ 라는 의미 요소에 “과거” 라는 문법적 의미를 표시할 때 ‘went’ 로 나타나는 현상과는 크게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어휘 요소 ‘서울’ 에 필요한 많은 문법 요소들이 연속해서 결합한 ‘서울-에서-부터-만큼-만-이라도’ 와 같은 어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교착어이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인데, 알타이 제어 모두 교착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넷째는 바로 앞의 교착어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법적인 의미가 어휘 요소의 모음이나 자음을 바꾸어 표시되는 방식, 곧 모음 교체나 자음 교체에 의해 문법적 의미가 표시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가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어 굴절어인 독일어의 경우 명사 (das) Haus[집]에 “복수” 의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면 (die) Häuser로 실현되는데, 복수형의 격어미 -er 앞 어간 Häus에서 보듯이, 복수를 표시하기 위해 어간의 모음 au가 äu로 전설모음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음 교체에 의해 문법적 의미가 표시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에서는 문법적 의미는 그 의미를 지닌 문법 요소가 어휘 요소에 결합하여 표시됩니다.

다섯째, 굴절어에 속하는 인구어와 대비해 볼 때 특징적인 사실로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에서는 전치사나 관계대명사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전치사 대신에 후치사나 한국어의 조사와 같이 명사 뒤에 놓여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관계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앞의 절이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 요소가 존재하지요.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에는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장을 접속할 때는 ‘부동사’ 즉 동사이면서 부사처럼 다른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사용됩니다. 이때의 부동사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한국어의 예로 설명하자면, 한국어에서는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에서의 ‘나누고’ 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한국어 문법 용어로 말하자면 용언 어간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연결형이 부동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타이 제어 가운데에는 연결형이 아니라 용언 어간 그 자체가 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동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어 문장은 영어에서라면 “They said goodbye and parted.” 로 표현되었을텐데요, 한국어 문장의 부동사, 곧 연결형 ‘나누고’ 가, 영어 문장의 접속사 and의 역할과 함께 ‘said goodbye’ 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셈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의 알타이 제어 사이의 공통 특징을 통해서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대강 알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알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언어학적 사실들을 음운적인 측면, 문법적이 측면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어의 가장 특징적인 음운론적 특징으로는 한국어의 자음 중 장애음들이 ‘ㄱ: ㄷ: ㅌ’, ‘ㄷ: ㅌ: ㅍ’, ‘ㄴ: ㄷ: ㅍ’, ‘ㅌ: ㅌ: ㅍ’, ‘ㅌ: ㅍ’ 와 같이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평음: 유기음: 경음’ 의 세 가지 소리가 대립을 보인다는 점, 곧 이들 각각이 음소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경음이 의미를 변별하는 음소로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의 서구 언어는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어나 일본어와도 구별되는 특징적인 사실입니다. 반면에 많은 서구 언어나 인근의 중국어, 일본어에서도 발견되는 음소로서의 유성 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한국어의 특징적인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운 현상 중 음절의 첫 위치에서는 대립을 이루던 자음들이 음절 말 위치에서는 대립이 중화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많은 언어들과 구별되는 한국어의 특징적인 사실입니다. ‘다(皆, all): 타(舵, rudder): 사(四, four): 자(尺, ruler): 차(車, car)’ 에서와 같이 음절 첫 위치에서는 서로 다른 소리로 구별되던 ㄷ, ㅌ, ㅍ, ㅌ, ㅍ 각각의 소리가 음절 말에 왔을 경우에는, ‘날[nat¹](粒, grain): 날[nat¹](個, piece): 낫[nat¹](鉞, sickle): 낫[nat¹](晝, day): 낫[nat¹](面, face)’ 과 같이 모두 [t¹] 소리로 발음되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를 음절 말 중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음절 말의 ㄱ과 ㅋ, ㄴ과 ㄹ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모음은, 한국어에서 표준적인 발음으로 규정한 바에 따르면 10개의 단모음이 존재합니다.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구강 안의 앞 쪽에 오느냐 뒤 쪽에 오느냐 하는 혀의 위치, 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구강 안의 높은 지점에 오느냐, 낮은 지점에 오느냐, 그 사이에 오느냐 하는 혀의 높이, 또 모음을 발음할 때 근육을 움직여 입술을 둥그렇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입술의 모양,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10개의 단모음을 표시해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들 단모음 가운데 많은 언어들과는 달리 ɔ와 i가 각각 당당한 모음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이들 모음에 음장이 실현되어 의미가 변별되는, 곧 운소로서 음장이 존재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눈:’ 과 ‘눈’, ‘말:’ 과 말’ 과 같이 모음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언어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을 10개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실제 많은 사람들의 현실 발음에서는 단모음의 개수가 적어집니다. 또한 단모음의 개수는

한국어의 방언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 방언을 예로 들어 보자면,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ㄱ과 ㅋ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ㄱ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또한 전설의 원순모음 ㄱ과 ㅋ을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 wi, we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중부 방언권에서는 7개의 단모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요.

한편 이들 단모음 앞에 반모음 w가 온 이중모음 wi(ㄱ의 현실 발음), we(ㅋ), we(ㅋ), wa(ㄱ) wa(나)는 물론 또 다른 반모음 y가 단모음 앞에 온 ye(ㅋ), ye(ㅋ), ya(ㄱ), ya(ㄱ), yo(ㅇ), yu(ㅠ) 등의 이중모음이 존재합니다. 물론 중부 방언권 대부분의 화자들은 e와 ε를 구별하지 못하니 we와 we, ye와 ye도 구별하지 않고 각각 we, ye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모음의 음장에 따라 의미가 구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한국어 화자들 중 대다수는 이런 음장을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어의 음장은 노인층 일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한국어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앞서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공통 특징으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문법적 의미가 어미나 접사 등에 의해 표시되기 때문에 문법 범주에 따라 이를 표시하는 어미나 접사가 각각 존재하므로 어미나 접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 범주와 관련해서는 문법 범주로서의 수나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어의 문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문장의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서로 이루어지는 SOV 언어입니다. 이는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공통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동아시아 언어 가운데 일본어도 한국어와 동일한 SOV 언어인 데 반해 중국어는 SVO 언어로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한국어의 경우는 문장의 주요 성분 중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기만 하면 나머지 성분들의 어순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에게 책을 선물했다.’는 문장은 엄밀한 의미 차이를 무시하면 ‘동생에게 형이 책을 선물했다.’나 ‘책을 형이 동생에게 선물했다.’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의 어순과 관련해서 한국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식하는 말은 항상 수식을 받는 말의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 등의 관형어는 항상 명사 앞에,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등의 수식어는 항상 동사나 형용사 앞에 와야 합니다. 또 한국어 문장의 독특한 점은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 하더라도 상황이나 문맥상 분명한 것은 잘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너 어디 가니?”라는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는 “학교”와 같이 주어는 물론 서술어도 자명하므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어의 여러 가지 문법적 특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어는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하는 상황 속에 관여하는 인물들을 높여야 할 때 모두 높일 수 있는 문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이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은 화자와 청자, 또 화자의 발화 속에 나타난 행위를 하는 인물과 그 행위가 미치는 대상으로서의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관여 인물 가운데 높임법의 원리상 화자가 화자 자신을 높일 수는 없으므로 화자가 높일 수 있는 대상은 청자, 곧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있고 화자 자신의 발화 속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물과 행위가 미치는 객체로서의 인물 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대상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주체를 높일 때는 선어말어미 ‘-으시-’를 써서 높이고, 청자를 높일 때는 청자와 친밀한지,

또 청자를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지에 따라 청자와 친숙하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있소, 있네, 있다”와 같이 등급을 구별하여 청자를 높이고, 청자와 친숙할 때는 높여야 할 대상이라면 높임의 등급을 세분하지 않고 두루 “있어요”로 높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있어”로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청자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객체를 높여야 할 때에는 현대의 한국어에서는 특정한 객체 높임의 단어를 써서 객체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를 *본다/뵈는다.”, “선생님께 선물을 *주었다/드렸다.”, “할머니를 *데리고/모시고 집에 갔다.”와 같이 ‘보다’는 ‘뵈다’로 ‘주다’는 ‘드리다’로, ‘데리다’는 ‘모시다’로 객체를 높입니다. 이 밖에도 ‘묻다’ 대신 ‘여쭙다’로 객체를 높이기도 하고, 여격조사 ‘에게’ 대신 ‘께’를 써서 객체를 높인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객체 높임이 특수한 단어에 의해 표시되지만, 15~16세기의 한국어에서는 ‘-습-’이라는 선어말어미에 의해 객체 높임이 규칙적으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어 어휘에서 발견되는 가장 특징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사실이라면 현재 사용되는 한국어 어휘 가운데 60~70%가 한자어라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은 물론 창제 이후에도 지식층의 문자생활은 한자와 한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한자와 한문에 능통한 지식층이 권력층이 되었으므로 과거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 고도의 문화적 생활이나 활동은 한자와 한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과 관련된 단어들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널리 쓰였고 이것들이 한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19세기말 이후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보다 먼저 개화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들을 받아들여서 사용한 일도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아진 이유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일본어와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많아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한자는 기원적으로 중국에서 온 것이지만,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중국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한자와 한문을 받아들인 이후 그 한자를 읽는 음은 점차 한국어 발음에 적합하게 변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이용해 만든 한자어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한자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들 한자어는 한국의 고유어들과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요소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는 한자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한자어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한자어를 중국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또한 19세기말 이후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 할지라도 이것이 기존의 한자와 한문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한자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자어와 다름 없이 고유어와 함께 쓰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일본어라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한국의 문자

한국에서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입니다.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인 만큼 한국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한동안 한글이 대부분 한국어를 표기해 왔기 때문에, 한글로 기록된 언어는 곧 한국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가운데에는 한글을 한국어와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글은 끝까지 들어봐야 의미를 알 수 있다.”와 같이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리키는 상황인데도 한글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한글은 문자이지 그것이 곧 한국어와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Newyork)’이나 ‘베이징(北京)’, ‘쿄토(京都)’의 경우 모두 한글로 표기되었지만, 이들 각각이 표기한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인 것이지요.

문자론적 측면에 살펴볼 때 한글은 먼저 표기의 대상이 소리 단위라는 점에서 표음문자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동아시아의 중국어를 표기하는 한자의 표기의 대상이 의미 단위인 단어이자 소리 단위로는 음절이라는 사실과 대비되는 한편,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나 문자의 표기 대상이 소리 단위라는 사실과는 공통적입니다. 또한 한글은 표음문자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문자가 표기하는 단위가 자음이나 모음, 즉 음소 단위를 표기하는 음소문자에 속합니다.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나 문자의 표기 대상이 소리 단위 중 음절이라는 점과 대비되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ㄱ은 /k/를, ㅏ는 /a/를 표기하는 음소문자로서 이런 문자론적 성격으로 보자면 한글은 알파벳과 같은 음소문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음소문자 가운데에서도, 문자와 그것이 표기하는 음소가 일대일 대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음소 문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영어의 알파벳의 경우, a라는 문자가 an에서는 /ə/, car에서는 /ɑ/, map에서는 /æ/, a에서는 /ei/라는 모음을 표기하고 있어 문자와 소리의 대응이 일대다 대응을 보이는데 하면, /k/라는 소리가 car에서는 c, Christ에서는 ch, kick에서는 k로 표기되고 있어 문자와 소리가 다대일 대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글의 경우에는 ㅏ라는 문자는 항상 /a/ 모음에 대응하고, ㄱ이라는 문자도 항상 자음 /k/에 대응합니다. 한글 자모 가운데 유일하게 문자와 소리가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ㅅ입니다. ㅅ은 초성에서는 /s/ (예: 산), 중성에서는 /t/ (예: 옷)에 대응합니다.

한글의 문자론적 성격과 관련하여 영국의 J. Sampson 교수가 1985년에 쓴 *Writing System*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자질 문자(featural character)로서의 성격을 더 언급할 수 있습니다. Sampson 교수는 ㄱ과 ㅋ을 비교해 보면 ㅋ이 ㄱ에 비해서 획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ㅋ이 표기하는 소리가 ㄱ에 비해 더해진 획만큼의 자질을 더 가진다는 사실이 문자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글은 음소문자 가운데에서도 자질문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이 현재의 한글에서는 전반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자음자의 경우 기본 글자를 만든 뒤, 각 기본 글자가 표기하는 소리와 같은 조음 위치에서 소리가 나면서도 한 가지 음성적 특성을 더 가질 경우 획을 더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 즉 가획(加劃)의 방법으로 자음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라는 점에서 한글이 지닌 독특한 특성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에 대하여 음절문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한글은 ‘소리, 하늘’ 등과 같이 표기 단위인 ‘소’, ‘리’, ‘하’, ‘늘’이 각각 음절에 해당합니다. 바로 한글을 음절문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음소문자인 한글을 실제로 표기할 때, 자음자와 모음자를 영어 알파벳과 같이 순서대로 배열하여 적는 것이 아니라, 음절 단위로 모아서 적는 방법으로 인해 나타난 특성입니다. 영어 알파벳의 경우는 ‘map, study’ 등과 같이 자음자와 모음자를 순서대로 배열해 적지만, 한글로 표기할 때는 ‘소리, 하늘’ 등과 같이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서 적는 방법으로 표기합니다. 이는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고안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표기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음

소문자인 한글로 표기된 표기 단위가 음절을 반영하는 결과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한글은 문자론적 성격 자체가 음절문자는 아니고 음소문자인데, 표기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 적는 방법으로 인해 음절문자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은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용의 문자들 중에서 문자를 만든 주체와 목적, 그리고 만들어진 시기가 확실히 알려진 흔치 않은 문자 중 하나입니다. 《세종실록》의 세종 25년(1443년) 12월의 기사를 통해서 한글이, 이때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 되었으며 만들어질 때의 문자 이름이 ‘정음’, 곧 훈민정음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 28년(1446년) 9월 초순에 만들어진, 새로 만든 문자에 대한 설명서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한글을 만든 목적이 백성들의 편안한 문자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한글 자모자를 만든 원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상형자이며,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상형에서, 모음자는 천지인 3재의 상형에서부터 문자의 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음자의 경우, 해당 자음이 조음될 때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여 ㄱ, ㄴ, ㄷ, ㄱ, ㅅ, ㅇ의 다섯 자를 만든 뒤, 동일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어 유사하면서도 이전 소리에 비해 소리가 조금 거센[厲]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를 이전의 글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는 가획의 방법으로 만들어 ㅋ와 ㆁ, ㆁ와 ㆁ, ㆁ와 ㆁ, ㆁ와 ㆁ, ㆁ와 ㆁ을 만들고, 이전 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이기는 하지만 소리의 특성이 아니라 소리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철학적으로 표시한 ㆁ을 만든 뒤, 기본 상형자와 동일 위치에서 조음되면서도 기본 상형자나 여기에 가획한 자와는 소리의 성질이 다른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이 위치의 조음기관을 상형하면서도 그 글자체는 다르게 한 이체자 ㄹ, ㅍ를 만들어 총 17자의 자음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ㆁ과 ㆁ은 이후 한글 표기에서 사라져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입니다.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추상화하여 상형한 ㅏ, ㅑ, ㅓ를 만들고 ㅏ와 ㅑ, ㅓ와 ㅓ가 합쳐져 만물이 만들어지는 의미를 상형한 ㅗ, ㅛ, ㅜ, ㅠ를, 그리고 이들 생성물에 사람이 모두 관여하는 의미를 상형한 ㅝ, ㅞ, ㅟ, ㅠ를 만들어 총 11자의 모음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 당시 한국어에 존재하던 모든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를 모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문자는 최소로 하고 이 문자들을 나란히 쓰거나[병서], 위 아래에 이어서 쓰거나[연서] 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만 새로 만들고 이들을 적절히 운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 경제적인 문자 창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독자적인 제자 원리에 의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은 현재는 물론 과거의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에 존재했던 어떤 문자와도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아시아 문자의 계보에서 이질적인 독특한 문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의 한자로부터 일본의 가나 문자로 영향 관계가 이어지고, 금(金)의 여진 문자도 한자로부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元) 이후 지금도 몽골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그르-몽골 문자는 애초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그르 문자를 수용한 것인데 위그르 문자의 기원은 아랍계 문자, 곧 서아시아의 문자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淸)의 만주 문자 역시 위그르-몽골 문자를 수용한 것이므로 문자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또한 거란 문자도 위그르 문자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란자에는 자모자는 물론 표의자에 해당하는 글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한자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문자로서 범자(梵字)로 통칭되는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나 실담 문자, 데바나가리 등은 서사 방향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형이나 문자 체계가 기원적으로 썸족 문자와 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영향 관계는 범자로부터 서장(西藏) 문자 곧 티베트 문자로, 또 서장 문자로부터 원(元)의 파스파 문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 존재했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은 모두 기원적으로 썸족 문자나 한자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한글만은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자형이나 제자의 아이디어 일부의 유사성으로 한글 역시 여타 문자로부터 기원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지만, 문자 체계 전반이나 운용 방식 등을 볼 때 여타의 문자에서 직접 기원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한글은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의 모든 문자들과의 계보를 찾기 어려운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한글이 아시아 문자의 계보상 독특한 문자라는 사실이 곧 한글을 만들 때, 다른 문자들이나 이론들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이나 한글 제자의 바탕이 되는 인식, 문자의 운용법 등을 살펴보면, 한글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문자와 관련된 이론들을 모두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들은 폭넓게 수용하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취하지 않거나 수정하여 수용하는 태도, 곧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음을 아음, 설음, 순음, 치음로 보는 5음 분류법이나 자음을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으로, 마치 현대의 청음 음성학적 개념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음을 분류하는 방식 등 많은 부분을 당시의 한자 성운학에서 수용했음을 알 수 있고, 당시의 일반적인 성운학적인 인식인 음절 2분법을 버리고 음절 3분법을 취한 내용은 파스파 문자 창제의 이론이었던 몽골 운학에서 수용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는 한글이 타국이나 타지역의 문화적 성취와는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된 음절 3분법에 대한 인식 중,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종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성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몽골 운학의 이론을 수용한 결과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 한국에서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했던 차자표기의 전통 속에서도 종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향찰 표기에서 ‘雲音(구름)’의 음(口)이나 석독구결 표기에서 ‘有 ㄷ-’ (잇-)의 ㄷ(入) 등에서 보이는 이른바 말음첨기는 해당 표기 단위의 종성을 적극적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차자표기 당시부터 한국에서는 종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자표기의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종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성운학의 음절 2분법이 아닌 몽골 운학의 음절 3분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글을 창제함에 있어서 당시 주변 세계의 이론적, 문화적 성취 결과들을 수용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의 언어에 대한 치밀한 관찰의 결과나 독창적인 인식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음절 3분법이라는 인식 자체를 몽골 운학에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음절의 세 부분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한 점은 물론이고, 초성과 종성을 동일한 자음자로 표기하도록 문자를 만든 방식은 여타의 어느 문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한글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적인 것입니다. 중성은 성격을 달리하는 문자를 만들어 표기했음에 반해 초성과 종성을 같은 문자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초성과 종성이 동일한 성격의 소리라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20세기 이후 현대 한

국어 음운론에서 하나의 자음이 음절초에 와서 파열음으로 발음되든 음절말에 와서 불파음으로 발음되든 하나의 음소로 보는 것과 흡사한 인식으로서 오히려 현대 음운론적 처리 방식과 통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지고 1446년에 반포되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뒤 1447년부터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보급과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세종대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한동안 한국의 문자생활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문식층이었던 상류 지배층에 있어서 주된 문자생활의 주된 도구는 여전히 한자와 한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생활의 주체인 지배층이 한자와 한문의 사용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학문과 정치는 물론 행정과 같이 공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한자와 한문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세기 말까지도 민간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었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한글의 공적인 문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공적인 문서에 쓰일 수 있는 공식 문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 내렸던 고종의 칙령부터입니다. 고종의 칙령 중 <공문식> 제14조에서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 라고 하여, 한글의 국가 공식문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한국의 문자생활에서 공식적인 문자로 사용된 것은 불과 120년 정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공적인 문자생활에서의 일이고, 이미 15세기 중엽부터 민간에서는 한글로 쓴 편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아 사적인 문자생활에서는 15세기 중엽 이후 한글의 사용이 점차 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소설, 시가 등 문학 작품이 한글로 기록되어 널리 읽히는 등 민간에서의 한글 사용은 점차 활발해져 왔습니다. 1896년에 창간된 한국의 최초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순한글로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한글에 대한 문해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한글 사용은 20세기에 들어 더욱 활발해지다가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이후 조선어가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고 1940년 민간의 한글 신문이 폐간되면서 잠시 한글의 사용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글은 다시 국가의 공식 문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아 널리 사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글 사용과 관련하여 독특한 점은 <한글 맞춤법>을 통해 한글의 올바른 표기법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한글 표기법 규정의 필요성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일제 총독부 학무국에서 식민지 교육을 위한 교과서 제작을 위한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교과서 제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한글 간행물 등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일제가 문화 정치로 불리는 유희적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 한글 신문이 발행되고 다양한 한글 잡지가 출판되면서 출판물마다 다른 한글 표기법을 통일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민간 학회에서 만든 하나의 ‘안’ 인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공식적인 문자생활에서는 물론 비공식적인 문자생활에서도 마치 공적인 규범처럼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통일안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어 적용되어 오다가 1987년 한국 정부에서 공적 규범인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모든 한글 표기 규범으로 적용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적 규범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한국어와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와 문자는 어떤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3. 중국의 언어와 문자

(1) 중국의 언어

중국어는 흔히 중국에서 쓰이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안에는 크게 분류해서 7개 정도의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고 각 방언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어서 중국어를 단순히 중국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국어는 중국에서는 보통화로, 대만에서는 국어로 부르는 표준 중국어를 가리킵니다. 표준 중국어는 방언 가운데 관화, 그 중에서도 북경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표준 중국어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에서는 방언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경어를 중심으로 언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차 세계대전과 중국의 국공 내전 등으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는데, 2차 세계대전과 국공 내전이 끝나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물러난 이후, 중국과 대만에서 모두 이전의 언어 통일 노력을 계승하여 북경관화를 중심으로 한 표준적인 중국어를 제정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널리 쓰이는 언어라는 의미로 ‘보통화’로 이름 붙이고, 대만에서는 중국의 말이라는 의미로 ‘국어’라 하여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북경 관화를 중심으로 한 표준 중국어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국어는 유형론적으로 고립어에 속합니다. 문법적 의미가 어형의 변화 없이 단어의 위치로 실현되는 언어입니다. 동아시아의 한국어나 일본어가 교착어에 속하는 사실과 크게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어가 동아시아의 다른 언어와는 계통이 매우 다른 언어임을 암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중국-티베트 어족, 또는 한장(漢藏) 어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어순이 한국어와 일본어와는 달리 SVO 언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현대 표준 중국어의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반 음운론에서 음소를 자음, 모음, 운소(또는 초분절 음소)로 분류하는 데 비해 중국어학에서 이들 각각을 성모, 운모, 성조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성모는 자음에 대응되는데, 현대 표준 중국어에는 표준 중국어에는 21개의 성모, 곧 자음이 존재합니다. 중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은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만이 존재할 뿐, 한국에서 보이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나 일본어에서 보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의 운모에는 일반음운론에서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물론, -an, -ən, -ang 등과 같이 모음에 말음 m/n/ng이 결합한 음까지 포함되어 있어 일반음운론의 모음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 단모음에 해당하는 운모는 a[ä], o[ɔ], e[ɤ], i[i], u[u], ü[y] 등 6개가 있습니다. 중국어의 운모는 일반적으로 36개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특정 자음 뒤에 실현되는 운모 등을 더할 경우 40개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운모는 운두, 운복, 운미의 3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운두는 ‘개음(介音)’이라고도 불리며 일반 음운론의

반모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j, w, u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미는 해당 음절의 말음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비운모 m, n, ng가 있으므로 현대 표준 중국어의 음절말 자음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시기의 중국어, 곧 상고음 시기에는 음절말에 입성음, 즉 k, t, p 등의 폐쇄음이 올 수 있었으나 이후 입성음이 사라진 과거의 언어 변화의 결과인데, 이러한 사실은 일본어가 개음절어라는 사실과 유사한 특성입니다.

한편 중국어는 성조에 의해 의미가 구별되는 성조 언어임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로 의미를 변별하는 운소의 하나인데, 중국어에는 1성, 2성, 3성, 4성의 4가지 성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중국어는 한 음절 한 음절이 성조가 없이는 단어 단위이기 때문에 중국어 화자들의 음절 경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2) 중국의 문자

중국의 문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한자입니다. 한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 수메르 설형 문자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오래된 문자 가운데 하나로서 기원 전 12세기 이전의 중국 갑골문자에서 기원한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갑골문자로부터 주 나라 때 청동기에 새긴 금문(金文)을 거쳐 춘추전국시대의 전서(篆書), 진 나라와 한 나라 때의 예서(隸書)를 거쳐 남북조 이후의 해서(楷書)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한자의 자형이 나타났습니다. 이 한자는 세계 문자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의문자입니다. 애초에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였던 만큼 표기의 단위가 의미 단위 가운데 단어인 표어문자이자, 소리 단위로는 음절에 대응되는 음절문자입니다.

후한의 학자 허신이 121년에 펴낸 《설문해자》의 서(敍)에 따르면 상형, 지사, 형성, 회의, 전주, 가차 등의 육서(六書)의 방법으로 한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형과 지사는 단독 글자, 즉 독체자(獨體字)를 만드는 방법에 해당하고, 이들 한자의 소리나 의미를 이용해서 합쳐 쓴 합체자(合體字)를 만드는 방법이 형성과 회의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들을 이용해서 다른 소리의 글자이지만 의미가 통하게 하는 방법이 전주, 같은 소리를 가진 글자로 다른 의미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거란 문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한자의 초서체를 이용하거나 한자의 획을 간략화하여 일본 가나 문자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한자는 동아시아의 문자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중국어의 문장을 표기한 것이 한문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이용해서 중국어를 표기한 것 가운데는 백화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을 단순히 중국어의 문장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문은 중국어 가운데 서주 시대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어를 반영하여 표기한 문어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한문을 Classical Chinese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중국어 질서를 반영하여 작성된 《논어》, 《맹자》 등의 경전들은 물론, 《사기》와 같은 문헌들이 후대의 중국은 물론 한자 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한문이 가장 정통적인 문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문은 오래 전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된 문어이기 때문에 한문의 질서는 이후 중국어의 구어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의 구어를 백화(白話)라고 하는데, 이 한문이 아니라 당시의 구어를 반영해서 적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중국어의 구어가 반영된 기록을 백화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원과 명을 거치면서 특히 북경관화의 백화를 반영한 백화문들이 다량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한문으로 기록된 책들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중국 주변으로 널리 전파됨으로써 한문

은 이들의 공통 문어로 자리잡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외의 한자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에서는 애초에 한문이 자신들의 언어 질서와는 거리가 먼 문어였기 때문에 중국의 백화문과 같이 자신들의 구어를 한자로 적기는 불가능했지요. 따라서 한문이 고대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 문어임에도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 정통적이고 권위 있는 문어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한문이 주된 문어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한자와는 자형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전의 한자가 지나치게 복잡한 번체자(繁體字)라고 하여 좀더 편한 문자생활을 위해 이를 간략화한 간체자(簡體字)를 제정하고 196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체자는 간화자(簡化字)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의 자형을 바탕으로 간략화한 것이므로 번체자와 크게 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대만에서는 이전의 전통적인 한자, 곧 번체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한자가 오히려 정통적인 것이라 하여 정체자(正體字)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일본 등 중국 외의 동아시아에서도 번체자 또는 정체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일본에서는 1949년 이후 일부 한자를 소폭 간략화한 신체자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한자와는 다른 간체자를 쓰는 한편 전통적인 세로쓰기 대신 좌→우 방향의 가로쓰기를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상반되게 전통적인 한문 표기 방법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과 대만에서는 중국어의 발음 표기법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58년에 제정한 한어병음방안에 따라 중국어의 발음을 표기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1930년 중화민국 시절부터 중국어 발음기호로 주음부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컴퓨터나 휴대기기 입력 방법이 중국에서는 한어병음을 이용한 입력 방법이, 대만에서는 주음부호를 이용한 입력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4. 일본의 언어와 문자

(1) 일본의 언어

일본어는 무엇보다도 음절말에 받침이 오지 않는 개음절 언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음절말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발음(撥音)’ ん/n/만이 있습니다. /n/은 ごはん[go-han], 本当[honto], 散歩[sanbo → sambo], 南海[nankai → na n kai] 등에서와 같이 어떤 자음이 후행하느냐 하는 환경에 따라 변이음으로 실현됩니다. 또 음절말에서 발음이 되는 것으로 축음(促音)이 있는데, 이는 어중의 음절말에서만 나타나는 발음입니다. 學校(がっこう, gakkō), 一点(いってん, itten) 등의 っ이 축음인데 이는 후행하는 자음을 2모라로 길게 발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기에서 일본어의 또 다른 특성으로 언급되는 모라 언어로서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라란 음절이 아닌데도 음장이 나타나는 일본어에서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음운론적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장은 음절 단위에 없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음절을 이룰 수 없는 일본어의 발음과 축음도 길게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ごはん은 2음절이면서 3모라이고, 一点(いってん)은 2음절이면서 4모라입니다. 한국어나 중국어는 물론 다른 언어들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지는 않는 특성입니다.

일본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드라비다 어족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설 등 남방계 언어로부터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한반도에서 기원했을 것이라는 어족설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언어로부터 왔을 것이라는 주장은 반도 도래인들에 의한 쌀 농사의 전파와

일본 야요이 문화의 형성과의 관련성 등과 관련지어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특히 기초 어휘 중 하나인 고구려어와 고대 일본어의 수사 몇몇이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반도에서는 사라진 고구려어와 일본어가 계통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교착어라는 점, 문장의 기본 어순도 SOV 언어라는 점 등 한국어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어와의 계통적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본어의 한반도어 계통설은 물론 계통과 관련된 어떠한 학설도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동계 언어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초 어휘의 일치, 규칙적인 음운 대응 등과 같은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많은 어족설이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본어의 언어적 계통은 분명치 않은 상태, 곧 일본어는 계통적으로 고립적인 언어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일본어의 자음은 /k/, /g/, /s/, /z/, /t/, /d/, /n/, /h/, /b/, /p/, /m/, /r/ 등 12개입니다. 이 가운데 파열음이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어서, 한국어 및 중국어와 차이를 보이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보이는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이나 한국어에서 보이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본어의 모음은 あ/a/, い/i/, う/u/(또는 /u/), え/e/, お/o/의 5가지만이 존재하여 모음이 적은 언어에 속합니다. 이 밖에 반모음 /j/, /w/가 존재합니다.

한편 일본어에 존재하는 운소로는 악센트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고저 악센트가 존재하는데, 악센트 핵, 즉 악센트가 떨어지기 직전 음절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변별되기도 합니다. 일본어의 악센트에는 악센트 핵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없는 평판식과 악센트 핵이 있어서 떨어지는 악센트가 있는 기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복식은 다시 악센트 핵이 첫음절에 있는 두고형(頭高型), 악센트 핵이 중간에 있는 중고형(中高型), 악센트 핵이 끝에 있는 미고형(尾高型)이 있습니다.

(2) 일본의 문자

일본의 기본적인 문자는 가나(假名)입니다. 가나에는 히라가나(平假名)과 가타카나(片假名)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라가나는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를 한자의 초서체에서 가져와 만든 문자이고, 가타카나는 한자의 일부 획만을 취하여 만든 문자입니다. 한국에서 한자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표기의 하나인 구결(口訣) 역시 한자의 획을 생략하고 일부 획만을 취했기 때문에 가타카나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한자가 표어문자이면서 소리 단위로는 음절문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자의 음절문자로서의 성격을 이용해서 일본어 음절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 가나 문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의 표기에 가나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도 일본어의 표기에 사용되고 있지요. 한자는 주로 일본어 문장의 명사나 용언의 어간과 어근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고, 히라가나는 일본어 고유어나 조사, 어미, 접사 등을 표기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한편 가타카나는 메이지 유신 때부터 패전까지의 시기에는 고유명사 표기에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재의 고유명사 표기 가운데 일부 지명 표기나 기업명 등에 사용되는 일이 남아 있고 대부분 외국어나 학술용어를 표기할 때 가타카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문자를 이용하여 일본어 문장을 표기하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일본어 표기의 특징인데 이는 현재 중국에서의 표기 방식과 유사하고 한국의 표기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5.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인 동아시아란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 동아시아 각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문자가 대략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동아시아는 지리적 관점에서는 유럽에서 극동이라 부르는 동쪽 아시아 지역입니다. 한편 문화적 관점에서의 한자 문화권이라고 불리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가리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동아시아를 한국, 중국, 일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2) 한국의 언어는 계통적으로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확실한 역사 비교언어학적 근거가 아니라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의 공통 특징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는 자음 중 파열음이 평음과 유기음, 평음과 경음의 대립을 보입니다. 또 규범적 발음에서는 10개의 단모음을 인정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문법적 의미가 어미나 접사로 표시되는 교착어입니다. 문장의 어순은 SOV 언어로서 높임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입니다.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가 어휘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한자어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3) 한국의 문자는 창제의 주체와 시기, 그 원리 등이 분명한 한글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따로 표기하는 음소문자인데, 실제로 한국어를 적을 때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모아 쓴 단위가 음절에 해당합니다. 한글의 자음자는 상형과 가획, 이체의 방법으로, 모음자는 상형으로 기본자를 만들고 이들을 합해서 또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문자는 최소로 하고, 이들을 나란히 쓰는 등의 방법으로 또 다른 자음자를 만든 경제적 태도가 발견됩니다. 한글을 만들던 당시 주변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전통적 문자생활의 전통도 고려해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글의 규범적 표기법을 정부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4) 중국의 표준적 언어인 보통화 또는 국어는 중국-티베트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어의 기본적인 어순은 SVO 언어여서 한국어, 일본어와는 구별됩니다. 중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에서는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은 보이지만 평음과 경음의 대립은 없습니다. 중국어의 음절말 자음은 3가지인데 이는 일본어와 유사합니다. 또한 4가지의 성조가 존재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5) 중국의 문자는 한자로서 6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자는 한 글자가 한 단어를 표기하는 표어문자이자, 각 글자가 음절에 대응하는 음절문자입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 문어로서 동아시아 공동 문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한자를 간략화한 간체자를 쓰고 있으며,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위해 중국 대륙에서는 한자병음, 대만에서는 주음부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일본의 언어는 음절말 받침이 오지 않는 개음절 언어이고, 음절 이외의 단위도 장음의 단위가 되는 모라 언어입니다. 어중에서 2모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인해 축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어는 언어 계통을 여전히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한편 일본어는 고저 액센트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7) 일본의 문자는 가나로서 한자의 초서체를 따온 히라가나, 한자 해서체의 일부 획을 따온 가타카나가 있는데, 음절자인 한자를 이용해 일본어를 표기하고자 한 결과입니다. 현재 일본어를 적을 때에는 두 가지 가나와 한자를 함께 사용해서 문장을 표기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글의 모음자는 조음될 때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O/X)
정답: X
2.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에서는 종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O/X)
정답: X
3. 한자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전 세계의 문자 중에서 대표적인 표의문자이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든 문자이다.
② 한글은 당시 동아시아 문자와는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
③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지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정답: ③
2. 다음 중 중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국어는 언어유형론적으로 고립어에 해당한다.
② 중국어의 어순은 한국어와 동일한 SOV 구성이다.
③ 중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은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만이 존재한다.
정답: ②
3. 다음 중 일본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일본어는 음절말에 받침이 오지 않는 개음절 언어이다.
② 일본어는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이 존재한다.
③ 일본어는 계통적으로 다른 동아시아 언어와 관련성이 분명하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한국어의 자음 중 장애음들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의 세 가지 소리가 대립을 보인다.
정답: 평음, 유기음, 경음
2. ○○란 음절이 아닌데도 음장이 나타나는 일본어에서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

안한 음운론적 개념이다.

정답: 모라

3. 한글은 ○○○○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문자가 표기하는 단위가 자음이나 모음, 즉 음소 단위를 표기하는 ○○○○에 속한다.

정답: 표음문자, 음소문자

나. 토의 (30분)

1. 한국어와 일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2. 공식적인 한글 표기법 규정의 정립과정을 서술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한국어는 언어계통론적으로 알타이 제어에 속합니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알타이 제어의 특징을 찾아 써 봅시다.

■ 참고자료

한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한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훈민정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강신항(2003),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借字表記法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2차시>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

■ 학습 목표

1.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양층 언어 상황에 대하여 학습한다.
2. 동아시아의 한문 수용 방식과 한자 문화 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강의 목차

1.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양층 언어 상황
2. 공동 문언어를 통한 동아시아 교류의 한 풍경
3. 동아시아의 한문 수용과 문화
4. 한국의 한문과 한국어 인식
5.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먼저 근대 이전 시기 동아시아에서 공동 문언어로서 한문이 통용되면서도 동아시아 각각에 자국어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양층 언어 상황

한동안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문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였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중국에서 한자가 만들어져 사고 내용을 글로 적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적 성취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매우 발달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중국 주변 민족들은 한동안 자민족의 말은 있지만, 문자는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비해 문화적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동아시아에 한자만이 존재하던 상황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주변 민족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언어생활을 영위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글로 적는 쓰기 생활의 경우, 당시의 유일한 문자인 한자를 도입해서 글을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자를 이용해서 사고 내용을 적는 방식은, 고대 중국에서 이루어진 방식, 곧 고대 중국어의 질서를 반영해서 한자로 문장을 적는 한문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도입해서 사고 내용을 적는다는 말은 곧 한문으로 문장을 적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동아시아의 중국 주변 민족에게 언제 전래되었는지 명확히는 않지만, 대략 한국에는 한반도에 한 4군이 설치되기 전

후인 기원전 2세기 경, 일본에는 대략 1세기 이후일 것으로 보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문 서사 방식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한편, 동아시아의 중국 주변 민족의 읽기 생활은, 발전한 중국에서 기록된 한문 기록을 도입해서 읽었습니다. 한국 측의 기록이나 유물을 볼 때, 이미 4세기에 백제에서 《노자》를 읽었고, 6세기에 《논어》를 읽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일본의 기록을 볼 때에도 4세기 경 왕인이 《논어》를 전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문 서적이 전파되고 이를 독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의 한문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런 서적의 전파는 이 시기에 이미 동아시아의 한문 사용 능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적인 중국의 문화와 학문을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을 통해서 수입하고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이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 민족을 초월한 공동 문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자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구어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음에도, 문장은 모두 한문으로 쓰고 읽었기 때문에 글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즉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는 입으로 발화하는 구어와 문언어가 공존하는 diglossia, 곧 양층 언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있어서는, 입으로는 자민족의 말을 하면서도, 글로는 동아시아 공통 문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민족어와 문언어가 양층 언어였습니다. 이때의 문언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양층 언어는 현실적 구어와 의고적 문어였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 시기에 정착된 문장으로 고대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어서, 후한 이후 중국의 구어인 백화와는 거리가 있는 문어였던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양층 언어 상황은, 일견 전근대 유럽의 양층 언어 상황과 유사한 것처럼 설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전근대 유럽의 양층 언어는 구어로서의 라틴어와 자민족어였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자민족 공동체에서는 자민족어를 쓰면서도, 타민족간의 소통이나 학문 등의 상황에서는 링구아프랑카(Lingua franca), 즉 세계어이자 공통어로 라틴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근대 유럽에서 링구아프랑카로서의 라틴어가, 각각 다른 자민족어를 지닌 여러 민족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듯이, 동아시아에서 한문이 각각의 자민족어를 지닌 한국, 일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문을 동아시아의 링구아프랑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근대 유럽의 라틴어와 유럽 제민족의 언어는 각각 대등한 자격을 지닌 구어로 공존했던 데 비해, 한문은 글 속에서만 존재하던 문언어였습니다. 따라서 중세 유럽 제민족들은 자민족어와 링구아프랑카가 완전히 별개의 언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근대 이후 자민족 언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한문은 말과는 다른 글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각각 한문에 적힌 한자를 각 언어 음운체계에 맞게 고정된 한자음으로 읽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동일하게 발음하는 구어로서의 링구아프랑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문은 다만 의미의 측면에서 통하는 공동 문언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전근대 동아시아의 양층 언어 상황과 전근대 유럽의 양층 언어 상황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보이는 링구아프랑카, 곧 유럽의 라틴어와 한문을 대하는 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근대화

를 위한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통일이 필요했습니다. 각 민족의 정체성에 있어서 자민족어가 지닌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각 민족이 단합하여 근대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민족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전의 링구아프랑카, 즉 유럽의 공통어이자 세계어였던 라틴어는 쇠퇴하고 각 민족어가 우세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공동 문언어인 한문이 쇠퇴하게 된 이유는 유럽에서 라틴어가 쇠퇴한 이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문언어였던 한문보다는 자민족의 문자를 써야 한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말 한국의 국문 사용 주장이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전후에 주장됐던 한문 배격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주된 이유는 한문이 자민족의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한자와 한문이 근대화를 저해할 만큼 배우고 쓰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문 배격론이 민족적 자각에 의한 것이었다면, 중국에서 나타난 한자 한문 대체론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전 공동 문언어인 한문에 대한 배격은 그것이 근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의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민족적 정체성이나 단합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 계몽주의자 가운데, 사방 풍토가 다르면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게 마련이고, 그 말에 어울리는 문자는 따로 있으니 한민족이 한자가 아닌 한글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는 얼핏 보기에 민족적 정체성과 결부된 문자에 대한 자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이미 15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예가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서>의 첫머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11세기 북송의 소옹(邵雍)이 저술한 《황극경세서》에도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적 자각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문이 동아시아 각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 문언어라는 인식은 이미 일찍부터 있어 왔던 듯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삼국 시대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한문으로 중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실제 자료를 통해서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고려 시대의 자료부터입니다.

10세기에 활동한 균여와 동 시대인인 최행귀가 균여의 향가를 한시로 번역하면서 썼다는 서문이 《균여전》의 <역가현덕품>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최행귀는 “한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재자(才子)와 명공(名公)들은 당나라 글귀를 읊을 줄 아는데, 당나라의 거유(巨儒)나 석학이라도 우리 노래는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당나라 글은 제망(帝網)이 얽어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읽기 쉽지만, 우리 향찰은 마치 범서(梵書)가 펼쳐진 것 같아서 저 중국에서는 알기 어려움에랴. 가령 양·송의 뛰어난 문장은 동쪽으로 오는 물길에 자주 의탁돼 오지만, 신라의 뛰어난 문장이 서쪽으로 가는 일은 드무니 그 뜻의 소통이 역시 감당하기 한탄스러운 것이다. … 바라는 바는 동서에 장애가 없이 두루 통해서 행서와 초서 모두 퍼져 불가와 속세가 인연으로써 보고 듣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찰이 우리만의 표기법이어서 한문을 쓰는 중국인들은 읽을 수 없는데, 균여의 심오하고 뛰어난 향가가 향찰로 쓰여져 있으니 이를 한시로 번역해서 중국인들도 두루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뛰어난 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쓴 한시 역시 중국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10세기에 이미 한자와 한문을 공

동 문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307년(충렬왕 33) 민지(閔漬)가 쓴 <오대산사적 발문>에는 “이 절의 기록들이 신라 시대의 신라말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고, 중국 사신에게도 보일 수 없어서 이를 한문으로 고쳐달라는 청을 받아 한문으로 만들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중국 사신이 볼 수 있는 글은 한문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시의 당연한 인식일 수 있습니다만, 차자로 기록한 신라말은 나라 경계 안에서만 통용되지만, 한문은 국가를 초월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공동 문언어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당연히 조선 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준(李峻, 1560~1635)의 시문집인 《창석집(蒼石集)》 권11에 실린 ‘여병산서원사우(與屏山書院士友)’ 라는 글에는 “제가 문집 가운데 방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우리나라의 이름난 사람의 문집을 중국인이 구매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에서만 유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는 한문 속에 한국어를 차자 표기하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공동 문언어인 한문이 되지 못하므로 차자 표기되어 들어간 한국어 고유어 요소를 한문에서 쓰이는 한자어로 바꾸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자료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동아시아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니다.

2. 공동 문언어를 통한 동아시아 교류의 한 풍경

이제 동아시아의 공동 문언어인 한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동아시아에서의 문화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에서 동아시아를 한국, 중국, 일본으로 한정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자 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에서는 베트남까지도 포함됩니다. 일찍이 교지(交趾), 안남(安南)으로 불렸던 베트남은 일찍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찍 한자가 전래되었으며, 리 왕조에서는 1075년에 과거제를 시행하고 국자감을 만들어 유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자 문화권이자 유교 문화권의 속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도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공동 문언어로서의 교류가 흥미롭습니다. 《성종실록》의 1488년(성종 19) 12월 24일 조에 실려 있는 <서거정 즐기>에는 서거정이 사은사로 북경에 가서 안남국 사신 양곡(梁鵠)을 만났는데, 서거정이 근체시(近體詩) 한 율(律)로 먼저 지어 주자 양곡이 화답하므로 서거정이 곧 연달아 10편을 지어 응수하니 양곡이 탄복하여 ‘참으로 천하의 기재(奇才)’ 라 했다는 기사가 발견됩니다. 서거정은 1460년(세조 6)에 사은사로 북경에 간 적이 있으니, 바로 이때 북경에서 베트남의 사신과 한문을 통해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조실록》 1628년(인조 6) 12월 26일 조에 있는 <이수광 즐기>에, 이수광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안남, 유구, 섬라(태국)의 사신들이 모두 그의 시를 구해 보고 본국으로 가져가 유포했으며,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이 상선을 따라 교지국(交趾國), 즉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 이수광의 시를 보이면서 시를 쓴 이지봉을 아는지 물었다면서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존중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이수광의 관련 이야기는,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의 권14 <문장부(文章部)>의 ‘창화(唱和)’ 조에 조금 더 자

세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수광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안남국 사신 풍극관(馮克寬, 풍각 코안)을 만나서 주고받은 시집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시구에서 “산은 신이한 형상으로 솟아있는데 코끼리 뼈가 너럭하고, 땅은 신령한 기운이 많아 용향을 만들어낸다[山出異形饒象骨 地蒸靈氣產龍香]” 라고 했는데, 이 시구를 베트남인들이 좋아하더라는 말을 왜국에 포로로 갔다가 베트남까지 갔다가 돌아온 조완벽(趙完璧)이라는 사람을 통해 들었다면서, 시를 쓸 때는 베트남에서 상아와 용연향(龍涎香)이 생산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썼을 뿐인데, 실제로 베트남에象山(象山)이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시를 좋아했다면서 이는 우연일 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경에서 있었던 베트남 사신 풍극관과의 교류 역시 한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임은 물론입니다. 또한 들은 바에 의거해서 쓴 한시가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베트남과 조선이 모두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이수광이 말한 조완벽(趙完璧)이라는 선비의 행적에 대해서는 <지봉유설> 권17 중 <잡사부(雜事部)>의 ‘이문(異聞)’ 조에 조금 더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진주의 선비로서 정유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장사하는 왜인을 따라 세 번이나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봉(芝峯) 이수광의 사망 5년 뒤인 1634년(인조 12)에 이수광의 두 아들 성구(聖求)와 민구(敏求)가 편찬한 《지봉선생집》(또는 《지봉집》) 권23에 수록된 <조완벽전(趙完璧傳)>에 조완벽이 경험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당시 한자 문화권에 있는 민족 간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재미있는 언급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조완벽에게 베트남의 문사들이 “귀국은 예의의 나라이니 우리나라와 동체다.” 라고 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문언어를 가진 공동체로서 이전에도 베트남에서는 한문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11세기말 이후 유학의 학습과 연구의 전통이 자리 잡은 베트남에서 유학을 숭상하는 조선에 대해 일종의 문화적 동질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 문언어인 한문을 통한 조선과 베트남 사이의 교류의 장면은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의 장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이외의 동아시아 각 나라와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낯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장면이 동아시아에서의 공동 문언어를 통한 교류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를 예로 들어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의 장면은, 한문이라는 공동 문언어를 통해 동아시아가 하나의 학문과 지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동아시아의 공동 문언어인 한문은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와는 다른 질서에 따라 작성된 것임에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어떻게 한문을 이해하고 수용했을까요?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 동아시아의 한문 수용과 문화

한국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중국의 한자 문화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196년 위만(衛滿) 조선이 망하자 위만조선의 왕인 준(準)이 수천 명을 이끌고 마한을 격파하여 왕이 되었다거나, 진한 노인들이 자신들이 진(秦)의 행역을 피해 도망쳐서 진한(辰韓)까지 이르렀기에 나라 이름을 진한(秦韓)이라고도 한다는 중국 《후한서》 권85 <동이열전>의

‘한(韓)’ 조의 기록 등 중국 사서의 기록은 이른 시기부터 한국이 중국 문화와 접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찍부터 한자와 한문을 접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에 전해진 한문 서적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기록을 통해서 삼국 시대부터 어떤 한문 서적을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구당서(舊唐書)》의 ‘고려’ 조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서적을 사랑해서, 허름한 집이나 천한 사람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큰 거리에 ‘경당(扁堂)’이라는 큰 집을 지어서 그 자제들이 항상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혔는데, 책은 5경, 《사기》, 《한서》, 범엽의 《후한서》, 《삼국지》, 손성의 《진춘추(晉春秋)》, 《옥편》, 《자통(字統)》, 《자림(字林)》, 《문선(文選)》을 읽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 어떤 한문 서적이 전파되어 읽혀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기록입니다.

백제에서 어떠한 한문 서적들이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당서》의 백제의 서적에 대한 언급이 그것입니다. 백제의 서적으로 오경과 자(子), 사(史)가 있었고 표문과 상소가 중국의 법도에 따라 쓰고 있다는 기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597년 또는 657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목간이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 조성터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논어》 <학이편>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에, 근구수왕이 태자 시절에 고구려군을 추격해서 수곡성(水谷城)까지 이르렀을 때, 막고해 장군이 태자를 설득하면서 《노자》 또는 《도덕경》 제44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구수왕의 태자 시절이면, 부왕인 근초고왕의 재위 기간인 346년에서 375년 사이의 일일 터인데, 그때 백제에서 《노자》를 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우선 552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임신서기석의 기록 중에 두 사람이 앞으로 3년 동안 시(詩), 서(書), 예(禮), 좌전(左傳)을 읽기로 맹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의 ‘시’는 《시경》(또는 《모시(毛詩)》), ‘서’는 《서경》, ‘예’는 《예기》, ‘좌전’은 《춘추좌씨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에서는 6세기 중엽에 이들 책이 전파되었고 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6~8세기의 목간으로 보이는 김해 봉황동 목간에서 《논어》의 ‘공야장(公冶長)’의 일부가 발견되는 사실에서도 이 시기에 읽은 한문 서적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밖에 인용 기사를 통해서도 당시 읽은 한문 서적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삼국사기》 권45 <열전>의 ‘김후직(金后稷)’ 조에는, 김후직이 《노자》 12장의 내용과 《상서(尙書)》, 즉 《서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사냥을 좋아하는 진평왕에게 간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진평왕의 재위 기간이 579년에서 632년까지이니 6세기 말 경에 이들 책이 신라에서 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어떤 한문 서적이 읽혔는지는 《삼국사기》 권38 <잡지(雜誌) 제7> ‘직관(職官) 상’ 중 ‘국학’ 조의 ‘교수지법(敎授之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는,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문선》으로 구분하여 학업으로 삼았다. 박사와 조교 1명이 때로는 《예기》와 《주역》과 《논어》와 《효경》을, 혹은 《춘추좌씨전》, 《모시》, 《논어》, 《효경》을, 혹은 《상서》, 《논어》, 《효경》, 《문선》을 가르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독서로써 3품으로 선발하니 《춘추좌씨전》과 《예기》와 《문선》을 읽고 그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논어》와 《효경》에도 밝은 자는 상급으로,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는 중급으로, 《곡례》, 《효경》을 읽은 자는 하급으로 삼았다. 만약 5경과 3사와 제자백가서를 능히 아울러 잘 아는 자는 등급을 초월해서 발탁해 썼다. 한편 산학박사(筭學博士)와 조

교 1인이 《철경(綴經)》, 《삼개(三開)》, 《구장(九章)》, 《육장(六章)》으로 가르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국을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82년(신문왕 2)에 최종적으로 설립된 국학의 제도에 대한 기록이므로 이 시기에 통일 신라에서 중시되던 한문 서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에는 372년(소수림왕 2), 백제에는 384년(침류왕 1), 신라에는 527년(법흥왕 14)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7세기 후반에는 이미 상당한 불교 철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승려들이 직접 중국에 가서 불교를 익혀 중국 내에서 종파를 이루었는가 하면, 귀국해서 국내의 종파를 이루어 한국 불교 수준을 높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상과 원효입니다. 의상은 661년 당으로 유학하여 지엄(智嚴)으로부터 화엄학을 배운 뒤 670년 귀국하여 한국의 화엄종을 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저술과 화엄 강의로 높은 식견을 사방에 떨쳤는데, 특히 당의 법장(法藏)이 자신의 저술을 보내 검토해 줄 것을 청한 일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원효 역시 활발하게 불교 경전에 대한 해석서를 찬술했는데, 특히 원효의 저술은 일본에서 중시되었습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교수에 따르면, 일본 나라 시대에 일본에 들어온 신라의 글이 정창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원효의 찬술이 58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의상과 원효의 예는 동아시아에서 한문을 통한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고려 시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한문 서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삼국 시대부터 유학 관련 한문 서적을 통해서 유교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유교 문화가 공고하게 저변을 이룬 그 위에, 고려 시대의 광종에 의한 과거 제도의 도입, 그리고 고려 성종의 유학 존숭 정책으로 유교 문화는 이후 한국 문화의 굳건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려 말부터 수입된 주자학이 도입되고, 이를 집대성한 《성리대전》이 세종대에 전래되었는가 하면 유교 관련 서적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중국 성리학을 뛰어넘는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 철학적 경지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시대를 관통해서 성리학적 유교 문화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은 현재까지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게 유교 문화의 영향이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고려 시대까지 발전했던 불교 철학은 고려 말 이후로는 쇠퇴기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 관련 한문 서적이 도입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의 유교 국가로서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에 발전했던 불교 철학적 진전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고려 시대에 활발하게 도입한 한문 불경들을 대장경 간행으로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불경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실질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불교 문헌의 도입은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불교의 이해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꾸준히 불경의 언해가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지향하고 또 유교 문화의 영향이 민간에 강하게 미치고 있었지만, 불교 역시 민간의 일상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불교 문화의 전통이 현재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통된 한문 서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근초고왕(재위 기간: 346년~375년) 때 아직기와 왕인을 일본에 보내 한학(漢學)을 전수했는데, 왕인 박사는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일본에 가져가 전했다는 기록이 일본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전합니다. 이 가운데 《천자문》은, 남북조 시대 양(梁)의 주흥사(周興嗣, 470~521)가 지은 것이니, 왕인이 근초고

왕 때 일본으로 《천자문》을 가져갔다는 기록은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논어》를 전해 주었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초기에 한반도를 통해서 한문 서적을 도입했는가 하면, 한반도에서 찬술된 불교 관련 한문을 도입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일본의 특징적인 외국 문화 도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문을 도입합니다. 일본은 견수사(遣隨使), 견당사(遣唐使) 등과 같이 직접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한자 문화의 중심으로부터 직접 선진 외국 문물을 수입하고자 했습니다. 견당사를 통해서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유학적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주자학의 수용은 늦어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에 의해 에도 시대 초기에 주자학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후 이후의 어떤 해석도 초월해서 경전 원문 그대로의 뜻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고학(古學)’이라는 일본 고유의 유학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루어진 유학의 전통은 막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막부의 지원에 의해 발전하게 된 유학은 신분 제도를 합리화하고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확고히 했는가 하면, 특히 유교의 가치 중 ‘효’ 보다는 ‘충’을 강조함으로써 주군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유교 문화는 민간의 생활 저변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문을 통해 한자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구별되는 수용 태도를 보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한문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원전을 있는 그대로, 곧 중국에서의 이해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문 수용 방식은, 특히 조선 시대에 잘 나타났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조선을 소중화(小中華)로 인식하여, 중국과의 차별되는 한문의 수용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문 수용 초기에 한문 원문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풀어 읽으면서 한문 원문의 한자를 그 의미로 풀어 읽기도 했던 석독 구결법이 점차 사라지고, 한문 원문은 음으로만 읽으면서 부분적으로만 구결을 달아 읽는 음독 구결법으로 변화한 것도 사실은, 원문의 한자를 석으로 풀어 읽는 방식은 이미 의미 해석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1517년에 《소학》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소학》을 간행했으면서도 불과 70년 만에 또 《소학》을 언해한 《소학언해》를 간행한 이유도, 《번역소학》이 의역을 해서 언해했기 때문에 원문에 있는 내용이 언해에 반영되지 않기도 하고,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 더해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는 끈질긴 문제 제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부터 시도되었던 유교 경전의 언해가 16세기 말에 가서야 언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어떠한 해석이 원문의 의미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곧 정통적인 해석에 맞는지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작 간행된 사서 삼경의 언해서들의 언해는 거의 구결을 달아 풀어 놓은 수준으로 직역해 놓아 한국어 문장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인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는 한자 한문 문화에 있어서 조선이 중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명이기도 했으나, 근대 서구 문명을 한국화하여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대 서구 문물의 수용을 통한 근대화 정도는 근대 문물의 번역어로 나타난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 문물을 이해한 정도가 그에 대한 번역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문을 일본어로 풀어 읽는 훈독의 전통이 남아 있던 일본은, 서구의 문헌을 통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때에도 한문 훈독의

방식을 적용해서 이해하여 수용했습니다. 이때 서구 문명어들을 일본어로 혼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명어들을 적절한 단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이유로 번역 연구가 발전하여 현재까지도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서구 문물 번역어가 적은 것은 바로 이렇게 한문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방식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한문 수용 방식은,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는 헤이안 시대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 845-903)가 훈계로 남겼다는 ‘화혼한재(和魂漢才)’ 라는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진적인 외국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최대한 일본화하는 방식으로 외국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상 견수사(遣隨使), 견당사(遣唐使)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 적극적으로 선진 외국 문물을 수입해서 모방하면서 화혼(和魂)에 비추어 취사선택하고 변형하여 일본화하는 방식으로 한자 한문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외국 문화의 수용 방식은 근대 메이지 유신 이후 이른바 ‘화혼양재(和魂洋才)’ 로 변형되어 적극적으로 서구 문물을 체험하고 모방하되 일본화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고전문학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칭송되는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일본에서 외국 문화를 대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잘 말해 줍니다. 겐지모노가타리 정편 41권에 걸친 히카루겐지(光源氏)의 이야기 구조에 견당사를 통해서 수입된 《후한서》의 ‘청하왕 경 전’ 의 이야기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과 조선의 한문 교류에서 흥미로운 일은 조선 초 태종대부터 끈질기게 일본은 사신을 통해 대장경을 수입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대장경을 인출해서 주기를 요구하자 아예 대장경판을 일본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선에 이렇게 계속 대장경 인출본을 요구한 사실도 역시 당시로서는 불교 철학의 집대성한 결과가 동아시아에서 조선에만 남아 있다고 일본에서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견당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중국 한자 문화를 도입했던 것과 유사하게,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지닌 조선으로부터 대장경을 직접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대정(大正, 다이쇼) 연간(1912~1925)에 고려 대장경을 모범으로 하되 인도와 중국에서의 찬술, 일본에서의 찬술 등을 모두 종합한 《다이쇼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을 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일본의 외국 문화를 도입하는 특징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에서 공동 문언어인 한문을 통해 지식과 문화를 수용한 사실과 관련해서, 공동 문언어와는 차이가 있는 자국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 한국의 한문과 한국어 인식

한국에서의 한문 수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쓰여진 한문 서적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어(俚語)’ 라는 말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한국의 한문에서는 종종 자국어를 가리키는 말로 ‘이어’ 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에서 발견되는 ‘방언이어(方言俚語)’ 입니다. 또한 《고려사》 〈악지〉의 속요 조의 ‘한림별곡’ 에서도 ‘이어’ 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후대에 한글로 기록하여 간행된 《악장가사》의 가사와 비교해 보면 한

국어 고유어로 된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등과 같은 한국어 고유어 부분입니다. ‘동동’의 ‘사리부재’라는 말도 사실 한문으로 기록하는 《고려사》〈악지〉이므로 ‘가사가 우리말이어서 신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시합니다. ‘한림별곡’에서는 우리말로 된 노랫말 부분을 차자해서 적지 않고 이 부분은 ‘이어’, 즉 한국어 고유어로 되었다고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자국어(자국어)를 가리키는 ‘이어’의 용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세종실록》의 세종 16년, 즉 1434년 10월 25일자 기록에서는 영의정 황희가 중앙과 지방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향언이어’로 초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사에 한국어를 차자 표기하고, 이두문으로 작성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또한 《노산군일기》의 노산군 1년, 즉 1453년 9월 21일자 기사에는, 명으로 표류해 간 조선 수군 3명의 송환 문제로 간 조선 사신에게 명의 당상이 문인, 즉 증명서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자 그 증명서가 이어, 즉 한국어를 차자 표기한 것이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차자 표기한 증명서는 한문의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니므로 중국의 관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문헌 안에서는 자국어를 가리켜 ‘이어’로 부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어’는 원래 한자의 뜻이 속되고 상스러운 말, 비루한 말 정도이므로 결코 긍정적인 의미일 수 없습니다. 과연 왜 자국어를 이렇게 비하적인 의미로 불렀던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에서의 공동 문언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1307년(충렬왕 33) 민지(閔漬)가 〈오대산사적 발문〉에서 중국 사신도 볼 수 있도록 신라말로 된 절의 기록을 한문으로 고친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이준(李濬, 1560~1635)이 《창석집(蒼石集)》 권11의 ‘여병산서원사우(與屏山書院士友)’에서 한문 속에 한국어가 차자 표기되어 들어갔을 경우 우리나라 밖에서는 유전되지 못하므로 이들을 제거하고 한문에 맞게 고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대상은 모두 한국어 고유어가 차자 표기되어 한문 속에 포함되었을 때입니다. 즉 한문 속에 한국어가 차자 표기되어 들어가면 이는 한국 밖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글이 되므로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곧 한국어 고유어를 한문 속에 적기 위해서는 차자 표기해서 적는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그 글은 동아시아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고려 초 10세기에도 있었음을 《균여전》의 〈역가현덕품〉에 실려 있는 최행귀의 서문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해서 차자 표기한 향찰은 중국에서는 읽을 수 없는데, 중국에서 작성한 글이나 노래는 한국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균여의 뛰어난 향가도 중국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한시로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어 요소를 적게 되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글이라는 인식과 따라서 나라의 경계를 초월해서 통용될 수 있는 한문이 우월한 표기 방식이라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총이 한문을 한국어 요소가 반영된 석독 구결문으로 풀어 쓴 사실에 대해 오히려 귀찮이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문을 중시하는 인식은 일찍이 통일신라 말의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을 지으면서 고유어로 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등을 모두 왕(王)으로 바꾼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세기 고려의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에서, 신라 의상의 제자들이 스승의 강의를 석독 구결문으로 기록한 글에 대해서, 문체가 좋지 않고 장구가 비야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 섞여 있어서 마땅히 윤색을 가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에서도 한국어 고유어가 반영된 글보다 한문을 우월하게 보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

런 인식이 있었음은, 조선 초의 권근이 1403년(태종 3)에 『삼국사략』의 서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 시대의 역사서에는 한국어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단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김부식이 이를 모두 없애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의 역사에서 한문을 중시한 사실에 대해서 지나친 모화 사상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대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한문을 우월한 문장으로 여기게 된 이유는 중국을 동경해서라거나 사대주의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한문이 동아시아의 공동 문언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요소가 반영된 글은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을 뿐, 경계를 초월해서는 통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문 속에 차자 표기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국어 요소는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자국어의 속되고 상스러운 말, 비루한 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국어를 ‘이어’로 부르게 된 것은, 자기 비하적인 인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을 중시하는 인식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5 정리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가 형성하게 된 한문 교류와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는 동아시아의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이 존재했기에 가능했으며, 동아시아의 공동 문언어는 자민족어와의 충돌 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에 동아시아에서는 활발하게 한문이 유통되고 수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한동안 유일한 문자였고, 문자를 지닌 중국은 월등하게 발전한 지적,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한자와 중국의 문화는 중국 주변 민족에게 전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주변의 민족어와는 다른 질서를 지닌 한문임에도 그것이 유일한 문장 표기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입으로는 자민족어를 발화하면서도 문언어로는 고대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된 한문을 쓰는 양층적 언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한문은 유럽의 링구아프랑카와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어서 근대화 과정에서도 자민족어와 갈등 관계에 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한자나 한문 대신 자민족의 문자를 이용한 표기가 주장된 적이 있었습디만, 그것은 민족적 자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자와 한문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근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경우 10세기의 기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를 거쳐 조선을 관통하여 이어져 왔습니다.

(2)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공동 문언어를 통한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문을 통한 교류의 양상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교류는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서,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일원이 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양상에 대해서는 중국의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서거정, 이수광의 즐기에도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수광 사후 두 아들이 편찬한 《지봉(선생)집》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문을 통한 베트남과의 교류가 가능했음은 물론 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었으며, 베트남 사람들이 조선과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문언어인 한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 동아시아 중 한국이 기원전부터 중국의 한자 및 문화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중국 역사 서들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기록과 유물, 한국의 역사 기록 등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삼국 시대부터 한국에는 한문 서적이 전파되어 읽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유학서인 5경은 물론 《사기》 등의 역사서, 《옥편》 등의 한자서 등이 읽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에도 5경과 자, 사의 서적이 존재했으며 《논어》와 《노자》 등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신라 역시 《시경》, 《서경》, 《예기》, 《춘추좌씨전》, 《노자》 등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한학 서들이 교육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문 불교 서적 역시 일찍부터 전파되어 읽혔음은 물론 이에 대한 찬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문을 통한 지적 교류는 삼국의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는데, 특히 의상의 찬술은 중국으로, 원효의 찬술은 일본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4) 한국과 일본의 한문 수용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중국에서의 이해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문을 수용하고자 했다면, 일본에서는 외국의 것을 들여오되 자신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화혼한재’의 태도로 한문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중화를 표방할 정도로 한문 구사 능력이나 문화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동일한 방식에서의 수용을 추구하여 학문적 경지를 더욱 높이는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문물어를 번역해서 자기화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한문 혼독 방식으로 서양 서적을 이해함으로써 번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5) 한문의 수용이 가능하게 했던 공동 문언어에 대한 인식이 자국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국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국어를 부정적 의미를 지닌 ‘이어’로 부른 일이 많았습니다. 이는 한문을 보다 우월한 문장으로 보는 인식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한문을 높이 보는 인식은 단순히 중국을 추종하는 사대주의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국어 요소가 한자로 차자 표기되어 들어간 문장의 경우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통용될 수 없는 데 비해, 한문은 나라의 경계를 초월해서 통용될 수 있다는 공동 문언어로서 한문을 바라보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문이 동아시아에서 두루 통용되는 공동 문언어인데, 한국어 요소가 차자 표기되어 한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더이상 공동 문언어일 수 없게 된다는 인식, 곧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을 망치는 요소가 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자국어를 부정적 의미를 지닌 ‘이어’로 가리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양층 언어 상황과 두 언어 중 하나인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문을 통한 실제 동아시아에서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한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본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이미 4세기 경부터 중국에서 기록된 한문을 읽어 왔다.
(O/X)

정답: O

2.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전 공동 문언어인 한문에 대한 배경은 민족적 정체성과 단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O/X)

정답: X

3. 한국의 자료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동아시아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O/X)

정답: O

선택형 (5분)

한자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유교의 가치 중 '효'보다는 '충'을 강조함으로써 주군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 ② 중국과의 차별되는 한문의 수용을 용납하지 않았다.
- ③ 한문원문에 음을 달아 부분적으로 구결을 달아 읽는 음독구결에서 한문 원문을 한국어 어순으로 풀어 읽는 석독구결법으로 변화하였다.

정답: ②

2. 다음 중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한문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동아시아에 한자만이 존재하던 상황으로 주변 민족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언어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 ② 글쓰기의 경우 고대 중국어의 질서를 배척하고 자국의 언어 질서로 한문 문장을 작성하였다.
- ③ 한국에는 한반도에 한 4군이 설치되기 전후인 기원전 2세기 경에 한문을 도입하였다.

정답: ②

3. 다음 중 한국의 불교 문화 전통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고려 시대까지 발전했던 불교 철학은 고려 말 이후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 ②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의 유교 국가로서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후 불교 문화는 완전히 쇠퇴하였다.
- ③ 삼국시대부터 승려들이 직접 중국에 가서 불교를 익혀 귀국해서 국내의 종파를 이루어 한국 불교 수준을 높였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은 선진적인 외국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최대한 일본화하는 방식으로 외국 문물을 수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답: 화혼한재

2. 한국에서 자국어인 ‘○○’로 부르게 된 것은, 자기 비하적인 인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동 문언어로서의 한문을 중시하는 인식으로부터 나왔다.

정답: 이어

3. 전근대 유럽의 양층 언어는 구어로서의 ○○○와 자민족어였다.

정답: 라틴어

나. 토의 (30분)

1. 한국과 일본의 한문 수용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2.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공동 문언어로의 교류 양상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전근대 유럽의 링구아프랑카와 동아시아의 한문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 **참고자료**

한문([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한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借字表記法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3차시> 동아시아와 한국의 출판·인쇄 문화사

■ 학습목표

1. 동아시아 책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동아시아 책의 유형을 살펴본다.
3. 한국에 간행된 책의 형태와 특징을 알아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동아시아 책의 역사
3. 동아시아 옛 책의 유형
4. 한국 한글 간본의 형태와 특징
5.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 생활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을 가능하게 한 한문을 통한 문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한문 문헌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인 한문을 통한 지식의 교류는 한문으로 기록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던 책이 발달해 온 역사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책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특히 한국에서 한국어를 통한 언어생활의 대상이 된 한글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간행된 책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에서 유통된 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동아시아 책의 역사

책은 지금까지 인류의 지적 성취를 집약하여 전파하고 전승하는 가장 일반적인 매체였습니다. 현재 인류의 대부분의 지식과 문명은 책을 통해서 축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역시 책을 통해 지식과 문화가 전파되고 공유되었는데, 특히 동아시아 공동 문어인 한문으로 기록된 책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부터 책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아시아

아의 한자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동아시아 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책으로 불리는, 일정한 분량의 기록물이 나오기 전, 최초로는 동물의 뼈나 돌, 청동기 등에 문자를 새겨 넣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동물의 뼈 가운데, 특히 거북의 등 껍질에 글자를 새긴 갑골문이 가장 이른 시기의 문자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골문은 일정한 서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점술 등을 위한 단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돌이나 청동기, 철기 등에 문자를 새겨 넣는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청동기 등에 단편적인 문자만을 새겨 넣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겨 넣는 내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대 중국의 서주 시대까지는 청동기에 문자를 주조해서 덧붙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자가 문자 발달에 있어서 갑골문 다음의 금문(金文)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돌에도 문자나 문장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돌에 새겨진 글을 금석문(金石文)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본격적인 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나 철기, 돌에는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국가의 행정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기록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게 되자 더 가볍고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죽간(竹簡)과 목독(木牘)입니다. 목독은 목간(木簡)이라고도 부르고, 죽간과 목독을 아울러서 간독(簡牘)이라고도 부릅니다. 죽간은 대나무를 세로로 얇게 조각을 내서 그 대나무 조각들 위에 붓으로 기록을 한 뒤, 이 조각들을 끈 등으로 위나 위와 아래를 묶어서 일정한 분량의 글이 되도록 했습니다. 죽간, 목독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갖춘 본격적인 책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한자의 ‘冊’자가 바로 이 죽간, 목독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재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세로로 잘 쪼개지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죽간을 만들면 되지만, 대나무가 흔치 않은 곳에서는 나무를 얇게 조각을 내서 이들을 묶어 목독 또는 목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간의 경우는 항상 일정한 분량의 책으로 묶인 것만은 아니어서, 물품의 발송 사실을 기록한 하찰, 즉 꼬리표 목간의 경우는 쪼개진 나무 조각 하나에 그 사실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렇게 일정한 분량의 책이 나타난 것은 간독, 즉 죽간과 목독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러나 죽간과 목독으로 어느 정도 기록의 요구는 충족되었지만, 그 한 묶음, 즉 한 권의 부피가 너무 크고 무게도 무거워서 보관과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의 선진(先秦) 시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대나무나 나무가 아닌 비단에 붓으로 글을 쓰는 겸백(縑帛)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비단을 길게 잘라서 글을 쓴 뒤 둘둘 말면 죽간이나 목독에 비해 그 부피와 무게가 대폭 줄어들어 특히 이동에 간편했습니다. 그러나 비단은 수량도 많지 않고 매우 비싸서 간독만큼 널리 이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이 발명되기 전까지 겸백보다는 간독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후한의 채륜(蔡倫)이 기존의 마 등으로 영성한 종이를 만들던 기존 제지 기술을 개량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채후지(蔡侯紙)를 만들어 낸 이후, 동아시아의 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 제지 기술은 이후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전파되어 인류 전체의 지식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어떤 재료보다도 가볍고 저렴하며 쓰기에 편리한 종이에 붓으로 직접 써서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책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종이에 붓으로 직접 기록한 필사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이를 이용한 기록이 가능해진 뒤, 대량으로 기록물을 만들어낼 필요가 생기자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간본(刊本)이 나타났습니다. 종이에 직접 필사하는 방식으로는 다량의 정보가 담긴 책을 대량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를 바탕으로 책판을

만들고 이 책판에 먹을 묻혀 종이에 찍어내어 간행한 책이 간본입니다.

간본은 처음에 나무로 책판을 만들었는데, 판목을 깎아서 그 위에 붓으로 필사한 종이 원고를 뒤집어 붙이고 글자를 새겨서 책판에 먹을 칠한 뒤 그 위에 새 종이를 얹어서 찍어내는 목판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740년대에 간행된 한국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입니다.

목판본으로도 다량의 정보가 수록된 책을 대량으로 간행해 낼 수 있었지만, 불편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판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활자본입니다. 활자본은 미리 글자를 새긴 활자를 만들어 두고 원고대로 활자를 배열해서 책판을 만든 뒤 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책 가운데 가장 발전한 책의 유형입니다. 활자는 처음에 나무를 깎아서 낱알의 글자를 새긴 목활자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의 목활자에 대한 기록은 북송의 심괄(沈括)이 11세기 말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목활자는 나무의 조밀함의 차이로 인해서 젖을 경우 조판했을 때 활자면이 고르지 않고 활자면에 눌러 붙은 이물질들을 떼어내기 어려워 흙으로 빚어 구운 교니활자(膠泥活字)를 만들어 썼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활자는 11세기 말 이전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구리 등으로 주조한 금속활자가 사용되었는데, 금속활자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해지는 활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377년에 한국의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로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동아시아의 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을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유형을 분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 동아시아 옛 책의 유형

(1) 간행 여부에 따른 분류

앞에서 잠깐 말했습니다만, 종이를 만든 책은 간행 여부에 따라서 필사본과 간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필사본이 간본보다 앞선다고 말했습니다만, 모든 책을 간행했던 것은 아니어서, 필사본은 최근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필사본으로 만드는 일이 더 많았지요. 개인적으로 간본을 구해 지니기 어려운 경우 간본을 필사하여 책으로 엮은 경우도 많습니다.

옛 필사본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많이 전해지지만, 특히 일본에는 귀중본들이 거의 필사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19세기 후반의 많은 한글 소설들이 필사본으로 만들어져 현재 전한다는 점을 특기할 만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왕실 여인들을 위한 낙선재본 한글 소설이 유명합니다. 이 밖에 궁중의 여인이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기록한 《계축일기》, 《산성일기》 등의 필사본도 유명합니다.

필사본에 비해, 대량 제작이 필요할 경우에는 책판을 만들어 같은 내용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간본으로 책을 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간본의 일반적인 제작 방법은 목판을 이용해서 간행한 목판본이었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책판은 전쟁이나 화재 등과 같은 불의의 재난 상황이 없는 이상,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또 찍어낼 수 있었지요. 현재 한국의 해인사 장경판전에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책판들은 13세기 전반인 고려 고종 연간에 만들어진 이후 조선 시대에 여러 차례 이 책판들을 이용해 대장경을 인출해 낸 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목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잘 마른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판목을 만듭니다. 이와 동시에 책으로 만들 원고를 종이에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필사해 둡니다. 이렇게 필사한 종이를 순서대로 판목에 뒤집어 붙인 뒤, 전문적인 각수(刻手)가 원고의 형식대로 글자를 새기는 판각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책판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이용해서 판각합니다. 판각한 책판이 완성되면 그 책판에 먹칠하고 미리 잘라놓은 종이를 그 위에 덮은 뒤 말총이나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문쳐 만든 인출용 솔로 골고루 문질러 종이에 책 내용을 찍고 떼어내는 인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인출한 종이 낱장 들을 각 장의 순서대로 모아 엮은 뒤에 책으로 묶으면 한 권의 목판본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제작 과정 중에 책판의 판각이 끝난 뒤와 인출이 끝난 뒤에는 모두 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판각이 잘못된 부분은 판각 후에 책판에 교정을 하고, 인출 시에 먹이 찍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한 장에서 먹의 농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원고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인출이 끝난 뒤에 교정을 가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주로 중앙에서 책을 간행했는데, 책의 간행 과정의 책임자들을 임명해서 간행한 책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가혹할 만큼 엄한 처벌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책에 대한 교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판은 많은 경우에 사진에서 보듯이 책판 양쪽에 나무를 남겨서 다른 나무에 끼워 넣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책판 양쪽에 더 끼워진 나무를 보통 마구리라고 하는데, 이는 책판의 두께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책판에 마구리를 끼우는 이유는, 일단 책판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손잡이의 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책판들을 만들어 보관할 경우, 책판들을 겹치게 놓이거나 세워서 보관하게 되는데 인출을 위해 책판을 꺼낼 때 책판끼리 맞닿아 판각한 글자가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놓이거나 세워서 보관하거나 꺼낼 때 마구리끼리만 닿고 책판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밖에 책판을 오래 보관할 경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책판이 뒤틀려 깨질 수 있는데, 양쪽의 마구리가 이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와 긴 제작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 나무가 흔하기는 하지만, 한 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나무의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판목의 제작, 판각 등의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나무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썩기도 하고 수축하면서 판각한 글자가 깨지거나 판각면에 변형이 생기기도 하며,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책이 활자를 이용해 간행한 활자본입니다.

활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낱날의 글자를 새긴 활자를 만듭니다. 이 활자에는 나무를 이용한 목활자와 금속을 이용한 금속활자가 있습니다. 목활자는 판목 위에 글자본을 뒤집어 붙이고 도장처럼 양각한 뒤 한 글자씩 사각형으로 잘라내서 만듭니다. 금속활자는 일반적으로 글자본대로 밀랍자를 만들고 이를 흙과 모래 등으로 싸 거푸집으로 만든 뒤 불에 구워 밀랍을 녹여 내고 그 자리에 구리 녹인 물을 부어 식혀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활자들을 원고대로 뽑아서 행이 나뉜 책판에 배열하고 고정된 뒤, 먹칠하고 종이를 인출해 냅니다. 이렇게 활자본을 간행한 후에 다른 책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책판을 털어서 활자들을 꺼낸 뒤, 다시 판을 짜서 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활자는 개인들이 소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조선에서 활자를 만드는 관청인 주자소를 따로 두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활자는 중앙의 관청에서 만들어 보관하고 활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에서 활자본으로 만든 책을 지방에 배포한

뒤, 지방에서 그 책을 목판본으로 중간해서 지방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앙의 관청에서만 활자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을 경우에는 주자소나 교서관 등에 종이를 사 가지고 가서 간행을 의뢰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조선 시대에는 중앙 관청에서 목활자보다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활자본을 만드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목활자는 《동국정운》과 같이 새로운 활자가 필요할 경우 목활자를 새로 만들어 간행한 책도 있었지만, 주종은 금속활자본이었습니다. 그만큼 조선에서는 많은 금속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1434년(세종 16) 주자소에서 만든 갑인자가 이후 조선 후기까지 활자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1580(선조 13)년의 경진자 또는 제주 갑인자, 1618년(광해군 10)의 무오자, 1668(현종 9)년의 무신자, 1772년(영조 48)의 임진자, 1777년(정조 1)의 정유자 등이 모두 갑인자를 새로 주조한 것으로 이들을 개주 갑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조선 활자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1455년(세조 1)의 을해자가 임진왜란 이전까지 쓰였으며, 갑인자 이전에는 조선 최초의 활자인 1403년(태종 3)의 계미자를 위시해서 1420년(세종 2)의 경자자 등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의 중앙 관청에서는 매우 다양한 활자를 주조해서 책을 간행했습니다.

이후 19세기 말에는 근대식 납활자를 활용한 근대식 활판 인쇄가 유입되었고, 20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활판 인쇄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활판 인쇄는 납으로 주조한 활자들로 판을 짜서 자동으로 인쇄기에 걸어서 간행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조판 전까지는 주종을 이룬 인쇄 방식이었습니다.

(2) 책의 장정 형태에 따른 분류

이번에는 동아시아에서 물리적인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방식, 곧 장정(裝訂)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책의 장정 방법은 앞서 책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자본(卷子本)이 있습니다. 필사한 책이든 책판에서 인출한 각 장이든 이들을 풀로 길게 이어 붙인 뒤에, 그 한 끝에 '권축(卷軸)'이라고 부르는 둥근 막대기 형상의 물건을 붙이고, 다른 한 쪽 끝에는 나무나 종이를 덧대서 두껍게 한 뒤, 권축을 중심으로 이어 붙인 종이를 돌돌 만 다음 반대편의 끝으로 묶는 방식으로 장정한 책이 권자본입니다. 권자본을 읽을 때에는 권축을 중심으로 말려 있는 부분을 펼쳐 읽어 가면서 동시에 반대편 부분을 말아가면서 읽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읽은 앞 부분이나 특정한 부분을 찾고자 할 때에는 책을 펴고 마는 일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자본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장정법이 절첩본(折帖本)입니다. 필사하거나 인출한 책장들을 길게 이어 붙이는 것은 권자본과 같지만, 이어 붙인 종이를 일정한 폭으로 병풍처럼 안과 밖의 방향으로 교차해 가면서 접은 뒤, 맨 앞과 맨 뒤에 두꺼운 종이를 표지를 붙여서 기록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장정한 것이 절첩본입니다. 권자본에 비해 절첩본은 찾고자 하는 면을 쉽게 펼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접힌 부분이 쉽게 닳아 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절첩본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호접장본(蝴蝶裝本)입니다. 호접장본은 인쇄된 각 장을 그 장의 판심에서 인쇄 면이 안으로 오도록 접어서 순서대로 쌓은 뒤, 접은 바깥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이는 방식의 장정법으로 만든 책입니다. 완성된 책을 들어 보면 접혀 있는 각 장의 모습이 나비와 같다고 해서 호접장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호접장본은 인쇄된 면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완성된 책을 펼치면 인쇄된 면 다음에 공백인 반

대 면이 두 면씩 순차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오래 되면 책등에 붙인 부분이 떨어지거나 얇은 책장이 쉽게 찢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호접장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것이 포배장본(包背裝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배장본이란, 호접장본과는 반대로 인쇄된 면이 밖으로 오도록 판심에서 접어서 겹겹이 쌓은 뒤 접힌 판심의 반대 쪽에 구멍을 뚫어 종이끈 등으로 철한 다음, 한 장의 표지로 책의 앞, 등, 뒤 전체를 덮어 붙여서 싸는 장정 방식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장정 방식에 의한 문제들은 해결이 됐지만, 곁에 붙인 표지가 쉽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지와 안의 인쇄된 장들을 보다 공고하게 합철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장정 방식이 선장본(線裝本)입니다. 선장본은, 인쇄 면이 밖으로 오도록 판심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겹이 쌓은 뒤 판심 반대 쪽을 종이끈 등으로 철한 점은 포배장본과 같습니다. 다만 그 앞과 뒤 각각에 두겹게 만든 종이로 만든 표지를 대고, 인쇄되어 철한 내용과 함께 구멍을 뚫은 뒤 실로 묶어서 표지와 안의 인쇄물을 단단히 고정시켰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실은 베실이나 비단실 등을 꼬아서 튼튼하게 한 뒤 염색해서 사용했습니다. 선장본은 동아시아 옛 책들 가운데 가장 완성된 형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간행 횟수 및 시기에 따른 분류

간본의 경우, 한번 간행한 책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책은 여러 번 간행될 수 있지요. 이때 목판본의 경우에는, 처음에 책을 찍어 냈던 책판이 보존되어 있을 경우라면 그 책판을 이용해서 다시 찍어 낼 수 있지만, 책판이 손상되었거나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책판을 만들어서 간행해야 합니다. 활자본의 경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판을 털어 내기 때문에 책판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활자본으로 간행한 책의 경우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간행하고자 한다면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다시 간행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간본의 간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경우, 처음 간행한 책과 나중에 간행한 책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초간본 또는 원간본과 중간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초간본이라고도 하고 원간본이라고도 하는 책은, 여러 차례 간행된 책 중에서 맨 처음에 간행한 책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중간본은 전에 이미 간행한 책을 나중에 책판을 새로 만들어 또 간행해 낸 책을 가리킵니다. 중간본의 경우 초간본과 같은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책의 이름도 초간본과 같은 이름으로 간행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만, 초간본과 같은 내용이라도 중간본의 책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초간본의 이름은 《번역박통사》인데, 똑같은 내용을 160년 뒤에 간행한 중간본의 이름이 《박통사언해》로 달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인 한문으로 된 책을 여러 차례 중간할 때는 사정이 다르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가 반영된 문자로 간행된 책을 여러 차례 중간했을 경우, 중간본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초간본이 간행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중간본을 만들 때, 원고부터 새로 작성해서 만들었다면 중간 당시의 언어 사실이 중간본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중간본을 초간본 비교해 봄으로써 그 시간 동안의 언어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본을 만들 때 비록 책판은 사라졌더라도 초간본은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중간본을 만들 때 초간본을 참고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서 중간본에 중간 당시의 언어 사실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중간본을 만들면서 그때까지 전해진 초간본의 선장을 풀어서 낱장으로 해체한 뒤, 이 낱장들을 판목에 거꾸로 붙여

서 초간본과 똑같이 새겨 중간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본을 복각본(覆刻本) 또는 번각본(飜刻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459년(세조 5)에 간행한 《월인석보》 초간본을 저본으로 해서 1568년(선조 1) 풍기 희방사에서 간행한 복각본이 유명합니다. 또한 1569년(선조 2) 충청도 한산에서 《월인석보》 초간본을 복각한 책판이 현재 공주 갑사에 소장되어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각본 또는 번각본은, 초간본에 비해 한참 뒤에 만들어졌음에도 초간본을 복사한 것처럼 만들면서도 책의 간행 기록만은 초간본을 복사하지 않고 중간한 당시의 기록을 새기기 때문에, 이런 복각본만 보면 초간본보다 한참 뒤의 시간에도 초간본과 똑같은 언어 사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만일 언어 변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 중간본이 복각본인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간하면서 아예 초간본을 참고하지 않고 원고 작성부터 완전히 새롭게 중간본을 만들거나, 초간본에 존재했던 잘못을 바로잡아서 간행하거나, 초간본에 누락되어 있던 내용을 더하거나 해서 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중간본은 초간본과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본은 단순히 중간본이라고 하기보다 개간본(改刊本)이라고 해서 다른 중간본들과 구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초간본과 중간본과 관련해서, 실제 한국에서 간행된 옛 한글책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간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글 문헌의 중간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중간본은 《두시언해》 중간본입니다. 《두시언해》 초간본은 1481년(성종 12)에 을해자와 한글 활자로 간행되었는데, 약 150년 뒤인 1632년(인조 10)에 경상도에서 《중간두시언해》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중간두시언해》는 초간본 《두시언해》에서 △을 일률적으로 ○으로 바꾸고, 방점을 삭제했는가 하면 이 시기 경상 방언에서 나타났던 ㄷ→ㅈ 구개음화가 일부 반영되기도 하는 등 중간할 당시의 언어 사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몇 가지 사실들 외에는 전반적으로 초간본을 참고해서 중간본을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옛 한글책 가운데 중간본으로 유명한 또 다른 책은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대부터 한문본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언해하여 간행하고자 시도했으나 실제 간행된 초간본은 1481년(성종 12)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언해의 원고가 세종 대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성종 대에 초간본이 나왔음에도, 세종 대의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ㄴ 등이 《삼강행실도》 초간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유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후 수 차례 중간되어 현재 많은 중간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책의 내용은, 1797년(정조 21)에 이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고 수정해서 《오륜행실도》를 만들었으므로, 그 책에도 《삼강행실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간행과 관련해서 유명한 또 다른 한글 문헌은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입니다. 《번역소학》은 1518년(중종 13)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불과 70년 뒤인 1588년(선조 21)에 중간본이 역시 활자본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중간본이 나온 이유는, 《번역소학》이 원문을 의역한 부분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역으로 인해 원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인 셈이지요. 그래서 직역을 위주로 한 중간본 《소학언해》가 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책은 모두 송나라의 유자징이 편찬한 《소학》을 언해한 책이기 때문에, 《소학언해》를 《번역소학》의 중간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앞서 나온 《번역소학》은 10권 10책인 데 비해 《소학언해》는 6권 4책으로 권

수가 달라서, 다른 초간본과 중간본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두 책을 간행할 때 저본으로 했던 소학의 주해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번역소학》은 10권의 《소학집성》을 저본으로 한 데 비해, 《소학언해》는 6권의 《소학집설》을 저본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권(調卷)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내용은 모두 소학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초간본과 중간본에서 초간본에 ‘번역’이라는 관칭(冠稱)이 덧붙은 또 다른 예가 《번역박통사》와 《박통사언해》,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입니다. 이들 각각은 초간본과 중간본에 해당하는데, 초간본에는 언해 대상인 책의 이름 앞에 ‘번역’이라는 관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고 중간본에는 책 이름 뒤에 ‘언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번역박통사》는 1517년(중종 12) 이전에 최세진이 중국어 회화 학습서인 《박통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자를 을해자로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입니다. 당시 중국어 역관의 교육에 필요했던 교재였던 만큼 이는 1677년(숙종 3)에 외국어 번역 및 역관 교육을 담당하던 사역원에서 중간본 《박통사언해》를 목판본으로 간행했습니다. 이 《박통사언해》를 이후 1765년(영조 41)에 당시의 중국어를 반영해서 수정한 또 다른 중간본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박통사신석언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박통사》의 언해서들이 약간 고급 수준의 중국어 학습서라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를 한국어로 언해한 중국어 회화 학습서도 있었습니다. 《번역노걸대》의 원간본은 전해지지 않지만, 현재 전하고 있는 원간본을 복각한 책을 볼 때 그 체제가 1517년(중종 12) 이전에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박통사》와 유사하므로 《번역박통사》와 유사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간본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먼저 1670년(현종 11)에 무신자를 이용한 활자본 《노걸대언해》가 중간되었습니다. 이후 1763년(영조 39)에 교서관에서 새로운 한어본 《노걸대신석》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를 언해해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노걸대신석언해》, 1795년(정조 19)에 사역원에서 《중간노걸대》를 간행하면서 이를 언해해서 함께 목판본으로 간행한 《중간노걸대언해》 등이 더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초간본과 중간본의 예로는 《내훈》과 《어제내훈》을 들 수 있습니다. 《내훈》은 인수 대비로 잘 알려진 소혜왕후가 1475년(성종6)에 중국의 교화서인 《소학》, 《열녀전》, 《여교》, 《명심보감》 등의 4책에서 부녀자들의 교육과 계몽에 쓸모있는 내용을 뽑아 간행한 책입니다. 이 책은 1573년(선조6) 을해자로 중간되었는가 하면, 1611년(광해군2)에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로도 중간된 바 있으며, 1656년(효종7)에 목판본으로 중간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736년(영조 13)에 영조가 언해를 손질하여 무신자로 또 다른 중간본 《어제내훈》을 간행했습니다. 책 이름에 ‘어제’라는 관칭이 더해진 것은 이것이 당시 재위해 있던 영조가 직접 간행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초간본 또는 원간본과 중간본은 간행의 횟수나 시기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간행의 횟수와 관련된 또 다른 책의 유형으로 초쇄본과 후쇄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책에 대해서 초쇄본이나 후쇄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목판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쇄본은, 초간본이든 중간본이든 책의 간행을 위해서 만든 동일한 책판으로 가장 먼저 찍어 간행한 책을 말합니다. 이 책판을 보관했다가 시일이 경과한 뒤에 바로 그 책판으로 다시 찍어서 간행한 책이 후쇄본입니다. 활자본의 경우는, 활자를 심어서 책판을 만든 뒤 다른 책을 만들기 위해 그 책판을 해체하기 때문에 한 책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초쇄본이나 후쇄본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목판본은 책판을 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책판만 있으면 이후 시점에 다시 인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렇다 보니 후쇄본은 오랜 시간 보관했던 책판으로 인출하는 것인 만큼 책판이 마르면서 인쇄면이 작아지기도 하고, 글자가 깨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초쇄본에 비해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쇄본과 후쇄본은 같은 판으로 인출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후쇄본을 인출할 때, 초쇄본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잘못을 수정해서 후쇄본을 찍기도 하기 때문에 초쇄본과 후쇄본이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몽산법어언해》는 같은 판으로 찍은 책들인데 초쇄본에 있던 번역 기록이 후쇄본에서는 삭제되어 빈 행으로 나타나 두 책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쇄본과 후쇄본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서지적 사실 자체를 다룰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책의 대부분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 사실만을 다룰 때는 초쇄본이나 후쇄본이나 하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중 한국의 언어생활의 결과인, 옛 한글 문헌들에서 보이는 특징적 사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4. 한국 한글 간행본의 형태와 특징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역사에서, 특히 조선 시대에는 수많은 활자들을 주조해서 사용할 만큼 많은 책들을 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행한 책들에서는 그 형태 등에서 다른 동아시아 나라의 책들과 차이가 있는 특징적인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우선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옛 책들 가운데, 가장 발전한 단계의 책인 선장본의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의 옛 책들은 일정한 공간 안에 원고 내용을 담기 위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활자본의 경우는 활자를 심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목판본에서도 글자를 새길 기준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테두리를 광곽(匡郭)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곽은 글자들을 세로로 배열할 수 있도록 행이 경계선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을 구분하기 위한 선을 계선(界線)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계선으로 분리된 각각의 행 안에는, 본문은 큰 글자 한 글자가 한 행으로 들어가고, 본문에 대한 주석 등의 내용은 작은 글자가 두 행으로 제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목판본의 경우는 계선이 그려진 종이를 먼저 인출해서 그 위에 원고를 작성하게 하여 판각할 때 계선을 같이 새기고, 활자본의 경우에는 금속으로 된 글자판에 활자를 심기에 앞서서 대나무나 철판으로 끼워서 계선을 표시합니다. 단, 모든 옛 책들에서 계선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어서, 계선이 없이 간행된 책도 발견됩니다.

이런 계선에 의해서 한 장을 접었을 때 한 면이 몇 개의 행으로 나누어지는지, 또 그 한 행 안에 몇 개의 글자가 채워지는지는 책마다 차이를 보여서 책의 형태적 특징을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이를 책의 행격(行格)이라고 부릅니다. 동아시아 옛 책에 대해서 ‘7행 16자’와 같이 형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한 장을 접어 책으로 철했을 때 한 면이 7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행에 16자가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책판을 만들 때는 나중에 책장들을 인출한 다음 내용이 밖으로 오도록 접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책판의 중심 부분 한 행을 만들고 여기에 나중에 접을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물고기 꼬리처럼 생긴 표식을 넣거나 새깁니다. 판의 중앙에 있는 이 행을 판심(版心)이라고 부르고, 접을 수 있는 기준을 표시하는 물고기 꼬리 모양의 표식을 어미(魚尾)라고 부릅니다. 책장을 인출한 다음 판심의 정 중앙인 중봉(中縫)을 따라서 장을 반으로 접게 되는데, 그 중봉은 대부

분 어미의 꺾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판심에는 간략한 책의 이름과 해당 장이 책의 몇 번째 장인지 장차(張次)를 표시해서 나중에 책을 묶을 때나 책을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심의 어미 부분 위와 아래에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검게 인쇄될 수도 있고 아무 표시 없이 인쇄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흑구(黑口)라고 하고 후자를 백구(白口)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옛 한글 문헌들의 경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책들은 흑구인 책들이 많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백구가 대부분입니다.

동아시아의 옛 책들은 그 책의 이름이 여러 곳에 기록됩니다. 우선 책을 엮을 때 맨 첫 번째 장의 첫 행에 책의 이름, 즉 서명(書名)이 들어가는데, 이를 권두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권두 서명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서명으로 제시되고 책의 내용과 함께 간행되어 변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권두 서명이 옛 책의 서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서명이 됩니다. 또한 책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행에도 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권말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권두 서명과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심에도 원 책의 이름을 간략화해서 제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판심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겉의 표지에 직접 붓으로 서명을 기입하거나, 다른 종이에 서명을 기입해서 오려 붙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표지 서명 또는 표제(表題)라고 부릅니다.

물론, 한국에서 간행된 옛 문헌들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동아시아 옛 책의 형태적 특징들이 모두 발견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간행된 문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옛 책 중 가장 발전된 책의 형태가 선장본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인출한 책들을 종이끈으로 묶고 그 앞과 뒤에 두꺼운 종이를 표지를 붙인 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함께 묶은 것이 선장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때 몇 개의 구멍을 뚫어서 묶느냐 하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구멍을 4개, 6개, 8개를 뚫어서 묶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4개나 6개의 구멍을 뚫어서 선으로 묶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5개의 구멍을 뚫어서 묶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이 4침으로 묶여 있는 한글 문헌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무슨 까닭일까요? 이는 후대에 표지를 개장하면서 몇 개의 구멍을 뚫어 선장하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 개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들은 표지를 들춰 보면 종이끝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원래 5개의 구멍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아시아 3국 가운데 특히 한국에서 간행되어 현재 전해지는 책들은 사용된 종이나 인쇄 상태, 오자나 탈자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간행된 책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책들이 많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옛 책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의 간행본들은 주로 중앙의 주자소나 교서관과 같은 관청에서 간행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방의 관청에서 주도하여 책을 간행한 경우나 지방의 사찰 등에서 간행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책들은 중앙의 관청에서 간행되었고, 《이륜행실도》와 같이, 지방 관아에서 간행한 책 가운데 의미 있다고 생각한 책들은 중앙 관청에서 다시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청에서 간행한 책을 관판본이라고 하는데, 관판본의 간행 과정은 아주 엄격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우선, 1493년(성종 24)에 간행된 《대전속록(大典續錄)》의 권3 <예전(禮典)>의 ‘장려(獎勵)’ 조항에는, 교서관에서 책을 인출할 때, “매 1권에 3자 이상의 잘못이 있으면 인출 책임자인 감인관을 논죄하고, 원고나 인출한 결과를 읽는 창준인과 활자 보관인인 수장, 조판한 사람인

군자장, 책의 인출을 맡은 인출장은 모두 근무 일수를 깎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권에서 3자 이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간행 책임자는 벌을 받고, 각각의 장인들은 봉급이 삭감된다는 규정이니, 매우 엄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간행할 때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던 만큼 관청에서 간행하는 책들은 상대적으로 잘못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543년(중종 38)에 간행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의 권3 <예전>의 ‘잡령(雜令)’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책의 간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1권에 1자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태형 30대를 치고, 1자가 더해질 때마다 10대씩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출할 때 한 장에서 먹의 농담이 차이가 나도 1자마다 위와 같은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5글자 이상의 잘못이 있으면 이런 형벌에 더해 관원은 파직시키고, 장인들도 형벌은 물론 봉급을 삭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책을 간행했기 때문에 한국의 관판본들은 그 상태가 매우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규정의 존재 자체가 책의 간행에 임하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간행된 옛 책 가운데에는, 책의 표지를 염색함은 물론 여기에 다양한 문양(文樣)을 새겨서 표지를 아름답게 꾸며서 간행된 책이 많습니다. 책을 간행하면서 미적인 가치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양도 몇 가지로 제한되지 않고 동식물, 기하, 자연 현상, 문자 등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표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관판본은 물론 사간본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책의 간행이 주로 관청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경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 왕실이나 조정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들 가운데 특히 임금의 볼 어람용은 문양을 넣은 비단을 쓴 표지를 붙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볼 때, 표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관판본에서 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리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언어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책에 대해서,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책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옛 책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런 동아시아 각국의 책들과 대비되는 한국의 옛 간행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동아시아에서는 일정한 분량으로 묶인 책이 나타나기 전에 갑골문, 금석문과 같이 문자를 동물 뼈, 청동기나 철기, 돌 등에 문자를 새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책의 전단계라고 할 만합니다.

(2) 이후 기록할 내용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일정한 분량으로 묶인 책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나타난 책은 죽간과 목독 또는 목간이었습니다. 대나무나 나무를 쪼갠 조각에 글을 쓰고 끈으로 묶은 간독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간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단에 글을 쓴 검백이 출현하기도 했지만, 비용 문제로 널리 쓰이지 못했습니다. 후한의 채륜에 의해 글을 쓸 수 있는 종이가 만들어진 이후 책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값싸고 관리가 용이한 종이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목판본과 활자본 등의 간본이었습니다.

(3) 이렇게 발전해 온 동아시아의 책들은, 우선 간행 여부에 따라 필사본과 간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필사본은 대량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기 어려운 필사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간본인데, 간본은 목판을 이용해서 간행하느냐, 활자를 이용해서 간행하느냐 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나뉘어집니다.

(4) 목판본은 판목을 마련하고, 규격에 맞게 작성한 원고를 판목에 뒤집어 붙인 뒤, 글자가 드러나도록 새겨서 책판을 만듭니다. 그 책판에 먹을 칠하고 종이를 덮어 인출한 책장들을 순서대로 모아서 엮은 것이 목판본입니다. 목판본으로 이전의 책들이 지닌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기는 했지만, 목판본의 간행에 나무, 인력,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5) 목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글자들을 쓴 글자본대로 활자로 만들어 두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활자를 선택해서 판을 짠 뒤 그 판으로 책을 인출해 묶는 활자본이 나타났습니다. 이 활자는 나무나 진흙, 또는 청동이나 납 등의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금속활자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활자는 개인이 제작하고 소유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주자소, 교서관 등에서 활자를 제작하고 관리하면서 책을 간행해 냈습니다. 현재 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1377년에 한국 청주의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로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6) 동아시아의 옛 책들은 간행의 횟수나 시기 등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책판을 만들어서 간행한 초간본 또는 원간본과 이보다 뒤에 필요에 의해서 같은 책을 다시 간행한 중간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본은 초간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많고 초간본의 내용을 참고해서 간행되어 초간본과 유사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초간본이 전해지지 않아 처음부터 새로 중간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간본을 만들면서 초간본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내용을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중간본은 개간본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반면에 중간본을 만들 때, 초간본 책을 해책해서 그 낱장을 판목에 뒤집어 붙여서 복각본으로 중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뒷 시기에 간행된 중간본임에도 초간본과 동일해집니다.

(7) 한국의 옛 한글 책 가운데 유명한 초간본과 중간본의 예를 들어 보면, 《두시언해》와 《중간두시언해》, 《삼강행실도》 원간본과 중간본 및 《오륜행실도》,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번역박총사》와 《박통사언해》,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내훈》과 《어제내훈》 등이 있습니다.

(8) 초간본이든 중간본이든 책판을 만든 뒤 맨 처음 인출해 낸 책을 초쇄본이라고 하고, 시간이 흐른 뒤 같은 판으로 다시 인출한 책을 후쇄본이라고 합니다. 초쇄본과 후쇄본의 구별은 책판이 전해지는 목판본에서 문제가 되는데, 서지적 분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구별은 크게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9) 한국의 옛 책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간행된 옛 책의 형태 특징이 모두 발견되면서도, 한국의 책만이 보이는 특징적 사실도 발견됩니다. 우선 표지와 인출된 책 내용을 5개의 구멍을 뚫어 선장한다는 사실이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주로 관청에서 책을 간행하면서 매우 엄격한 규정에 의해 관리했기 때문에 한국의 책은 중국이나 일본의 책들보다 인출된 책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책에는 표지에 다양한 문양을 넣어 미적 가치를 추구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의 책의 역사와 유형을 살펴본 이번 시간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대나무나 나무를 쪼갠 조각에 글을 쓰고 끈으로 묶은 간독은 매우 가벼워 보관이 편리했다. (O/X)

정답: X

2. 역사적으로 필사본이 간본보다 먼저 등장한다. (O/X)

정답: O

3. 한자의 ‘冊’ 자는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상형한 글자이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활자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날개의 활자 일부만 있으면 인쇄가 가능했으므로 개인도 소유할 수 있었다.
- ② 조선 시대에는 중앙 관청에서 금속활자보다 목활자를 선호했다.
- ③ 중앙에서 활자본으로 만든 책을 지방에 배포한 뒤, 지방에서 그 책을 목판본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정답: ③

2. 다음 중 목판본의 제작 과정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잘 마른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판목을 만든다.
- ② 책으로 만들 원고를 종이에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필사한다.
- ③ 판각 과정에서 책판의 한쪽 면만을 사용한다.

정답: ③

3. 다음 중 목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목간은 대나무를 세로로 얇게 조각을 내서 엮은 것이다.
- ② 목간은 물품의 발송 사실을 기록한 하찰로도 쓰였다.
- ③ 금석문에 비해서 더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책판 양쪽에 나무를 남겨서 다른 나무에 끼워 넣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책판 양쪽에 더 끼워진 나무를 ○○○라고 한다.

정답: 마구리

2. 표지와 안의 인쇄된 장들을 보다 공고하게 합철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장정 방식을 ○○○이라 한다.

정답: 선장본

3. 청동기와 철기, 돌에 새겨진 글을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본격적인 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금석문

나. 토의 (30분)

1. 동아시아 책의 형태를 역사적인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특징을 쓴 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목판과 활자를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 보고 활자가 더 나중의 시기에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목간, 종이 외에 세계 각지에서 글을 쓰는 데 사용해 온 재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특징을 써 봅시다.

■ 참고자료

금속활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장정([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죽간목독([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무구정광대다라니경([문화재청 보기](#))

김원룡(1954), 『한국고활자개요』, 을유문화사.

천혜봉(1997), 『한국서지학』, 민음사.

<4차시> 한글 창제 이전 한국의 문자 생활 I : 사고 표현을 위한 문자 생활

■ 학습목표

1. 동아시아의 민족들의 언어와 문자 생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2. 한글 창제 이전의 한국어 표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3.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차자 표기법(借字表記法)의 등장 배경
3. 차자 표기법의 원리
4. 한국어 단어의 차자 표기: 고유명사 표기
5. 한국어 문장의 부분적 차자 표기: 이두
6. 한국어 문장의 전면적 차자 표기: 향찰
7.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한글이 만들어진 이전에 한국어를 표기했던 방법인 차자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것이 1443년(세종 25년)이고 1446년(세종 28년)에 반포되어 1447년부터 한국어를 표기한 한글 문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은 한자와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를 전혀 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유일한 문자인 한자를 빌려서 한글 창제 이전에도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한자가 주변 민족의 문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한국에서도 한자가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한글 창제 이전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했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의 단어와 문장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차자 표기법(借字表記法)의 등장 배경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분포해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민족, 중국 민족, 일본 민족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는 돌궐족,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등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이들 각 민족의 언어는 각각 달랐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이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였고, 한자를 이용해 고대 중국어의 문장 질서를 반영해 적은 한문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문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동아시아에서 중국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입으로는 자민족의 언어로 말하면서도 글을 적기 위해서는 자민족의 언어 질서와 거리가 먼 한자와 한문을 이용해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각 민족의 언어는 중국에서와 같은 한자와 한문의 용법으로는 도저히 표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어와 문어가 서로 다른 언어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배 학자들은 이를 말과 글이 일치된 ‘언문일치’와 상반된 상황이라고 해서 ‘언문이치’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언문괴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고유의 언어로 말하면서도 글로 적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고대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된 한문으로 코드를 전환해서 한국어 문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글을 적어야 했습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생각을 표현하려면 한문의 문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는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유일한 문자인 한자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의 결과 나타난 것이 차자 표기법입니다. ‘차자(借字)’란 한자를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자 표기법은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차자 표기법의 원리

차자 표기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자는 일정한 ‘자형’에 ‘훈’이라고 불리는 의미 부분과 ‘음’이라고 불리는 소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天’자를 보면 바로 이러한 자형의 글자가 ‘하늘’이라는 의미, 즉 훈과 ‘천’이라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地’ 역시 이 자형의 글자가 ‘땅’이라는 훈과 ‘지’라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처음 한자를 배울 때부터 ‘天’은 ‘하늘 천’, ‘地’는 ‘땅 지’와 같이 한자의 훈과 음을 함께 익혔습니다. 다만 한자는 전주의 방법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훈’이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의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자형의 한자가 이렇게 훈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글자에 대해서 훈과 음 가운데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天地’라는 표기에 대해서는 각 한자의 훈과 음 중 어느 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天地’ 두 한자의 음으로 읽어서 ‘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두 한자 모두 훈으로 읽어서 ‘하늘땅’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앞의 ‘天’은 음으로 읽고, 뒤의 ‘地’는 훈으로 읽어서 ‘천땅’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앞의 ‘天’은 훈으로, 뒤의 ‘地’는 음으로 읽어서 ‘하늘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각 한자는 훈과 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天地’라는 표기는 ‘천지’, ‘하늘땅’, ‘천땅’, ‘하늘지’와 같은 다양한 독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한자의 훈을 읽는 것을 ‘훈독(訓讀)’이라고 하고 음을 읽는 것을 ‘음독(音讀)’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에서는 쓰여진 한자를 음으로만 읽는 음독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자의 훈을 읽는 훈독도 쓰였습니다. 이런 훈독은 현재 일본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는 독법입니다.

이렇게 한자의 훈과 음을 이용해서 읽는 방법을 응용해 보면 한국어 고유어를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려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달하다’라는 훈과 ‘달’이라는 음을 가진 한자 ‘達’을 이용해서 한국어 고유어 단어인 ‘달’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한자의 훈은 고려하지 않고 음만을 빌려와서 한국어 단어와 같거나 유사하게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 방법을 한자의 음을 이용한 표기 방법이라고 해서 ‘음차 표기’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月’의 훈이 ‘달’이고 음이 ‘월’이므로 이 한자의 훈을 빌려서 한국어 고유어 ‘달’을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자의 음은 고려하지 않고 훈만을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한 방법으로서 ‘훈차 표기’라고 합니다. 결국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려서 한국어 고유어 단어 ‘달’을 표기하면 ‘達’로 적힐 수도 있고, ‘月’로 적힐 수도 있다는 말이므로, 한국어 고유어를 표기한 문맥의 ‘達’이나 ‘月’은 비록 다른 한자로 적혀 있지만 모두 [달]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의 음을 빌린 음차 표기나 훈을 빌린 훈차 표기의 방법으로 2음절 이상의 한국어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한국어 고유어를 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한자 가운데 ‘那’(어찌 나)자와 ‘無’(없을 무)자 각각의 음만을 빌려서, 즉 음차 표기해서 ‘那無’[나무]로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한자 ‘木’의 훈이 ‘나무’, 음이 ‘목’이므로 이 한자의 훈을 빌려서, 즉 훈차해서 ‘木’으로 한국어 단어 ‘나무’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음차 표기한 ‘那無’, 훈차 표기한 ‘木’이 표기에 사용된 한자는 달라도 모두 ‘나무’라는 한국어 단어를 표기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뭇잎’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차자 표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나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那無’로 적을 수도 있고, ‘木’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단어의 나머지 요소인 ‘잎’ 역시 이 단어와 같거나 유사한 음을 지닌 한자 ‘入’(들 입)의 음을 빌려서 적을 수도 있고, ‘葉’(잎 엽)자의 훈을 빌려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단어 ‘나뭇잎’은, 두 단어 요소 모두를 음차한 ‘那無入’으로 적을 수도 있고 모두 훈차한 ‘木葉’으로 적을 수도 있으며, 앞의 단어는 음차, 뒤의 단어는 훈차한 ‘那無葉’으로 적을 수 있는가 하면, 앞의 단어는 훈차, 뒤의 단어는 음차한 ‘木入’으로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형상으로는 매우 달라 보이는 ‘那無入’, ‘木葉’, ‘那無葉’, ‘木入’ 모두 ‘나뭇잎’이라는 한국어를 표기한 것이니 모두 [나뭇잎]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자를 음차해서 한국어를 적을 때, 한국어의 모든 발음이 한자음에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음이 유사하게 적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해서 한국어를 적는 차자 표기법은 아마도 삼국시대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중 가장 간단한 단어,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이름, 땅 이름, 관직의 명칭 등과 같은 고유명사부터 표기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표기 대상을 문장으로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한국의 차자 표기법이 ‘고유명사 표기, 이두, 향찰, 구결’ 등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 단어나 문장들을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 곧 ‘표현’을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인 ‘고유명사 표기, 이두, 향찰’ 등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4. 한국어 단어의 표기: 고유명사 표기

한국 민족이 중국으로부터 한자와 한문을 받아들여서 사용하던 초기에는 한국어 요소를 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적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점차 한국 민족이 점차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춘 삼국 시대에는 통치와 행정을 위해서 땅 이름과 사람 이름 등을 적어야만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삼국 시대에 각 나라가 고대 국가의 체계를 완전히 갖춘 뒤에 자국의 역사서를 저술하게 되는데, 이들 역사서의 문장은 한문으로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자국의 지명이나 인명 등 고유명사가 어떻게든 표기되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자국어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려서 적는 차자 표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유명사 표기의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厭𪛗 或作異次 或云異處 方音之別也 𪛗頓道觀獨等 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厭𪛗’은 혹은 ‘異次’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異處’라고도 말하는데 방언에 따른 차이이다. ‘𪛗, 頓, 道, 觀’ 등은 모두 글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곧 ‘조사’이다] <삼국유사 권3>” 이는 ‘異次頓’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의 이름에 대한 주석인데, ‘厭𪛗’의 ‘𪛗’은 ‘頓, 道, 觀, 獨’ 등과 유사한 음을 지닌 요소들이므로 ‘厭𪛗’의 ‘厭’은 ‘異次, 異處’와 동일하게 읽히는 대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세기 한국어에서 ‘읏-’이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써 ‘厭’(싫어할 염)의 훈과 같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厭’은 훈차 표기로, ‘異次, 異處’는 음차 표기로 당시의 한국어 *읏- 또는 *이츠- 정도를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𪛗, 頓, 道, 觀, 獨’ 등은 모두 한국어 고유어 인명의 마지막 음절을 음차 표기한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도-, 또는 *두- 정도의 당시의 한국어를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𪛗’의 현재 한자음은 ‘츝’이지만 당시 한자음은 구개음화 이전의 ‘독’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한자나 ‘頓’[돈], ‘獨’[독] 등의 종성은 무시하고 ‘도’ 또는 ‘두’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음차 표기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 “‘𪛗, 頓, 道, 觀’ 등은 모두 글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곧 ‘조사’이다.”라는 기술입니다. 여기의 ‘助辭’는 어휘 형태나 어구 등에 붙는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요소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의미와 무관한 주변적인 요소를 음차할 때는 글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다른 글자들로 적힐 수 있다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厭𪛗’, ‘異次頓’ 등 다양한 표기는 당시의 한국 고유어로 된 사람 이름 *이츠도- 또는 *이츠두- 정도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居柒夫 或云荒宗 <권44>”, 즉 ‘거칠부를 (기록들에서) 황종이라고도 한다.’라는 기록은 당시 한국어에 대한 음차 표기와 훈차 표기에 의한 고유명사 표기법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선 ‘居柒夫’의 ‘居柒’의 음이 ‘거칠’인데, 이것은 ‘荒宗’ 중 ‘荒’의 훈인 ‘거칠’과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서 ‘居柒’은 한자의 음을 빌려서 당시 신라어의 ‘거칠’을 표기한 것이고, ‘荒’은 ‘거칠’을 한자의 훈을 빌려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夫’도 그 음을 빌려서 당시 신라어 ‘부’를 표기했으며, ‘宗’은 이 한자의 훈을 빌려서 그 신라어를 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신라어 ‘거칠부’를 음차 표기한 것이 ‘居柒夫’이고, 훈차 표기한 것이 ‘荒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수적으로는 당시 신라어에 “우두머리, 임금” 등의 의미를 지닌 ‘부’라는 단어가 존재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또 다른 기록인 “赫居世王 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赫居世왕은 대개 신라의 말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삼국유사 권1>”도 유명한 고유명사 표기의 예입니다. ‘박혁거세’로 잘 알려진 인물에 대한

주석인데 ‘赫居世’가 신라의 말로서 ‘弗矩內’라고도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표기는 한 인물의 이름을 적은 것이니까 읽은 결과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표기를 서로 대응시켜 보면, 우선 가운데의 ‘居’(살 거)와 ‘矩’(법도 구)는 그 음이 서로 흡사하므로 이 두 표기가 모두 음차 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赫’(붉을 혁) 자는 ‘弗’(아닐 불)에 대응되고, ‘世’(누리 세) 자는 ‘內’(안 내)에 대응됩니다. 여기에서 ‘赫’의 훈인 ‘불-’과 ‘弗’의 음이 서로 흡사하므로 ‘赫’은 ‘불’에 가까운 당시의 신라어를, 이 한자의 훈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고, ‘弗’은 ‘불’ 정도의 신라어를 이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世’와 ‘內’의 대응만이 남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 둘을 유사하게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신라어의 ‘나리(川理)’에서 어중의 ㄹ이 탈락한 형태가 후대의 ‘내’에 대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에서 어중 ㄹ이 탈락한 ‘뉘’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世’의 당시 훈이 ‘누리’가 아닌 ‘뉘’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훈은 ‘內’의 음과 유사하게 됩니다. 즉 ‘世’는 훈차 표기, ‘內’는 음차 표기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불그누, 불거누, 불거니’ 정도의 한국어를 훈차-음차-훈차한 표기가 ‘赫居世’이고, 모두 음차 표기한 것이 ‘弗矩內’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구려의 고유어 지명을 표기한 것이 “買忽 一云水城”이나 “水谷城縣 一云買旦忽” 등과 같은 《삼국사기》 권37의 기록입니다. 이들은 각각 동일한 땅 이름을 달리 표기한 것을 보인 것이므로, ‘買’와 ‘水’, ‘忽’과 ‘城’이 각각 유사하게 읽히는 대응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복수 표기가 유사하게 읽히기 위해서는 ‘*미홀’ 정도의 고구려어를 음차 표기한 것이 ‘買忽’이고, 이를 훈차 표기한 것이 ‘水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고구려어에서는 “물”을 의미하는 ‘*미’ 정도 단어가 있었고, “성”을 의미하는 ‘*홀’ 정도의 단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훈차 표기인 ‘水谷城’과 음차 표기인 ‘買旦忽’의 대응을 통해서 고구려어에 “골짜기(谷)”를 의미하는 단어 ‘*둔(旦)’이 있었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어에서 고대 이래 골짜기를 의미하는 단어 ‘tani’(たに)와 흡사하여 흥미롭습니다.

이들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려서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적는 표기법은 삼국 시대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고유명사 표기 방법을 일반명사의 표기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한국어 일반명사를 ‘執’(잡을 집) 자의 음을 빌려서 적을 수도 있고, ‘家’(집 가) 자의 훈을 빌려서 표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실제 고유명사 표기에 사용되었던 차자 표기 방법을 한국어의 일반명사까지 확대한 표기가 통일신라 시대의 향찰 표기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는 물론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계속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향약구급방》의 약재 이름에 대한 차자 표기 방법이 조선 시대의 의학서에서도 발견됩니다. 《향약구급방》에 ‘所邑朽斤草’이 보이는데 이는 당시의 ‘*솥서근풀’을 차자 표기한 것입니다. 여기의 ‘所邑’은 현대 한국어 단어 ‘속’의 이전 어형인 ‘솥’을 음차 표기한 것이고, ‘朽斤’은 ‘朽’(썩을 후) 자의 훈과 ‘斤’(날/도끼 근) 자의 음을 빌려서 당시의 활용형 ‘서근’을 표기한 것이며, ‘草’(풀 초)는 이 한자의 훈을 빌려서 ‘풀’을 표기한 것입니다. “속이 썩은 풀”을 표기하기 위해 훈차와 음차 등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약재 이름이 조선 시대 의학서에는 ‘裏朽斤草’로 나타나는데 이전에는 ‘솥’을 ‘所邑’으로 음차 표기했던 데 비해 여기에서는 ‘裏’(속 리)자의 당시 훈 ‘솥’을 이용해 훈차 표기되어 있다는 점만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향약구급방》에는 ‘*달뢰’를 차자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月乙老’도 보이는데, 여기의 ‘月’은 훈을 빌려서 ‘달’을 표기한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음절 말음이 ‘ㄹ’임을 표시해 주는 것이 ‘乙’로서 이를 말음 첨

기자라고 합니다. 뒤의 ‘老’는 ‘뢰’의 음차 표기인데, 이후 조선 시대 의학서에서는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음차 표기해서 ‘賴伊’[뢰]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고유명사를 적기 위해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려서 한국어를 적는 차자 표기 방법은 일반명사의 표기에까지 확대 적용되었음은 물론, 이후 살펴볼 이두, 구결, 향찰 등의 차자 표기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어 문장의 부분적 표기: 이두

한자를 이용해서 한국어의 고유명사와 일반명사까지 표기할 수 있게 되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 문장까지 표기하고자 한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노력의 초기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여기의 사진이 바로 <임신서기석>인데요, 여기에 새겨진 글의 일부를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여기서 ‘임신년’은 552년이나 612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52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적는다. 하늘 앞에 맹세하기를,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忠道를 지니고 과실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일을 잃으면(잇는다면) 하늘의 큰 죄를 받을 것임을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우면 가히 (충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자로 새겨진 글은 얼핏 보면 일반적인 한문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here의 ‘今自’나 ‘忠道執持’, 그리고 ‘過失无誓’와 ‘若此事失’ 등은 일반적인 한문의 질서와 벗어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문에서라면 ‘今自’는 ‘自今’이 되어야, 또 ‘忠道執持’는 목적어-서술어 순서가 아니라 술목 구조인 ‘執持忠道’라야 한문의 질서에 맞습니다. 또한 ‘過失无誓’도 목적어와 서술어의 순서가 바뀐 ‘誓无過失’이어야, 또 ‘若此事失’도 ‘若失此事’여야 일반적인 한문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서기석>에서는 한자로 문장을 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문장은 한문이 아니라, 한국어의 어순인 “지금부터”, “충도를 지니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일을 잇는다면”에 따라 배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영어 표기로 바꾸어 설명하자면,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I a book read.”와 같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한국어 문장을 적고자 했던 초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자들을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배열해 놓는 문장을 정규적인 한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변격 한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고자 하는 초기의 노력의 결과가 변격 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자들을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한 변격 한문에는, 교착어인 한국어에 존재하는 조사나 어미 등 다양한 문법 요소들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국어 문장을 적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격 한문의 사이사이에 한국어의 문법 요소 등을 더 적을 필요가 있는데, 문법 형태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고유명사의 차자 표기에서와 같이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려서 표기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국어 요소를 하나의 한자로 차자해서 고정시킨 뒤에 그 문법 형태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차자를 이용해서 문장을 표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以’(씨 이)의 훈을 빌려서 한국어의 조사 ‘-로(씨)’를 적는 차자로 고정시키고, ‘爲’(훔 위)의 훈을 빌려서 한국어의 동사 ‘-’를 표기하는 차자로 삼는다거나, ‘於’(흐며 며)의 음을 빌려서 한국어의 연결어미 ‘-며’를 표기하는 차자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자하여 고정시킨 한국어 요소들을 ‘이두(吏讀)’라고 부르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후대의 문헌들에서는 ‘이두’가 ‘吏道, 吏吐, 吏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문법 요소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차자를 고정시킨 이두를, 앞의 <임신서기석>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어순으로 배열한 변격 한문의 사이 사이에 넣은 문장을 ‘이두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너를 좋아했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한문으로 적는다면 “我愛汝”가 되겠지만, 이를 한국어 어순으로 표기한 초기의 변격 한문은 “我汝愛”로 적혔을 것인데, 이두문은 이 변격 한문 사이 사이에 한국어 요소를 차자한 이두를 더 넣어서 “我段汝乙愛在如”와 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로 든 이두는 고려 시대 이후에 발견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두문의 “我段”은 ‘나는’을 적은 것으로서 보조사 ‘는’의 이두인 ‘段’(는)이 쓰였고, “汝乙”은 ‘너를’을 적은 것으로 여기에는 목적격조사 ‘을’의 이두인 ‘乙’이 있으며, “愛在如”는 ‘좋아했다’를 적은 것으로서 완료의 문법 요소를 표기하는 이두 ‘在’와 평서형 종결어미 ‘-다’의 이두인 ‘如’가 쓰였습니다. 결국 이두문은 한국어 어순으로 된 변격 한문에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표기한 이두가 더 들어간 형태의 문장 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휘적인 의미는 해당 의미를 지닌 한자를 한국어 어순대로 배열한 변격 한문으로 만들고, 그 사이 사이에 한국어 문법 요소를 이두로 표기해 넣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문은 사고 내용을 한국어 문장으로 표기한 것인데, 이때 표기에 반영된 한국어 요소는 변격 한문에 반영된 한국어 어순과 이두로 표기된 한국어의 문법 요소나 ‘하다’, ‘이다’ 등 일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두문은 한국어의 문장이 부분적으로 차자되어 표기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이두가 다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기하고자 하는 한국어 문법 요소의 의미를 적기 위한 이두로 한자 가운데 그 의미를 지닌 한자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두가 사용된 이두문은 이두문인지 변격 한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591년에 작성된 <경주 남산신성비>가 초기 이두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辛亥年(591년입니다) 2월 20일 남산신성을 지을 때 법대로 지었는데”라는 문장을 적은 것이 이 이두문인데,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문법 형태를 표기한 이두는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南山新城作節’의 ‘節’은 후대에는 ‘디위’로 읽히는 이두로서 “-할 때에”를 표기하는 이두인데, 차자한 한자 ‘節’의 원래 의미에도 “-할 때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如法以’는 그 해석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여기서의 ‘以’는 한국어에서 [도구]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조사 ‘-로(써)’를 표기한 이두인데, 이 의미 역시 한자 ‘以’ 본래의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적는 이두로 그 의미와 통하는 한자를 가져다가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 표기를 이두가 쓰이지 않은 변격 한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이는 ‘節’, ‘以’ 등이 후대에도 이두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때도 이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8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이두자로 원래 한자의 의미와 무관한 한자가 사용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이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이두는 8세기 중엽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먼저 755년에 작성된 <화엄경사경 조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두문 가운데 ‘경을 베길 때에 함께 순정한 신정의, 곤수의, ...’를 표기한 “經 寫 時中 並 淳淨爲內 新淨衣 禪水衣 ...”에서 “爲內”는 ‘흔’이라는 한국어 활용형을 표기한 이두인데 초기 이두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이두자 ‘內’(안 내)의 의미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과 무관함에도 ‘-은’의 차자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二 靑衣童子 灌頂針 捧

𪛗”는 ‘두 청의동자는 관정침을 받들며’를 표기한 이두문인데요, 이때 “捧𪛗”, 즉 ‘받들며’의 ‘𪛗’는 원래 ‘彌’(미륵 미, 오렐 미)의 약자이지만 한국의 이두 표기에서는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게 연결어미 ‘-며’를 표기하는 이두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𪛗’ 자가 ‘ᄃ며’라는 새로운 훈을 지니게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이두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두임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 예문의 마지막에 ‘경을 베꼈다’를 표기한 “經 寫在如”에서 평서형 종결어미를 표기한 이두자로 ‘如’가 쓰였는데 초기 이두 자료에서는 이를 표기하는 이두자로 ‘之’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두자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 冠 天冠等 庄嚴令只者 二 靑衣童子”는 ‘... 관, 천관 등으로 장엄시킨 두 청의동사’를 적은 이두문인데, 여기에서 “庄嚴令只者”, 즉 ‘장엄시킨’의 이두 “令只者”가 주목됩니다. 이는 ‘시킨’을 차자 표기한 이두로서, 한국어 동사 어간 ‘시기-’와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 전체를 차자 표기한 것입니다. 여기의 ‘只’는 앞의 차자를 읽었을 때의 마지막 음을 보여주는 말음 첨기자로서, 앞의 차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일 말음 첨기자가 없다면 앞의 ‘令’을 혼독해야 할지, 음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只’를 붙임으로써 앞의 차자를 읽으면 마지막 음이 ‘기’가 된다는 사실, 곧 ‘令只’는 ‘시기’로 읽는 것임을 표시해 줍니다. 이러한 말음 첨기 표기는 차자 표기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석의 정확성을 높여 준 것으로 8세기 중엽에 이미 이두 표기가 매우 발전했음을 보여 줍니다.

758년에 쓰인 <갈항사 조탑기>도 본격적인 이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탑은 天寶 17년 戊戌年(758년입니다)에 세웠다. 오라비와 자매 3인이 業으로 이루었다.”를 표기한 이두문을 보면, ‘세웠다’가 “立在之”로, ‘이루었다’가 “成在之”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之’는 초기 이두에서부터 평서형 어미 ‘-다’를 표기한 이두인 데 비해, ‘在’는 새롭게 나타난 이두인데 [완료]라는 문법적 의미를 표시합니다. 이 의미는 ‘在’ 자의 원래 의미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한자 원래의 의미와 무관하게 차자하여 이두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8세기 중엽부터 새롭고 다양한 이두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이두가 이때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이두 표기법은 고려 초기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766년에 작성된 <영태2년명 석조비로자나불 조상기>, 856년의 <신라 구흥사종명>, 941년의 <명봉산 자적선사비 음기>(941년), 1031년의 <정두사 오층석탑조성형지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고려 중엽부터는 그 이전의 이두와 다른 이두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이두에서부터 평서형 어미 ‘-다’를 표기해 왔던 이두자 ‘之’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고, 대신 이전과는 달리 평서형 어미로 ‘齊’가 사용된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한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표기해 오던 이두자 ‘賜’(-시-)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점도 고려 중엽 이후의 이두 변화입니다. 이런 이두자의 변화 외에도 이전에는 이두문의 어휘 요소들을 훈으로 읽는 훈독자가 많았지만, 고려 중엽 이후에는 훈독하는 글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도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어휘 요소의 훈독자가 줄어든 것은 한자, 한문의 지속적인 영향이자 한자와 한문에 익숙해지면서 음독만으로도 충분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국 시대 이후의 이두 자료는 대부분 금석문 자료이고, 문서 이두 자료는 8세기 이후, 특히 고려 시대인 11세기 이후에는 이전에 이두문으로 쓰였던 문장들을 정규적인 한문으로 바꾸어 쓰는 일이 있게 되면서 이두가 일상적인 기록에 사용되는 일이 드물어지고, 이두문은 하급 관리들의 문서로 그 쓰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두가 공문 양식에 쓰이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그 이후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이두를 사용한 공문 양식이 정형화하여 이두문이

투식화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두’라는 명칭 자체가 관청의 하급 관리들인 서리(胥吏)들이 사용하는 토(吐), 즉 어휘 의미를 지닌 실사 외의 말이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이두의 주된 사용 계층은 하급 관리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에서 관청이나 민간에서 이두를 사용해 오고 있으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쓴 것이어서 어렵고 막혀 궁색할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를 적는 데는 그 만분의 일도 표현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최만리 등의 갑자 상소문에서 수천 년 동안 관청의 문서 기록과 약속, 계약 등에 이두를 써 오면서 아무 탈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그동안 이두문이 관청의 문서나 민간의 계약서 등에 사용되어 왔음을 증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두는 머릿속의 사고 내용을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전에 한문이나 백화문 등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만들 때에도 이두가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문의 한국어 번역은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원문 문맥 속에 쓰인 한자의 의미를 고려하여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런 번역 과정을 ‘언해’라고 하고 그 결과물을 ‘언해문’이라고 했는데, 언해문은 당연히 한글로 작성되었지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 한글 대신 이두가 사용된 이두문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두로 한문을 번역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395년(태조 4년)에 간행된 《대명률직해》, 1415년(태종 15년)에 간행된 《양잠경험촬요》입니다. 조선 건국 초 법률이 완비되기 전까지 형률로 받아들여 적용했던 ‘대명률’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사와 관련된 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책을 이두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책들의 실제 독자는 백성이 아니라, 당시 실제 문서 작성 등에서 이두를 사용하여 익숙한 하급 관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급 관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두문으로 중국의 책을 번역해서, 하급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법률과 민생과 관련된 사실들을 계도하게 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보는 사진이 바로 《대명률직해》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謀叛’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에서 간행된 《대명률》의 원문은 여기에서 보듯이 “謀背本國潛從他國”입니다. 이 원문을 한국어 어순의 ‘목적어-서술어’ 순서인 “本國-背-他國-潛從-謀”로 풀고, 사이사이에 들어갈 한국어 문법 요소 등을 이두로 적어 번역 문장이 “本國乙 背叛爲遣 彼國乙 潛通謀叛爲行臥乎事 [본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몰래 상통하여 반란을 꾀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인 《양잠경험촬요》의 번역 이두문을 살펴보면 여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원래 한문은 “蠶陽物大惡水 故食而不飲”입니다. 이를 한국어 어순으로 풀고 원문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정보까지 더한 뒤에 한국어 문법 요소 등을 이두로 표기한 번역 이두문이 “蠶段 陽物是乎等用良 水氣乙 厭却 桑葉叱分 喫破爲遣 飲水不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蠶段[누에는] 陽物是乎等用良[양물이므로] 水氣乙[물기를] 厭却[싫어하고] 桑葉叱分[뽕잎만] 喫破爲遣[먹어치우고] 飲水不冬[물을 먹지 않는다]”와 같이 이두문으로 원문의 번역문을 적은 것입니다.

삼국 시대에 형성되고 8세기 중엽 이후 본격화하여 고려 시대 이후 관청의 문서나 민간의 계약 문서 등에서 활발히 쓰이게 된 이두문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19세기 말까지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두문이 완전히 투식화하여 조선 중기의 이두문이나 조선 후기의 이두문은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는 이두와 이두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두를

사용해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이두와 이두문의 학습서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때 널리 이용된 학습서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문》과 《이문대사》,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유서필지》, 18세기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문잡례》 등입니다. 이들 책에는 이두의 독음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해서 그 이전 시기 이두의 독법과 용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두가 이렇게 천 년 이상 명맥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두의 자형이 한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두문의 중요한 의미 부분은 변격 한문으로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만리 등의 갑자 상소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지배층은 이두가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문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문은 한문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배층이 이두와 이두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관청의 문서에서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두문으로 작성된 문서는 한글로 작성된 문서와는 다르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사고 내용을 한국어 문장으로 표기한 또 다른 차자 표기 방법인 향찰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 한국어 문장의 전면적 표기: 향찰

앞서 이두문은 한국어 문장이 부분적으로 차자 표기된 문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휘적인 의미는 한자로 구성된 변격 한문으로 작성되고 그 사이사이에 문법 요소나 일부 단어가 이두로 차자 표기된 것이 이두문인데, 이두문의 변격 한문 부분은 한국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한국어의 고유명사와 같은 단어를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방식을 일반명사까지 확대해서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두문의 변격 한문 부분, 즉 아직 한국어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어휘 의미 부분의 단어들을 모두 한자를 빌려서 적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표기 방법이 가능하다면 한국어 문자의 모든 부분이 차자 표기되어 적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자 표기 방법이 ‘향찰(鄉札)’ 표기법입니다.

향찰 표기법은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 문장의 모든 요소들을 표기했다는 점에서 가장 완성된 차자 표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향찰’이라는 명칭은 1075년 혁련정이 엮은 고려 초의 고승 균여(均如, 923~973)의 일대기인 《균여전(均如傳)》의 권8 <역가현덕분(譯歌現德分)>에 수록된 최행귀(崔行歸)의 서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행귀는 균여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균여의 향가 11수를 한시로 번역했는데 그 한역시와 서문이 <역가현덕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서문에서 최행귀가 ‘중국 한시는 당문(唐文), 즉 한문으로 적는 데 비해 우리의 시는 향찰로 적는다’고 한 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따라서 ‘향찰’의 원래 의미는 우리, 즉 한국의 문장 또는 문서를 의미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신라 향가 14수, 균여의 향가 11수, 예종의 <도이장가> 1수 등 26수의 향가 표기에 사용된 차자 표기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결국 향찰 표기는 이전의 고유명사 표기법을 일반 단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이두 표기 방법을 혼합함으로써 한국어 문장 전체를 차자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현전하는 향가의 향찰 표기를 살펴보면 이전에 변격 한문으로 적었던 어휘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주로 훈차 표기로 적고, 문법적 요소는 음차 표기로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훈주음종’이라고 하여 향찰 표기의 일반적인 표기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통해서 향찰 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시하는 향가의 해독은 1980년에 나온 김완진

선생님의 《향가해독법연구》의 해독을 따른 것입니다.

우선 신라 향가 중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의 1~2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이 바로 <제망매가>의 1~2구입니다.

제1구 “生死路隱”는 ‘생사의 길은’ 또는 ‘죽사릿 길은’ 정도로 해독되는 것으로 ‘生死路’는 ‘生’(날/살 생), ‘死’(죽을 사), ‘路’(길 로)의 훈을 빌려서 ‘죽사릿길’ 또는 ‘생삿길’ 정도의 당시 한국어, 곧 신라어를 표기한 것입니다. 끝의 ‘隱’은, 이 한자 ‘숨을 은’ 가운데 음을 빌려서 당시의 한국어 조사 ‘은’을 표기한 것입니다.

제2구 “此矣有阿米次盼伊遣”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당시 신라어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전체를 차자 표기한 것입니다. “此矣”는 ‘此’(이 차)의 훈을, ‘矣’(어조사 의)의 음을 빌려서 ‘이에’ 정도의 신라어를 표기한 것입니다. ‘有阿米’는 ‘有’(있을 유)의 훈을 빌려서 신라어의 동사 어간 ‘잇-’을 표기한 것이고, ‘阿米’는 모두 각 한자의 음을 빌려서 ‘아메’ 정도의 신라어의 문법 요소의 결합체를 표기한 것입니다. “次盼伊遣”의 해독은 현재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부분인데, 대강의 의미는 ‘머뭇거리고’ 또는 ‘두려워하고’ 정도의 의미를 지닌 신라어를 차자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의 ‘遣’은 한국어의 연결어미 ‘-고’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를 표기한 차자인데, 이 글자가 이두 표기에서도 똑같이 한국어의 연결어미 ‘-고’에 해당하는 요소를 표기하는 이두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제망매가>의 1~2구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는,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두려워하고’ 정도의 의미를 지닌 신라어 문장 모두를 차자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신라의 향가로서, 충담사가 지은 <모죽지랑가>의 1~2구를 보겠습니다.

제1구 “去隱春皆理米”는 ‘간 봄 못 오리매’라는 신라어를 차자 표기한 것입니다. 여기의 “去隱春”은 ‘去’(갈 거)의 훈을 빌려서 동사 ‘가다’의 어간 ‘가-’를 표기하고, ‘隱’(숨을 은) 자의 음을 빌려서 ‘-은’을 표기한 것이며, ‘春’(봄 춘) 자의 훈을 빌려서 ‘봄’을 표기한 것으로서 결국 ‘가다’의 관형사형 ‘간’이 후행하는 ‘春’(봄)을 수식해 주는 신라어 문장을 적은 것입니다. “皆”은 대해서는 한자의 훈을, “理米”에 대해서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모도리매(못 오리매)’를 적은 것으로 ‘지나간 봄은 못 올 것이므로’라는 의미를 지닌 문장을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구의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은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울 이 시름’ 정도의 의미를 지닌 신라어의 문장 ‘모들 기스샤 우를 이 시름’을 차자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의 ‘毛冬’은 ‘모들’이라는 당시의 부정 부사를 각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입니다. ‘居叱沙’의 ‘居叱’은 ‘居’(살 거)의 훈을 빌려서 ‘깃다, 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어간을 표기한 것이고 이때 표기한 어형의 말음 ‘스’를 ‘叱’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입니다. 그 뒤의 ‘沙’(모래 사)는 이 한자의 음을 빌려서 신라어의 연결어미 ‘-샤’를 표기한 것입니다. “哭屋尸”은 ‘哭’(울 곡)의 훈을 빌려서 신라어의 동사 어간 ‘울-’을 표기하고 ‘屋尸’은 모두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울’이라는 어미의 결합체를 차자 표기한 것입니다. ‘以’는 이 한자(씨 이)의 음을 빌려서 신라어의 지시 관형사 ‘이’를 표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憂音’은 ‘憂’(근심 우)의 훈을 빌려서 그 의미와 통하는 ‘시름’이라는 신라어를 표기한 것인데, 뒤의 ‘音’은, 앞서 이두에서도 보았고 이 시구 바로 앞의 ‘居叱’에서도 보았던 말음 첨기자입니다. 곧 여기의 ‘音’은 ‘憂音’의 말음이 ‘ㅁ’으로 읽히는 단어를 표기한 것임을 표시해 준 것으로서 이를 ‘시름’으로 읽는 해독의 타당성을 높여 주는 요소입니다.

앞의 <제망매가>의 향찰 표기를 살펴보면, 여기에 나온 ‘遣’이 이두에서도 똑같은 한국어

요소를 표기하는 이두자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향찰에 사용된 차자와 용법이 이두나 구결 등 다른 차자 표기에서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찰 표기는 다른 차자 표기법 가운데 특히 다음에 살펴볼 석독구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이두나 음독구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차자가 향찰과 석독구결 자료에서만 발견되는가 하면, 향찰과 석독구결에서 동일한 차자가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향찰 표기에 나오는 ‘遣只賜’(고기시)가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그대로 ‘ㄹ ㅅ’(고기시)로 나타나며, 다른 차자 표기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한글 자료에서도 ‘뵘다’에서와 같이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어미 결합체 ‘-읏다’의 표기가 향찰에서 ‘-ㅍㅅ如’(읏다)로 나타나는데,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ㅍㅅㅣ’(읏다)가 발견됩니다. 석독구결은 한자의 약체자를 쓴 것인데 이들 구결자의 원래 한자는 향찰 표기에 나타나는 글자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향찰과 이두, 석독구결 등 각 차자 표기 체계가 서로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 아님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두나 향찰, 또 다음에 살펴볼 구결 등에서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표기하는 차자가 각각 다르기보다는 동일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향찰 자료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향가 14수와 《균여전》에 수록된 균여의 향가 11수, 그리고 《평산신씨고려태사장절공유사》에 수록된 고려 예종의 <도이장가(悼二將歌)> 등 향가 26수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향찰이 향가의 표기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향가의 발전과 함께 그 가사를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나타난 것이 향찰 표기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진성여왕 대인 888년에 간행되었다는 기록만이 전하는 향가집 《삼대목(三代目)》도 향찰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향찰 표기법은 9세기 말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향찰 표기가 한국어 문장의 모든 부분을 차자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차자 표기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가장 발전한 차자 표기 방법인 향찰이 아주 제한된 향가 표기에서만 나타날 뿐 일반적인 문서의 표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다소의 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찰이 신라의 말로 이루어진 향가를 차자해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만큼, 향가 장르가 소멸하면서 자연스레 향찰 표기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모든 요소를 차자해서 적을 수 있는 향찰 표기 방법을 굳이 향가의 표기에만 국한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향찰이 널리 쓰이지 못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에도 향찰로 표기되어 있는 향가 26수에 대한 해독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어려운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향가의 해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향찰 표기법이 가진 본래의 특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향찰로 의미 부분을 표기하고자 할 때, 한국어 어휘 요소를 훈차할지 음차할지는 오로지 글을 적는 서사자(書寫者)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자에서 훈차할지도 서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의 <모죽지랑가>에서 보았던 동사 ‘가다’의 관형사형 ‘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모죽지랑가>에서처럼 ‘去隱’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이를 ‘幹’(줄기 간)이나 ‘干’(방패 간) 등으로 음차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간을 훈차하더라도 ‘去’(갈 거)가 아닌 ‘往’(갈 왕)이나 ‘行’(갈 행), 또는 ‘逝’(갈 서) 등으로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표기 방법으로 ‘간’을 적을지는 오로지 글을 적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표기하는 차자는 이두나 석독구결 등에서도 쓰이던 차자로 고정되기도 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문장의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어휘 요소의 표기는

일정한 규약이 없었습니다. 결국 향찰 표기에서는 같은 한국어 문장이더라도 글을 적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사자의 판단에 따라 한국어 문장을 차자 표기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할지 모르지만 표기된 결과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향찰 표기를 읽어갈 때에는 매번 이 표기가 훈차 표기인지, 음차 표기인지를 판단해 가면서 읽어야 함은 물론, 훈차의 경우 해당 한자의 어떤 의미를 훈차한 것인지도 파악해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곧 읽는 사람은 표기된 결과를 읽을 때 매번 이를 표기를 해독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셈입니다. 오늘날 향가의 해독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당시의 독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사자가 표기해 놓은 문장의 의미를 독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찰 표기는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표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향찰이 지닌 표기법으로서의 성격은 향찰이 일반적인 문서 등에서 널리 쓰이지 못하고 단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의 어휘 요소를 차자 표기하지 않고 변격한문으로 적은 이두가 긴 생명력을 지닌 채 19세기 말까지 쓰였던 사실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7.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의 단어와 문장을 한자를 빌려서 표현했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동안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유일한 문자였습니다.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인 만큼 중국 외의 동아시아 민족들은 입으로는 자민족의 말을 하면서도 글을 쓸 때는 한자를 이용해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언문괴리’ 상황이 존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차자 표기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 차자 표기법은 한자가 지닌 훈과 음 가운데 하나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자의 훈을 빌려서 한국어 요소를 적는 것을 훈차 표기라고 말하고, 한자의 음을 빌려서 한국어 요소를 적는 것을 음차 표기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차자 표기법은 삼국 시대 이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한국에서 행정이나 역사서 편찬 등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사람 이름, 땅이름 등의 고유명사를 문서에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글의 대부분은 한문으로 기록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자국의 지명이나 인명 등 고유명사가 어떻게든 표기되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문 속에 자국어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려서 적는 차자 표기만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한국어 고유명사를 훈차 표기하느냐 음차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기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 결과 동일 인물의 이름이 “厭觸”, “異次頓”, “異次道” 등과 같이 복수로 표기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居柒夫”와 “荒宗” 역시 전자는 당시 신라어를 음차 표기한 것이고 후자는 훈차 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은 이미 삼국 시대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이런 표기 방법을 일반명사까지 확대하여 적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두, 향찰, 구결 등의 차자 표기법에서 한국어 요소를 적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4) 이후 한국어 단어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의 문장도 차자 표기의 방법으로 적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초기의 모습은 <임신서기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격 한문의 어휘 요소들을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한 변격 한문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어 어순만이 반영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어 어순으로 된 변격 한문 사이사이에 조사, 어미 등 한국어의 문법 요소나 ‘하다’, ‘이다’ 등의 단어를 차자 표기하여 고정시킨 이두를 써 넣은 이두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이전보다 정밀하게 표기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두는 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났는데, 고려 시대 이후 관공서의 문서 등으로 그 사용역이 제한되면서 점차 투식화한 문서에 이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두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이지만,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문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이두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가 《대명률직해》, 《양잠경험촬요》입니다. 이두를 사용한 이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층들은 이두를 사용한 이두문이 정통 한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두문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관공서 하급 관리들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계속 사용되어 19세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두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두 학습서를 만들어서 이두와 이두가 쓰인 문서의 양식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 이두문에서 아직 한국어 요소가 반영되어 적히지 않은 변격 한문 부분, 즉 한국어 문장의 어휘 의미 부분도 모두 차자 표기한 방법이 향찰 표기법입니다.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했던 훈차나 음차의 방법을 일반 단어로까지 확대 적용해서, 이두문에서는 아직 표기되지 않았던 한국어 문장의 어휘 의미 부분을 훈차 또는 음차하여 표기하고, 한국어의 문법 요소는 이두나 구결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차자하여 표기한 방법이 ‘향찰’인 것입니다. 실제로 향찰에서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표기하는 차자들은 이두나 석독구결에서도 동일한 차자가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두, 석독구결, 향찰 등의 차자 표기법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 속에서 발전해 온 표기법임을 암시합니다. 결국 향찰은 한국어 문장의 모든 부분을 차자 표기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 표기법으로서 가장 발전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찰은 향가의 표기에만 사용된 현상은 애초에 향찰이 향가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차자 표기법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찰이 향가 표기라는 극히 제한된 사용역에만 사용되고 다른 일반 문서 표기에 확대되지 못한 이유로 향찰 표기 자체가 지닌 표기법으로서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향찰은 어휘 요소를 표기할 때 훈차할지, 음차할지, 또 각각의 경우 어떤 한자로 훈차할지, 음차할지는 오로지 글을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향찰로 쓰여진 글을 읽는 사람은 읽을 때마다 그 표기를 해독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불편한 표기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향찰 표기가 단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던 차자 표기법의 원리,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의 단어와 문장을 표기하던 차자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내용을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국에서는 고대국가의 기틀을 다짐에 따라 차자 표기가 나타났다. (O/X)
정답: O
2. 이두문은 초기부터 관청의 문서나 민간의 계약서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O/X)
정답: X
3. 향가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독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이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이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이두는 어휘 의미 부분도 모두 차자 표기한 방법이다.
② 이두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이다.
③ 이두는 표기법 자체의 한계로 오래 쓰이지 못했다.
정답: ②
2. 다음 중 향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남아 있는 향찰 자료는 《삼국유사》, 《균여전》 등에 수록된 향가 26수뿐이다.
② 향찰이라는 용어는 본래 우리, 즉 한국의 문장 또는 문서를 의미했다.
③ 향찰 표기는 독자적인 차자 표기 방식으로 이두, 구결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③
3. 다음 중 차자 표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차자 표기법은 고유명사의 표기에 먼저 활용되었다.
② 《대명률직해》에서는 향찰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변격 한문이란 한국어 요소를 차자 표기한 문장을 말한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한자의 훈을 빌려서 한국어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것을 ○○,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라 한다.
정답: 훈차, 음차
2. 구어와 문어가 서로 다른 상황을 '○○○○', 혹은 '○○○○'라 한다.
정답: 언문괴리, 언문이치
3. 최만리 등의 ○○ ○○○에서 수천 년 동안 관청의 문서 기록과 약속, 계약 등에 이두를 써 오면서 아무 탈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답: 갑자 상소문

나. 토의 (30분)

1. 향찰과 이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2. 이두의 발달 양상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써 봅시다.

다. 과제 (60분)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차자 표기된 여러 지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명을 5개 골라 어떻게 하여 그러한 표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찾아서 써 봅시다.

■ **참고자료**

이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향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대명률직해([한국사데이터베이스 보기](#))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借字表記法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5차시> 한글 창제 이전 한국의 문자 생활 II: 한문 이해를 위한 문자 생활

■ 학습목표

1. 한국의 한문 수용 과정과 관련하여 구결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의 차이와 그 양상에 관하여 습득한다.
3. 구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4. 차자표기법 체계와 구결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 강의 목차

1. 한국의 한문 수용과 구결(口訣)
2. 음독(音讀) 구결
3. 석독(釋讀) 구결
4. 구결의 변화 과정
5. 차자 표기법 체계와 구결
6.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한국의 한문 수용과 구결(口訣)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이용해 자국어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생활을 영위했던 만큼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문화적 수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한동안 동아시아의 문화적 수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수준 높은 문화적 성취물들이 기록된 한문은 동아시아의 제민족은 물론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선진적인 문화적 성취물은 주로 한문 불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신라의 자장, 통일신라의 의상 등이 당으로부터 들여온 불경들은 당시 불교 사상의 전파 과정에서 널리 읽혀졌음은 물론일 것입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원효의 《화엄경소》, 《대승기신론소》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주석서의 편찬은 그 당시 한문 불경에 대한 이해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언해 주기도 합니다. 불경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이미 유교 경전, 도교 경전 등도 한국에서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논어》를 읽었다는 사실을 《논어》 구절을 적은 백제 시대인 6세기 말 목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 권24 <백제 본기 제2>의 근구수왕 즉위년의 기사에서, 근구수왕이 태자였던 시절에 고구려군을 추격해 수곡성(水谷城)까지 이르렀을 때, 막고해 장군

이 태자를 설득하면서 했다는 “일찍이 듣건대 도가의 말에,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將軍莫古解諫曰 普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라는 말은 《노자》 제44장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4세기 후반 삼국시대에 이미 《노자》가 전래되어 읽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유교 경전이 널리 읽혔다는 사실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설충은 명민해서 나면서부터 도와 학문을 알았고 우리말로써 9경을 읽었다.(聰性明銳 生知道待 以方言讀九經)” 라는 《삼국사기》 권46의 기록이나 “설충은 나면서부터 명민하여 경서와 역사서에 두루 통달하니 신라 10현 중 한 분이다. 우리말로 중국과 외이의 각 지방 풍속과 물명에 통달하고 6경 문학을 풀어 해석했다.(聰生而睿敏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華東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삼국유사 4>” 라는 《삼국유사》 권4의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과거제를 시행한 광종과 유학을 숭상한 성종 등으로 인해 유교 경전이 보다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읽힌 불경이나 유교 경전 등은 모두 한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 문어로서 한국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적의 내용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한문의 내용을 한국어 질서로 이해했을까요? 이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시사해 주는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 태종께서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5경에 토(吐)를 【무릇 독서할 때 우리말로 구절을 읽는 것을 항간에서 ‘토’ 라고 한다.】 달라고 했는데, 권근이 사양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마침내 시경, 서경, 역경에 토를 달았으나 오직 예기와 4서에는 토가 없다. 나는 후학들이 혹시 본래의 뜻을 모른 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까 염려한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어찌 유익하지 않겠는가?” 라는 《세종실록》의 세종 10년(1428년) 윤4월 18일조의 기사에 실린 세종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 원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 를 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토’ 가 무엇인지도 주석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한문 원문을 읽을 때 우리말로 원문의 구절을 끊어 읽는 것이 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보는 《중종실록》의 중종 24년(1529년) 5월 25일의 기사를 통해서도 한국에서 한문 문헌을 읽을 때 오래 전부터 ‘구결’ 을 달아서 읽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 중 대사간 어득강(魚得江)이 “또 중국에서는 모든 경, 전, 서, 사에 구결이 없고 어구를 끊어야 할 곳에 점권(點圈)만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구결을 다니, 지극히 보잘것없습니다. 지금 경연에서 진강할 때에도 구구절절 모두 구결을 달아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하니 이는 안 될 일입니다. … 또 과거 시험의 강경(講經) 때 구결 하나만 틀려도 시험관이 불합격을 주니 이는 더욱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영사(領事) 장순손(張順孫)이 “만일 구결을 붙이지 않으면 문리가 통해지지 않고, 배운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 이런 풍습은 오래된 것으로 지금은 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동지사(同知事) 조계상(曹繼商)도 “중국 사람들은 언어가 모두 문자여서 구결을 붙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득이 구결을 붙인 다음에야 문리가 통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습관이 되었으므로 지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장순손과 조계상의 말을 통해서, 우선 한국에서는 한문 서적을 읽을 때 구결을 달아야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경연 자리에서도 경전에 구결을 달

아서 임금계 진강했으며, 과거 시험의 강경 때에도 정확하게 구결을 달아 읽는지를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인들이 한문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구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이들 기사에서 세종대의 우의정 맹사성은 구결이 달려 있으면 힘써 연구하지 않을 까를 우려하고 있고, 중종대의 대사간 어득강은 중국에서와 같이 ‘점권(點圈)’, 즉 구두점만을 찍으면 될 것을 구결을 달아 구차하다고 하여 구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사실이 눈에 뜨입니다. 그러나 맹사성의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은 한문 원문의 해석 방향 등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 구결을 달아주면 해석의 방향과 열개를 가르쳐 주는 셈이어서 스스로 힘써 연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사성의 말은, 한문 원문에 구결이 달려 있으면 원문의 해석이 쉬워진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어득강의 경우는 구결을 다는 일을 구차한 일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이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구결 방법의 발달 방향과도 통하고, 11세기 이후 한국어 요소가 포함된 글을 낮게 평가하고 정통 한문만을 높게 여기는 인식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 시대 이후 점차 정통 한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구사 능력이 향상되면서 나온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중종대의 최고 문식층인 지배층에서는 정통 한문만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었음은 분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실록》과 《중종실록》에서 각각 ‘토’와 ‘구결’이라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둘은 한문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한문의 구절을 끊어 익도록 하는 요소로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토’와 ‘구결’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한문에 구결을 달아 읽는 일이 오래된 일이라는 내용을 살펴본 바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어의 질서와 다른 한문의 내용을 수용하는 이른 시기부터 있어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한문은 유교 경전과 관련된 일이지만, 그 이전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불경을 한국어로 수용할 때에도 구결이 달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불교 서적이든 유학 서적이든 한문으로 된 문헌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구결을 달아 읽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했지만, 구결은 이미 기록된 한문을 한국어로 해석해서 읽을 때, 전후의 문법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끼워 넣는 한국어 요소를 말합니다. 이런 구결을 통해서 한문 원문의 구절이 분절되고 각 분절이 한국어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한자어 ‘구결(口訣)’은 “스승이 직접 입으로 비결을 전한다” 또는 “스승이 직접 입으로 전해 주는 비결” 정도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 ‘구수전결(口授傳訣)’의 약자로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차자 표기법의 하나로서의 구결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차자 표기법의 하나로서 한문 원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구결’은, 한국어 고유어 ‘입겅’, ‘입겅’ 등으로도 불렸는데, ‘입겅, 입겅’은, 현대 한국어의 ‘(글을/시를) 읊다’에 해당하는 중세 한국어 동사 ‘있다’의 어간과, 사물의 부차적인 요소 또는 허사를 의미하는 중세 한국어 ‘겅, 겅’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이 고유어 ‘입겅, 입겅’을 훈차 표기한 결과가 ‘口訣’이라고 보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입겅, 입겅’의 ‘입’을 口(입 구)자의 훈을 이용해 차자 표기하고, ‘겅’ 또는 ‘겅’을 ‘訣’자로 훈차 표기한 것이 ‘구결(口訣)’이라

는 것입니다. 차자 표기한 결과인 ‘口訣’이, 공교롭게 ‘구수전결(口授傳訣)’의 약자인 한자어 ‘口訣’과 같아지게 된 셈이므로,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지요.

그러나 이해를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인 ‘구결’이 ‘구수전결(口授傳訣)’의 약자인 한자어 ‘口訣’과 전혀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삼국 시대 이후 불교의 각 종파에서는 각 종파에 따라 불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 종파에 속하는 승려들이, 그 종파의 큰스님이 불경에 구결을 달아 해석한 결과를 음송하면 이때 달린 구결들을 불경에 기록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큰스님의 불경 해석을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S15]이러한 불가에서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고려해 보면, 큰스님이 구결을 달아 음송함으로써 불경 해석의 비결 또는 요체를 전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체를 ‘구수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경 해석의 비결 또는 요체는 불경 사이에 달리는 구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경에 달리는 한국어 요소가 큰스님의 불경 해석의 요체라는 점에서 이를 ‘구수전결’, 줄여서 ‘구결’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음독(音讀) 구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결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천자문을 익힌 아동들이 읽었던 《동몽선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책의 원문 한문은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所貴乎人者以其有五倫也”와 같이 띄어쓰거나 구절 구분이 없어서 한국어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문이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끊어진다면 전후의 문법적 관계는 어떤지를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한문 원문의 구절을 의미 단위로 나누고, 그 나뉜 부분이 한국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한국어 문법 요소를 넣어주면, 원문의 의미를 한국어로 이해하기 수월해 집니다. 그 결과를 현대 한국어를 이용해서 넣어 읽으면, “天地之間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하니 所貴乎人者는 以其有五倫也라”와 같이 됩니다. 원문 사이에 들어간 ‘에’, ‘이’, ‘하니’, ‘는’, ‘라’ 등의 한국어 요소로 인해서, 해당 한문 구절이 한국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天地之間萬物之中에”는 부사어, “唯人 이”는 주어, “最貴하니”는 서술어, “所貴乎人者는”은 주어이자 주제어, “以其有五倫也라”는 서술어에 각각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문 원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문 원문의 의미를 한국어 문장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원문의 사이사이에 넣는 한국어 요소가 ‘구결’입니다. 이 한국어 요소는 조사와 어미, 접사 등의 문법적 요소와 ‘하다’, ‘이다’ 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결이라고 하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구결을 말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들 구결에서는, 한문 원문의 한자들은 모두 음으로만 읽습니다. 예를 들어, 《동몽선습》의 한문 원문은 ‘천지지간만물지중, 유인, 최귀’와 같이 음독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문 원문의 한자를 음으로만 읽도록 하는 구결을 ‘음독(音讀) 구결’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런 구결이 달린 경우에는, 한문 원문을 읽고서 거기에 달린 구결자를 읽고, 또 다음 본문을 순차적으로 읽어 갑니다. 《동몽선습》에서 원 한문 ‘천지지간만물지중’을 읽고 그 구절에 달린 구결 ‘에’를 읽은 뒤, 그 다음의 본문 ‘유인’을, 그 다음 거기에 달린 구결자 ‘이’를 순서대로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과 구결을 순서대로 읽어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결을 ‘순독(順讀) 구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결이란, 바로 음독구결이자 순독구결인 셈입니다.

음독구결이자 순독구결을 달아서 한문 원문의 의미를 파악해 가는 과정을 《훈민정음》 언해본의 일부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한문 원문의 ‘국지어음’이 ‘이호중국’의 주어에 해당하므로 주격의 구결 ‘이’를 달아 ‘국지어음이’로 읽음으로써 이 구결이 “나라의 말이”의 의미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원문 ‘이호중국’은 서술어이므로 서술어를 만들어 주는 구결 ‘햐’를 달아서 ‘이호중국햐’로 읽음으로써 그 의미가 “중국과 달라서”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문 원문의 ‘여문자’ 뒤에 부사격의 구결 ‘로’를, 원 한문의 ‘불상유통’ 뒤에 서술어를 만드는 구결 ‘홀씨’를, 원문 ‘고’ 뒤에 원인격의 구결 ‘로’를, 원문 ‘우민’ 뒤에 주격의 구결 ‘이’를, 원문 ‘유소육언’ 뒤에는 양보의 서술어를 만드는 구결 ‘햐도’를, 원문 ‘이중부득신기정자’ 뒤에는 주격의 구결 ‘이’를, 원문의 ‘다의’ 뒤에는 서술어를 만드는 구결 ‘(이)라’를 달아서, 한문 원문의 의미를 파악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한문 원문의 한자는 모두 음으로만 읽었고, 한문 원문 및 그 사이에 달린 구결을 순차적으로 읽어갔음은 물론입니다.

구결은 주로 한문 경전을 학습하거나 연구할 때 나중에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미 간행되었거나 필사되어 있는 한문 원문 옆에 따로 기입해 넣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문 원문 사이에 구결을 기입할 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적으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중국으로부터 불교서든 유학서든 한문 서적을 들여와 읽은 이른 시기부터, 구결을 달아서 한문 원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도 한문 원문 사이에 구결을 기입해 넣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한자를 빌려서 구결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글로 구결을 적으면 한글 구결, 한자를 빌려서 구결을 적으면 차자 구결이라고 합니다.

이두나 향찰에서 차자한 한자는 정자체로 적히는 일이 많은 데 비해서, 차자 구결은 정자체로 적히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자 구결은 학습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매번 구결자를 정자체로 기입하기가 번거로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결을 달아서 해석한 문장을 들으면서 그대로 한문 원문 사이사이에 구결을 기입해 넣을 때에는 정자체로 구결을 기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사자가 한문 원문 사이에 직접 구결을 기입해 넣을 때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차자한 구결자의 행서체나, 초서체 등에서 간략하게 일부 획만을 취한 약체자 구결이 사용되었습니다. 구결이 정자체로 적히는 경우는, 사진에서 보듯이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단 구결문 전체, 즉 한문 원문과 구결자를 모두 책으로 간행하는 경우나 왕자의 교육을 위해서 정성껏 구결자를 기입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약체 구결자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조사 ‘은/는’을 표기하는 구결자 ‘隱’은, 두 번 째 획만을 가져와서 ‘1’으로, 한국어의 어미 ‘-고’를 표기하는 구결자 ‘古’는 위의 획들은 생략해서 ‘ㄱ’로, 한국어의 어미 ‘-니’를 표기하는 구결자 ‘尼’도 위의 획을 생략해서 ‘ㄷ’로, 한국어의 동사 어간 ‘-하-’를 표기하는 구결자 ‘爲’는 초서체의 첫 두 획만을 취해서 ‘ㄴ’로,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는-’를 표기하는 구결자 ‘飛’는 가장 윗부분 일부 획만을 취해서 ‘ㄷ’로, 한국어의 계사 어간 ‘이-’를 표기하는 구결자 ‘是’는 맨 마지막 획만을 취해서 ‘ㄴ’로 적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체자 구결에서 일부 획만을 취해서 약체자 구결을 만드는 방식은 일본의 가타카나를 만드는 방식과 흡사하고 초서체나 행서체에서 약체자 구결을 만드는 방식은 일본의 히라가나와

유사해서 외형상으로 한국의 구결자와 일본의 가나가 흡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외형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것이 표기하는 음이나 의미가 유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정체자 구결과 약체자 구결은 현재 아래아 한글과 MS word의 문자표에 반영되어 있어 이들 프로그램으로 구결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능엄경》의 원문 사이에 약체자 구결을 기입해 넣은 초기 음독구결 자료의 예입니다. 이 자료의 구결문 가운데 하나의 예가 “汝此肉身 1 爲同金剛 ヽ 3 常住不朽 ヽ ㄹ 3 爲復變壞 ヽ ㄹ 3” 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문 원문의 한자는 음으로만 읽고, 원문과 여기에 달린 구결들을 순서대로 읽어 갑니다. 이 예문의 ‘1(은)’, ‘ㄹ 3(하야)’, ‘ㄹ 3(하리아)’ 등에서 고려 시대부터 약체자 구결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편의상 음독구결을 다루면서 약체자 구결을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뒤에서 설명할 석독구결 역시 기입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약체 구결자가 쓰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결이 한문을 한국어 문장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은 한글 창제 이후에 간행된 언해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이후의 언해 자료 중 대부분이 언해의 본문은 한문 원문이 아니라 여기에 구결이 달린 구결문입니다.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단 뒤에 언해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능엄경언해》의 발문에는 언해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해의 첫 과정이 불경 원문에 세조가 직접 구결을 다는 일이었음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글 언해 자료의 본문들은 대부분 음독구결문이나 순독구결문이었던 셈입니다.

3. 석독(釋讀) 구결

한동안 구결에는 앞서 살펴본 음독구결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충남 서산 문수사의 철불을 보수하던 중 나온 복장품 가운데 《구역인왕경》의 일부인 5장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때 발견된 《구역인왕경》의 한 장입니다.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구결 자료에는 모두 한문 원문 구결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구결을 적어, 본문의 한자와 구결,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의 한자를 순서대로 읽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견된 《구역인왕경》 낱장들에는 한문 본문 구결 한자의 오른쪽 아래는 물론 왼쪽 아래에도 차차 구결이 기입되어 있기도 하고, 구결자 아래에 점도 찍혀 있는 경우도 보이는 등 지금까지 보아 왔던 구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그 구결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구역인왕경》의 구결을 연구한 결과, 여기의 구결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음독구결이자 순독구결과는 성격이 다른 구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음독구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 한자의 우측 아래에 기입된 구결을 순서대로 읽어가다가, 좌측 아래에 기입된 구결이 달린 부분은 우선 읽지 않고 뛰어 넘어간 뒤, 구결자 아래에 점이 찍혀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돌아가 전에 읽지 않았던 좌측에 구결이 달린 부분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보이는 점은, 우측 구결이 달린 본문들을 읽어 내려 올 때 읽지 않고 뛰어넘었던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서 되돌아가 좀 전에 읽지 않았던 좌측 구결자가 달린 부분을 읽을 것을 지시하는 ‘역독점(逆讀點)’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음독구결에서와는 달리 이 자료에서는 본문 문맥에서의 한자 의미인 ‘석(釋)’으로 읽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한자의 의미를 가리키는 ‘석(釋)’은 이 한자의 여러

의미 중 특정한 문맥에서 사용된 의미를 가리키는 말로서, 여러 의미 중 대표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훈(訓)과는 구별해서 쓰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구결인 음독구결이자 순독구결과는 전혀 다른 《구역인왕경》 구결의 성격이 밝혀지면서, 그때까지와는 다른 구결의 분류가 필요해졌습니다. 우선 구결에는 한문의 한자를 음으로만 읽도록 하는 ‘음독구결’이 있는가 하면, 한문의 한자 가운데 그 문맥에서의 의미인 석으로 읽기도 하는 ‘석독(釋讀) 구결’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알려진 바와 같이 한문 원문과 여기에 달린 구결을 순차적으로 읽어 가는 ‘순독구결’이 있는가 하면, 역독점과 본문 좌측의 구결을 이용해서 한문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읽기도 하는 ‘역독구결’이 존재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역독점과 우측의 구결을 통해서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읽도록 한 조치는, 서술어가 목적어 앞에 오는 술목 구조, 또는 서술어가 빈어 앞에 오는 술빈 구조로 기입된 한문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목적어나 빈어 뒤에 오므로, 한문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풀어 읽기 위한 것입니다. 곧 《구역인왕경》을 통해 알려진 석독구결은, 한국어 문장의 어순과 다른 한문을 한국어 문장의 어순으로 풀어서 이해하고자 한 구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역인왕경》의 실제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자료의 일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문 원문의 좌우 행간에 모두 구결이 달려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이는 구결은 모두 약체자 구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위의 문장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구결들을, 가로쓰기의 편의상 원래 한문의 우측에 달린 구결은 위첨자로 보이고, 한문의 좌측에 달린 구결은 한문 본문에 그대로 이어서 기입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이를 앞서 설명했던 구결의 표시 방치대로 풀어 읽은 해독 결과인 구결문이 둘째 행의 문장입니다. 표시된 구결대로 풀어 읽으면, 우선 현재 위첨자로 보인 우측에 구결이 달린 한문 부분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서, ‘信行乙 具足ッニカ 復ッ1’까지 오면, 좌측에 구결이 달린 ‘有セナカ’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일단 이는 읽지 않고 뛰어넘어가 그 다음 우측 구결이 달린 한문 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면 ‘信行乙 具足ッニカ 復ッ1 五道乙 一切衆生ニ’까지 읽게 되는데, ‘一切衆生ニ’ 뒤에 역독점 ‘·’이 찍혀 있으므로, 지금까지 읽었던 문장의 앞쪽으로 되돌아가서 좀 전에 읽지 않았던 좌측에 구결이 달린 ‘有セナカ’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信行乙 具足ッニカ 復ッ1 五道乙 一切衆生ニ. 有セナカ’로 읽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좀 전에 되돌아갔던 부분의 다음으로 와서 우측 구결이 달린 부분인 ‘復ッ1’을 읽고 그 다음 좌측 구결이 달린 ‘有セナカ’는 읽지 않고 뛰어넘어 다시 우측 구결이 달린 ‘他方乙’을 읽고, 그 아래 다시 좌측에 구결이 달린 ‘不矢リヒ乙 可乙ッ1.’을 뛰어넘어 그 다음 좌측 구결이 달린 ‘量ノヒ.’을 읽고, 여기에 역독점이 있으므로 좀 전에 읽지 않고 뛰어 건넌 좌측 구결이 달린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 나타나는 ‘可乙ッ1.’을 읽은 뒤, 역독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처음 만나는 좌측 구결이 달린 ‘不矢リヒ乙’을 읽은 뒤, 역독점이 없으므로 처음 거슬러 읽었던 올라왔던 ‘量ノヒ.’의 아래로 내려가 좌측에 점이 찍힌 ‘衆.’을 읽고, 여기에 역독점이 있으므로 다시 한문을 거슬러 올라가 좌측 구결이 달려 있어서 읽지 않았던 저 앞 ‘有セナカ’를 읽게 됩니다. 이렇게 구결의 지시대로 읽으면 결과적으로 ‘復ッ1 他方乙 量ノヒ. 可乙ッ1. 不矢リヒ乙 衆. 有セナカ’로 읽힙니다. 이렇게 읽은 결과를 보인 것이 둘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구결의 지시대로 읽으면, 한문 본문을 “신행을 갖추시며 또한 오도의 일체중생이 있으며, 또한 다른 지방의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있으며”와

같은 한국어 문장 어순대로 풀어 읽히게 되지요. 따라서 석독구결은 한국어 문장과 순서가 다른 한문을, 한국어 문장의 어순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차자 표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문에서 또 다른 석독구결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석독구결의 지시대로 읽은 구결문에서, 우선 ‘有_ㄷ가(有_ㄷ겨며)’의 경우 한문 원문의 한자인 ‘有’를 음독구결에서와 같이 음독한다면, 이를 구결과 함께 읽었을 때 ‘*웃겨며’라는 이상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有’는 음독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뒤에 달린 구결자 ‘ㄷ’이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ㅅ을 표기한 구결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有’의 훈이 ‘잇-’의 선대형 ‘잇-’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有_ㄷ’은 ‘有’의 훈 ‘잇-’을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ㄷ’은 앞에 있는 차자를 읽을 때의 발음을 표기한 것인 셈인데, 이를 발음 첨기자라고 합니다. 발음 첨기자는 고유명사 표기나 향찰 표기 등의 차자 표기법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有_ㄷ’을 ‘잇-’으로 읽게 되면 한문 원문의 ‘有’를 음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의 의미인 ‘석’으로 읽은 것이 됩니다. 이 예문에서 한문 본문의 한자를 석독한 발음을 보여 주는 발음 첨기자가 사용된 또 다른 경우가 ‘可_ㄷ1(깃흔)’과 ‘不_ㄷㄷ(안다이눓)’입니다. ‘可_ㄷ1’의 ‘可_ㄷ’은 ‘可’의 석독한 ‘깃’의 표기이고, ‘不_ㄷㄷ’의 ‘不_ㄷ’은 ‘不’의 석인 ‘안디’의 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可’와 ‘不’ 역시 원문의 한자인데 석독한 예가 됩니다. 이 밖에 여기의 ‘復_ㄷ1’도 ‘復’를 그 석인 ‘쑈’로 읽어서 ‘쑈흔’으로 읽는 경우이고, 한문 본문의 ‘衆’도 그 석인 ‘믈’ (이 명사는 중세어에서 “무리”에 해당하는 명사입니다.)로 읽는 경우입니다.

한문 한자를 음으로 읽지 않고 ‘훈’이나 ‘석’으로 읽는 방식이 현재의 관점에서는 어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훈독의 방법은 20세기 초에도 사용되던 한자 독법입니다. 유길준이 1908년에 지은 《노동야학독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국한문 혼용으로 써져 있는데, 이 예문에서 보듯이 국한혼용문에 쓰인 한자 飢(주릴 기)를 그 훈 ‘쥬리’로 읽을 것을 표시하고 있는가 하면, ‘赤’자도 그 훈인 ‘붉-’으로 읽을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로 훈독의 예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듯 한국에서도 한자를 써 놓고 그 훈이나 석으로 읽는 방법이 과거에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구역인왕경》을 통해서 석독구결의 존재가 알려지고 학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석독구결 자료들이 발굴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뒤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 대표적인 예만을 들자면, 《화엄경》, 《금광명경》, 《유가사지론》, 《화엄경소》, 《자비도량참법》 등 13세기 중엽 이전의 자료들에 석독구결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는 사진은 이 가운데 《유가사지론》의 한 면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에도 《구역인왕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자 구결이 한문 본문의 좌우측에 모두 기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결로 한문을 풀어 해석하는 방법은 《구역인왕경》에서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예를 통해서, 한문에 석독구결을 달아 읽은 석독구결문은 한국어와 다른 어순을 가진 한문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풀고, 그 한문의 한자 가운데 일부도 한국어 석으로 읽어서 풀어 읽은 문장이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석독구결문도 한문을 완전한 한국어 문장으로 읽은 것은 아니어서, 한국어 문장으로는 한 문장이 될 것을 두 문장으로 분리해 읽는다든지 하는 한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문을 한

국어 문장에 가깝게 해석하고자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문에 구결을 달아서 한문을 한국어 문장으로 이해하고자 한 석독구결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역사 기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총은 명민하여 나면서부터 도와 학문을 알았고 우리말로써 9경을 읽었다.” 라는 《삼국사기》 권46의 기록이나, “설총은 나면서부터 명민해서 경서와 역사서에 두루 통달하니 신라 10현 중 한 분이다. 우리말로 중국과 외이의 각 지방 풍속과 물명에 통달하고 6경 문학을 풀어 해석했다.” 라는 《삼국유사》 권4의 기록에 대해서, 기존에는 설총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음독구결로 9경이나 6경 문학의 한문을 읽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독구결의 존재가 알려지고 구결의 발전 단계상 통일신라 시대에는 석독구결로 한문을 읽어 이해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설총이 9경 또는 6경 문학 등의 한문을 읽은 것은, 한문 본문에 석독구결을 달아서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풀 석독구결문으로 읽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최행귀가 《균여전》 <역가현덕품>에서 균여의 향가 11수를 한역하면서 밝힌 “설 한림(‘설총’을 말합니다)이 힘써 한문을 우리 문자로 바꾸려 했” 다는 말은, 한문에 석독구결을 달아서 한국어 어순에 가깝게 풀어 읽었음은 물론, 그렇게 풀어 읽은 석독구결문으로 풀어 써서 남겼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증언을,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에서, 신라 의상대사의 강의를 그 제자들이 기록한 《요의문답》 2권, 《일승문답》 2권에 대해 “다만 당시 편찬자가 문체가 좋지 않아 장구가 비야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 섞여 있어… 장차 군자가 마땅히 운색을 가해야 한다.” 라고 평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상의 제자들이 기록한 글에 ‘방언’, 곧 한국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의상의 제자들이, 의상대사가 석독구결로 풀이해 준 석독구결문으로 《요의문답》과 《일승문답》을 기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석독구결로 한문 문헌을 한국어에 가깝게 풀어 읽는 방법이 신라 시대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풀어 읽은 석독구결문으로 기록한 문헌들이 유통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설총이 한문을 우리 문자로 바꾼 결과, 혹은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한국어를 섞어서 쓴 두 책의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제 문장이, 균여의 《석화엄교분기원통초》, 줄여서 《석교분기》라고도 부르는 자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료가 바로 그것인데, 일반 한문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或有如 佛性隱’ 부터 ‘闍提人 無如好尸丁’ 까지는 일반적인 한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혹 있다, 불성은.(불성이 있다고 함은) 천제인은 있지만 선근인은 없다 함이며, 혹 있다, 불성은.(혹 불성이 있다고 함은) 선근인은 있지만 천제인은 없다 함이다.” 라는 한국어 문장을 차자 표기한 것입니다. 즉 여기의 “有如”는 ‘있다’, “佛性隱”은 ‘佛性은’ 등을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석교분기》는 균여가 당 나라의 법장이 쓴 《화엄교분기》에 대한 주석서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원문에 석독구결을 달아서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풀어 읽은 석독구결문으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균여의 해석을 균여의 제자들이 기록했던 것인데, 이후 한국어 요소가 들어간 문장을 낮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13세기에 천기와 그 제자들이 이 석독구결문에 들어가 있는 ‘방언’ 요소, 곧 한국어 요소인 석독구결을 제거하고 원문을 원래의 한문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서 균여가 썼던 방언본, 곧 석독구결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或有如 佛性隱 闍提人隱 有豆亦’ 부터 ‘闍提人 無如好尸丁’ 까지입니다. 이렇게 한문 불경을 한국어 문장으로 풀어 읽은 결과인 석독구결문이 불경의 주석서로 남아 전해졌다는 사실은, 의상의 강의를 기록했는데 방언, 곧 한국어가 포함

되어 있다는 《요의문답》과 《일승문답》 역시 《석교분기》와 마찬가지로 석독구결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설총이 한문을 우리 문자로 바꾸려 했다는 말도 한문 원문에 석독구결을 달아서 풀어 읽은 석독구결문으로 풀어 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석독구결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한국에서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차자 표기 방법으로서, 석독구결을 달아서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이해한 석독구결문을 써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석독구결문도 원래의 한문을 이해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문 본문의 이해를 위해 석독구결을 사용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예로 든 석독구결은 대부분 이미 간행되었거나 쓰여진 한문 원문 사이사이에 직접 붓으로 석독구결을 기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성격의 석독구결이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일본의 각필 훈점 연구의 대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교수가, 한국에도 각필 훈점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구결학회 회원들과 자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8을 비롯해 호림박물관의 《화엄경》 등에서 각필 훈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필이란 붓이 아닌 대나무 등과 같이 끝이 뾰족한 필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종이 위를 눌러 점을 찍거나 선을 그리거나, 간혹 직접 글자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각필 자료들이 다수 존재함에 비해 한국에는 그때까지도 각필 자료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국의 자료 중에도 각필로 점이나 선 등을 종이 위에 눌러 표시한 자료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연구한 결과, 이때 발견된 각필 표시들은, 한자를 사각형으로 보고 사각형의 특정 위치를 특정 석독구결에 대응시킨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한자 주변의 특정 위치에 각필로 점이나 선을 표시하면 원문에 붓으로 석독구결을 기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각필 자료들은 석독구결과 같은 성격의 자료로서 석독구결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필로 표시된 점, 선 등의 부호를 각필 구결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부호로 구결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서 부호 구결이라고도 했으며, 주로 점으로 토, 즉 구결을 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점토 구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점토 구결로 불리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이 바로 점토 구결의 예입니다. 사진에서 한자의 주변에 점이나 선을 각필로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점은 특정한 석독구결에 대응하므로 석독구결이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점의 위치는 가운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를 사각형으로 보고 사각형의 위, 아래, 좌우, 내부 등 위치를 세분해서 특정 위치를 특정 석독구결에 대응시켰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운데 사진의 검은 원은 사각형 주변에 점토가 찍히는 기본적인 위치인데, 그 위치 안에서도 +로 표시된 것과 같이 보다 먼 위치에는 또 다른 구결자를 배치했음을 보인 것입니다. 맨 오른쪽의 사진은 한자를 사각형으로 볼 때의 특정 위치에 대응되는 구결자를 위치시킨 것으로 일종의 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위치의 점이 어떤 언어 요소에 대응되는지를 표시한 점도는 일본의 훈점 자료에서는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점도를 구성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인 것입니다.

점토 구결의 특정한 점이 어떤 구결자에 대응되는지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금광명경》이라는 석독구결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한동안 붓으로 석독구결을 직접 기

입한 자료로만 알려져 왔던 것인데, 한국에 점토 구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이 자료에 붓으로 쓴 구결뿐만 아니라 본문 한자의 주변에 점토가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붓으로 쓴 석독구결과 점토를 대응시켜 본 결과 어떤 위치의 점토가 어떤 석독구결에 대응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토와 석독구결의 대응 관계가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 등은 유사한 데 반해, 《화엄경》에서는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앞서 종파별로 불경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점토의 점토 역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점토 구결은 《유가사지론》 계통의 것과 《화엄경》 계통의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토 구결이 발견됨으로써 다시 구결을 분류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구역인왕경》의 발견으로 구결에는, 음독구결이자 순독구결인 것과 석독구결이자 역독구결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석독구결에는 직접 붓으로 석독구결 글자를 기입한 구결, 즉 글자로 토를 기입한 ‘자토 석독구결’이 있는가 하면, 각필이나 붓으로 점이나 선 등을 찍어서 토, 즉 구결을 표시한 ‘점토 석독구결’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나아가 점토 석독구결의 발견으로, 그동안에는 일본 고유의 것으로 알려져 왔던 훈점이 한반도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도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점토 석독구결에 대한 강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제 점토를 찍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是命第一欲生”이라는 한문 원문의 의미를 한국어 문장으로 풀면 ‘이를 이룸하여 제일 욕생이라고 한다.’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문 원문을 이해하는 방식을 자토 석독구결로 기입하면 여기에서 보듯이 석독구결자를 붓으로 직접 기입하여 ‘是_乙命_下第一欲生_{ノイ}’와 같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각필 구결로 표시한다면, 본문 한자 是을 사각형으로 보고서, 석독구결자 乙을 표시하기로 약속된 위치에 점을 찍고, 같은 방식으로 본문 한자 命의 정해진 위치에 下에 대응하는 점을 찍은 뒤, 본문 ‘第一欲生’의 맨 마지막 글자 ‘生’의 정해진 위치에 一과 ノイ에 대응되는 위치에 점과 점의 조합으로 찍어서 표시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점토 석독구결입니다.

석독구결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많은 석독구결 자료들이 발굴되어 소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석독구결 자료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토 석독구결 자료를 살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석독구결 자료는, 10세기에 균여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석교분기》에서부터 13세기 후기에 석독구결이 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구역인왕경》과 재조본 《유가사지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7종의 고려시대 자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기입된 석독구결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13세기 후기에 기입된 석독구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결은 훨씬 이전의 한국어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구결의 운영 방식이 통일신라 시대의 향찰과도 일치하기도 하는 등 석독구결은 보다 이른 시기의 한국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석독구결 자료는 비록 10~13세기에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대 한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다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13세기말에 기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초기 음독구결 자료들이 15세기의 음독구결과 유사한 점과 차이를 보이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점토 석독구결입니다. 점토 석독구결 자료 역시 고려시대에 간행된 자료들이 알려져 있는데 총 5종 16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 표에서 보듯이 《금광명경》은 자토

이번에는 차자 표기의 목적이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냐, 이미 존재하는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유명사 표기나 이두, 향찰은 모두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어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해, 구결은 이미 존재하는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거나, 한문을 한국어 문장으로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차자 표기법은 다시 그 차자 표기를 통해서 한국어 요소가 부분적으로만 반영이 되느냐 상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의 ‘표현’을 위한 차자 표기법 가운데, 이두는 실질적 의미 부분은 변경 한문으로 제시되고 주로 문법적 요소만이 차자 표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문장이 부분적으로 차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향찰은 한국어 문장의 실질적 의미 부분은 물론 문법적 의미 부분 모두 차자 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문장을 전면적으로 차자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문의 이해를 위한 구결의 경우, 석독구결은 한문을 한국어 문장의 순서로 풀어서 이해함은 물론 한문 본문의 한자를 석으로도 읽는다는 점에서 한문을 전면적으로 한국어 문장으로 풀어 읽는 것인 데 비해, 음독구결은 한문에 한국어 문법 요소만을 더해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문을 부분적으로만 한국어 문장으로 풀어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자 표기 방법들은 서로 별개의 표기 체계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향찰과 석독구결의 차자의 형태나 용법이 일치하기도 하고, 향찰과 이두의 차자도 동질성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며, 향찰과 이두 역시 그러합니다. 또한 향찰에서 한국어 요소를 표기하는 원리는 고유명사 표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의 차자 표기 체계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것임을 말해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설총의 이두 제작설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총은 석독구결로 한문 경전을 풀어 읽었고 그 결과를 써서 전하기도 했으니, 설총은 석독구결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런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설총이 석독구결에서 차자한 한국어 문법 요소의 차자들을 이두문에 적용함으로써 초기 이두와는 다른 본격적인 이두 표기 방법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차자 표기법 가운데 구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삼국시대부터 한국은 중국의 문물을 한문을 통해서 수용해 왔습니다. 이때 한국어의 질서와는 다른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한문 본문에 구결을 달아서 의미를 파악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본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한국어 요소를 ‘토’ 또는 ‘구결’이라고 불렀습니다. ‘구결’이라는 명칭은 한자어 ‘口授傳訣’에서 왔을 가능성과, ‘입결’ 또는 ‘입결’이라는 고유어를 차자 표기한 결과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2) 구결은 주로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한문 본문의 사이사이에 더함으로써 한문의 구결

을 분절하고 그 구절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를 말합니다. 구절은 한글 창제 이후에는 한글로 적을 수 있지만, 한글 창제 이전에는 차자해서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구절은 직접 구절자를 기입해 넣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한자의 일부 획만을 취한 약체자 구절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구절이 한문을 한국어 문장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독해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 후 한문을 언해할 때도 먼저 구절을 단 구절문을 만들고 이를 대상으로 언해했습니다.

(3) 《구역인왕경》의 발견으로 지금까지 유일한 구절이라고 알려져 왔던, 한문 본문의 한자를 음으로만 읽는 음독구절이자, 본문의 한자와 그 아래에 기입된 구절을 읽고 다시 본문과 구절을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순독구절과는 또 다른 구절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본문 좌측에 기입하는 구절과 역독점 등으로 한문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읽기도 하면서 한국어 문장의 어순에 가깝게 풀어 읽는 역독구절이면서, 동시에 한문 본문의 한자를 그 문맥에서의 의미인 석으로 읽기도 하는 석독구절입니다. 이 석독구절은 신라 시대부터 활용되어 왔던 한문의 이해를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인데, 석독구절을 달아서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훈석독구절문을 써서 전하기도 하여 고려시대까지도 이런 석독구절문이 전해졌습니다. [#S42] 초기에 알려진 석독구절 자료는 원문의 행간에 직접 붓으로 구절자를 기입해 넣은 것이었는데, 2000년에는 각필로 한자의 정해진 위치에 점이나 선 등을 찍어서 정해진 구절을 표시하는 점토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점토구절은 한자를 사각형으로 보고, 사각형의 특정 위치를 특정한 석독구절자에 대응시킴으로써 점이나 선의 표시가 구절자를 기입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구절 자료가 나타남으로써 석독구절에는 직접 붓을 구절자를 기입하는 자토 석독구절과, 본문 한자의 정해진 위치에 각필이나 붓으로 점과 선을 찍어 정해진 구절자를 표시하는 점토 석독구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점토 석독구절 자료를 통해서 일본의 훈점이 한반도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4) 석독구절 자료는 13세기 후반까지 발견되고, 초기의 음독구절 자료는 13세기 말부터 발견됩니다. 이는 한국의 구절이 석독구절로부터 음독구절로 변화했음을 말해 주는데, 이는 한문에 대한 이해와 구사 능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대의 음독구절에서 구절의 맨 마지막에 그 구절의 서술어에 달리는 구절이 모두 달리는 현상은 점토 석독구절에서, 자토 석독구절이라면 거슬러 올라가 앞에 있는 본문 한자에 달릴 구절이 그 구절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표시되는 현상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차자 표기법을, 차자 표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단어인지, 문장인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구절은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기의 목적이 사고 내용을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나 한문을 한국어 문장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절은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차자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은 다시 한문을 한국어 문장으로 옮길 때 부분적으로만 옮기는 음독구절과, 전면적으로 옮기는 석독구절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각 차자 표기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 요소를 표기하는 차자 표기 가운데,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차자 표기인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한국에서의 독특한 문자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석독구결은 오로지 문자를 통해서만 기록한다. (O/X)

정답: X

2. 불경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 도교 경전 삼국시대부터 널리 읽혔다. (O/X)

정답: O

3.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은 읽는 순서가 모두 동일하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석독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석독구결은 기입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약체 구결자가 사용되었다.
- ② 석독구결은 한문의 어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 ③ 석독구결은 고려시대부터 활용된 한문의 이해를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이다.

정답: ①

2. 다음 중 음독구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독구결은 오로지 한자의 우측에만 토를 기입한다.
- ② 한글 언해 자료의 본문들은 대부분 음독구결문이었다.
- ③ 음독구결에서는 한자를 소리뿐만 아니라 한자의 뜻으로 읽기도 한다.

정답: ③

3. 다음 중 구결의 변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결은 음독구결-석독구결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 ②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구결 자료에서 역독점이 확인된다.
- ③ 점토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에서 구결을 기입하는 한자의 위치가 동일하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본문과 구결을 순서대로 읽어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음독구결은 ○○구결이라고도 한다.

정답: 순독

2. 석독구결에서 ○○○은 구결자 아래에 표시하여 앞으로 돌아가 전에 읽지 않았던 좌측 구결을 읽으라는 표시이다.

정답: 역독점

3. ○○이란 붓이 아닌 대나무 등과 같이 끝이 뾰족한 필기구로서 점토석독구결을 기입할 때 사용된다.

정답: 각필

나. 토의 (30분)

1.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2. 구결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써 봅시다.

다. 과제 (60분)

이해를 위한 차자 표기 방법인 ‘구결’과 ‘구수전결(口授傳訣)’의 약자인 한자어 ‘口訣’의 관련성을 찾아 써 봅시다.

■ 참고자료

구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석독구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음독구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태학사.

황선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6차시> 한글의 제자 원리

■ 학습목표

1. 한글의 문자론적 성격을 이해한다.
2. 한글 창제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문자론적 의의를 확인한다.
3. 한글 창제의 기반이 된 사회 인식과 학문적 배경을 살펴본다.
4.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제자 원리를 이해한다.
5. 한글의 음절 표기 방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한글의 문자론적 성격
3. 한글 창제의 문자 생활사적 배경
4. 한글 창제의 기반이 된 인식
5. 초성자의 제자 원리
6. 중성자의 제자 원리
7. 종성자의 제자 원리
8. 한글의 음절 표기 방식
9.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 생활사의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한자 문화권에 속한 동아시아 중 유일하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자민족의 언어를 표기하는, 한국의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한글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한글은, 그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와 만든 주체, 그리고 문자를 만든 목적이 잘 알려진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용의 문자 가운데에서 이런 문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443년(세종 25년)에 한글이 만들어지고, 1446년(세종 28)에 새로 만든 한글의 만든 원리와 사용 방법 등을 널리 알린 이후, 드디어 한국어가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한글에 의해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채 600년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글이 한국어를 표기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글이 지닌 문자로서의 성격이, 문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용되는 한글이 지닌 문자로서의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진 문자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한글의 문자론적 성격

한글이 문자론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 문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과목의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본 뒤에, 한글의 제자 원리, 즉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글은, 사람의 언어 중 소리를 표기하는 표음문자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적는 음소문자입니다. 문자론적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는 알파벳과 같이 다루어지는 문자인 것입니다. 다만, J. Sampson 교수는 한글이 일반적인 음소문자와는 다르게 문자가 그것이 표기하는 소리의 자질도 표시하는 문자라고 해서 자질문자로 더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을 음절문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한글이 문자론적으로 음절문자인 것이 아니라, 실제 표기할 때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으로 인해 표기된 단위가 음절에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용 방식으로 인해 음절문자처럼 보이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음소문자인 것입니다.

한글은 현재 사용되는 음소문자 가운데 각각의 문자와 그것이 표기하는 소리가 거의 일대일 대응을 보이는 문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만 파악하면 많은 경우에 발음을 듣고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습득이 용이하고 표기하기에 편리한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현대 한국어의 표기 단위가 음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비], [지블]로 발음되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체를 표기할 때 실제 음절과는 다르게 ‘집이’, ‘집을’과 같이 표기합니다. 이는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서 형태음소론적 표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 발음 단위와 표기가 달라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글로 표기된 결과가 음절과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사실은, 한글 자체가 음절 단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표기 규범에 의해 그렇게 표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의 이름은 한글이지만, 이전에는 이를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고 이를 줄여서 ‘정음’으로도 불렸습니다. 또한 ‘한문’에 대비해서 한국의 말을 적는 문자라는 의미에서 ‘언문(諺文)’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언문이라는 명칭이 한글을 비하한 명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문자 창제 초기부터 이런 명칭이 사용되었고, ‘언(諺)’이나 ‘언문’이라는 명칭이 대부분의 문맥에서 한문에 대비시켜서 한문과는 다른 질서를 지닌 언어, 혹은 그 언어를 표기한 문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특별히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말에는 이 문자를 ‘조선국의 문자’라는 의미로 ‘국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던 이름이, 20세기 초부터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이라는 명칭은 주시경 선생이, 한(韓) 나라의 말이 ‘한말’이고 ‘한(韓) 나라의 글’이 ‘한글’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한글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과 관련된 과거의 사실을 설명할 때는 ‘훈민정음’, ‘언문’ 등의 명칭이 정확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글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의 문자들 가운데, 문자를 만든 주체와 목적, 그리고 그 원리가 분명히 밝혀진 매우 드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주체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의 세종 25년(1443년) 12월의 마지막 기사의 “이번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 …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고 했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라는 기록을 통해서 세종이 직접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와 사용법 등을 정리하고 정밀화해서 세종 28년(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앞부분인 <어제 서문>, 즉 세종이 직접 쓴 서문에서 훈민정음, 곧 한글은 세종이 문자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편안한 문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운용법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이 쓴 앞의 <예의>와 그 뒤에서 집현전 학사들이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이 만들어진 정확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국 문자 생활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창제는 어떤 문자 생활사적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 한글 창제의 문자 생활사적 배경

간혹 한글을 만든 직접적인 배경으로 세종 10년 9월에 있었던, 진주 사람 김화(金禾)의 친부 살해 사건에 대한 세종의 충격과 이를 교화하기 위한 행실도 등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백성의 교화도 한글을 만든 목적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백성의 교화는 한글을 만들게 된 많은 배경 중 하나는 될 수 있어도, 한글을 만든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국어를 말하면서도 글을 쓸 때는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된 한문으로 적거나 한자를 빌려서 부분적으로 한국어를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한국어를 구사하면서도, 이를 글로 적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질서와는 다른 한문의 질서대로 한자로 변환하여 적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20세기 초 학자들은 언어와 문자가 일치된 ‘언문일치’와는 다른 ‘언문이치(言文二致)’의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괴리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차자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기는 했지만, 차자 표기법으로는 한국어를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한자음의 음운 체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나 형태소의 발음이 온전하게 차자 표기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 표기 중 문장의 모든 부분을 표기할 수 있는 향찰 표기조차도, 표기 방법이 열려 있어 서사자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매번 해독해야 하는 불편한 표기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문장의 차자 표기법 가운데 가장 생명력이 길었던 이두 표기 역시 의미의 핵심 부분은 여전히 한문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어서 온전히 한국어 문장이 표기에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11세기 이후 문식층이던 지배층이 한문만이 정통적이고 권위 있는 글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정규적인 한문 속에서 우리말 요소를 표기하기 위해 차자 표기된 요소는, 중국인들도 읽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한문을 만드는 저열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한문에 차자 표기되어 들어가는 자국어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이어(俚語)’로 부르는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한문으로는 물론 차자 표기로도 자국어를 온전히 표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상존했던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에는 이런 불편한 사정을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인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가운데 한자를 빌려서 쓴 이두가 “실제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에 이르면 그 만분의 일도 적지 못한다.”라는 진술은 차자 표기의 한계를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문자 생활을 하던 지배층이었음에도, 자국어가 온전히 표기되지 못하는 불편한 상태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에 편찬된 《고려사》<악지>에는 고려의 속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려사》가 정통 한문의 질서대로 기록되었음은 물론인데, 이 역사서에서 고려의 고유어로 이루어진 속요를 기록하고자 했으나, 정통 한문으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사가 이어, 즉 고유어라서 신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사리부재(詞俚不載)’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옆의 사진을 보면 고려 속악의 노랫말이 ‘이어’가 많아서, 심한 경우에는 그 노래 이름과 노래 전체적인 의미만 적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는 부분에서 한문으로는 ‘云云’으로 적고 그 주석으로 이 부분은 ‘이어’라고 표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글 가사가 기록된 문헌의 해당 부분과 비교해 보면 “위 날 조차 몇 부니잇고” 등과 같이 한국어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리 한문에 능해도 자국어 요소가 표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어를 온전하게 표기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편함에 대한 인식은 예전부터 있어 왔음은 물론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최종 결과물이 한글의 창제였다고 보는 일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곧 한글을 만든 것은, 자국어 표기의 불편함 또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문자 생활사적 관점의 해석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문만을 정통적인 문어로 숭상하던 지배층에 의해 우리말 요소가 차자 표기되어 들어가기 어려웠음은 물론, 차자 표기되더라도 정확하게 표기될 수 없었던 상황을 반전시킨, 한국 문자 생활사에서의 획기적인 사건이 한글의 창제인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면서, 그 문자는 어리석은 백성들도 충분히 익혀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세종의 판단이 더해져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안타까워하여 이를 해결해 주고자 한 세종의 애민 정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종의 천재성이 결합하여 한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실록》의 세종 16년(1434년) 4월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한문본 《삼강행실도》를 간행해서 반포할 때, 정작 백성들이 한자를 알지 못하니, 백성들이 직접 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세종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가운데 형옥(刑獄)과 관련된 문제는 당시의 지배층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한글 창제의 한 가지 목적이었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백성들이 송사에 대해서 ‘들으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억울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듣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1444년(세종 25년) 2월 최만리 등의 갑자 상소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형옥과 관련된 글을 이두로 쓰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백성들이 한글자 차이로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으니, 한글로 글을 써서 들려주면 쉽게 이해해서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글을 만들게 된 배경 가운데, 백성들의 불편

한 문자 생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한글의 창제는 자국어 표기하지 못하는 문자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백성들이 문자 생활에서 배제됨으로써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백성들의 편리한 문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문자 생활사에 있어서 일반 백성이 문자 생활의 주체로 처음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에서의 문자 생활의 주체는 매우 국한된 지배 계층 등의 문식층이었고 이것이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자 생활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한글 창제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말과 문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을 만들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 한글 창제의 기반이 된 인식

흔히 한글이 매우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글의 창제가 그 이전의 문화적 성취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글을 만들 때, 그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문화적 성취에 대해 결코 배척하지 않고 최대한 필요한 내용을 수용하고자 하는 개방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단, 기존의 성취물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취사선택해서 수용하기도 하고, 기존 이론을 변형해서 수용하기도 하는 등 기존 성취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역시 발견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실록 기사 등을 살펴보면 한글 창제 과정에서 그때까지 이루어진 동아시아의 언어학적 성과들을 모두 검토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한글의 초성을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등 5음으로 구분한 방식이나 초성을 ‘청탁(淸濁)’으로 구분하는 방식, 모음의 자질을 ‘합벽(闔闕)’ 등으로 설명한 사실 등은 중국의 성운학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에 중국 성운학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제자해>에서 ‘운서에서 ‘유모(喻母: ㅇ)’와 ‘의모(疑母: ㅇ)’가 많이 뒤섞여 쓰이고 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성운학의 개념이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변용하여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본 《옥편(玉篇)》의 <오음지도(五音之圖)>에서, 현재의 자음에 해당하는 ‘성모’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 이용되었던 ‘설축(舌縮)’과 ‘구장(口張)’이라는 개념을, 해례본에서는 중성, 즉 현대의 모음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변용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던 기초적인 인식 역시 당시 동아시아의 기존 언어학 이론인 성운학적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인지 서>의 앞 부분에서 한글을 만드는 일의 정당성에 대한 언급 가운데,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에 적합한 문자가 있는데, 사방의 풍토가 달라 소리가 달라지는 법이어서 우리는 중국과 소리가 다름에도 한자를 쓰는 일은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 진술에 나타난 언어 풍토설은 조선 후기 실학자는 물론, 20세기 초의 주시경 선생의 저술에도 발견될 만큼 뿌리깊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어울리는 한글을 만들 고자 하는 시도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진술은 조선시대에 널리 읽힌 《성리대전》에 실려 있는 《황극경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당시까지 이루어진 문화적 성취물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없었다면, 새롭게 한글을 만들 고자 하는 시도도 없었을 수 있는 것입

니다.

이렇게 새로 한글을 만들면서,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운학을 검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 주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음절 2분법이 아니라 음절 3분법을 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운학에서는 사람의 말소리인 음절은, 성모와 운모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東동’이라는 음절은 성모인 ‘德’, 즉 ㄷ소리와 운모인 ‘紅’, 즉 ㄹ소리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이라는 음절은, 초성 ‘ㄷ’와 중성 ‘ㅇ’, 종성 ‘ㅇ’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음절을 세 부분으로 보는 음절 3분법은, 《몽고운략(蒙古韻略)》이라는 원 나라 초기 운서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운서는 원 세조 때 파스파가, 티벳 문자를 참고하여 파스파 문자를 만들면서 배경이 된 이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성과 종성을 동일한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을 만들면서 중국 한자음과 관련된 운서만이 아니라 몽골어 관련 운서도 참고했고, 이들의 검토를 통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 2분하는 중국 성운학의 권위를 맹종하지 않고, 당시까지 이루어진 언어학적 성과들을 널리 검토하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론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동아시아의 성운학 이론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타당한 내용들을 취사선택하고 변형하여 수용하는,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풍토가 다르면 소리가 달라지고, 이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당위적 사실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말소리, 즉 음절에 대해서는 당시의 주류 이론인 중국 운학에서의 음절 2분법이 아닌, 몽골 운학의 음절 3분법을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식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문자의 제자 방법과 원리를 초성자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 초성자의 제자 원리

초성자의 제자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해 보면 먼저,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뜨고, 설음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으며, 순음 ㄹ은 입의 모양을, 치음 ㅈ은 이의 모양을,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 때, 동아시아 성운학의 전통을 따라서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등 5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본자를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뜨는 ‘상형’의 방법으로 글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설명 뒤에는, 아, 설, 순, 치, 후 등 5음 각각에서 맨 처음 만든 글자가 표시하는 소리에 비해서 소리가 약간 센[厲] 소리를 표시하는 초성자는 원래 글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즉 ‘가획’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아음의 경우는 기본자 ㄱ에 비해 약간 센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는 ㄱ에 획을 더해서 ㅋ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음의 경우는, 처음 만든 ㄴ소리보다 더 센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는 ㄴ에 획을 더해 ㄷ으로, ㄷ보다 거센 소리는 ㄷ에 획을 더해 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음의 경우는, 처음 만든 ㄹ에 순차적으로 가획하여 ㄹ과 ㄹ을 만들었고, 치음의 경우는 처음 만든 ㅈ에 순차적으로 가획해서

자과 ㅈ을 만들었으며, 후음의 경우에는 처음의 상형자 ㅇ에 순차적으로 획을 더해서 ㅎ과 ㅎ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ㅋ, ㆁ, ㅌ, ㅍ, ㅊ, ㅌ, ㅎ, ㅎ 등이 상형자에 가획을 해서 만든 가획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특성에 따라 가획[因聲加劃]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동일한 문자형에 획이 하나 더 있다면 그 획은, 이 글자가 표시하는 소리가 이전 글자에 비해 획만큼의 특성을 더 지니고 있음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초성자 중 일부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J. Sampson 교수가 1985년에 쓴 《Writing System》이라는 책에서, 한글을, 그 문자가 표시하는 소리의 자질을 표시하는 ‘자질 문자’라고 하여 다른 음소문자들과 구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 일반적으로 나머지 초성자인 ㅇ, ㆁ, ㄹ은 <제자해>의 “이기체(異其體)”라는 진술을 따라서 이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이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성자 중 기본자 ㄱ, ㄴ, ㄴ, ㅍ, ㅇ 등 다섯 자는 상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형자이고, ㅋ, ㆁ, ㅌ, ㅍ, ㅊ, ㅌ, ㅎ 등 아홉 자는 가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획자이며, ㅇ, ㆁ, ㄹ 등 세 자는 이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체자라고 보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형, 가획, 이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을 각각 분리해서 파악할 때의 문제점은, 상형, 가획, 이체 등의 제자 원리가 각각 별개의 원리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형자, 가획자, 이체자를 서로 관련이 없는 글자들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해>에서는, 상형에 의해 기본자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새로 만든 초성자는 물론 중성자도 모두 상형자라고 밝힌 것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상형자, 가획자, 이체자가 각각 아무 관련이 없는 개별적 제자의 결과라면 이 진술은 현실과는 다르게 상형의 원리를 중시하는 선언적인 진술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과연 새로 만든 모든 문자가 상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진술은 선언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일까요? <제자해>의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이 진술은, 그 이하의 내용을 포괄하는 설명으로서 일종의 전제에 해당하고, 이 뒤에 이어진, 아음 ㄱ을 상형해서 만들었다는 설명 이하의 내용은 이 포괄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성자 중, 가획자나 이체자도 모두 상형자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내용 구성 체계를 중시해 보면, 가획자나 이체자는 기본적으로 상형자인데, 가획이라는 유표적 원리를 더 가진 초성자가 가획자, 이체라는 유표적 원리를 더 가진 초성자가 이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획자는 기본적으로 상형자에 획을 더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상형자의 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가획자를 상형자의 하나라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획자 ㅋ는, 상형자 ㄱ의 형상을 유지한 채 획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상형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상형자 ㆁ이나 ㅌ 역시 기본적으로 상형자 ㄴ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상형자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체자라고 불렀던 초성자들을 상형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ㅇ은 일반적으로 이체자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는 부정확한 이해입니다. <제자해>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ㅇ은 이체자가 아닌 가획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조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ㅇ을 상형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자해>의 설명을 마친

뒤 그 내용을 한시의 형식으로 요약한 ‘결(訣)’에서 “아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취했으나, 오직 ㅇ은 ㅇ과 흡사하여 취한 뜻이 다르네.”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해 결’에서 “정음을 만들 때는 상형을 우선했고, 소리의 거셈에 따라 매번 획을 더했네.”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에 대해, 아음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한글을 만들 때 우선했다는 상형을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즉 아음의 상형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떴지만, 오직 ㅇ은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뜻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ㅇ도 상형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인데, ㄱ, ㅋ 등 다른 아음자와는 다른 모습을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ㅇ이 취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해>의 해당 본문에 가서 확인해 보면, ㅇ과 ㅇ이 운서에서도 혼동해 쓰일 정도로 흡사한 소리라서 그 현실을 고려해 목구멍의 모습을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따르면, 발음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ㅇ은 기본적으로 목구멍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인 것입니다. ㅇ과는 달리 ㅇ은 수직의 획을 더 가진 가획자인데(ㅇ이 가획자라는 사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가획자들과 마찬가지로 가획을 하기 전 상형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체자인 ㄹ, ㄺ이 상형자라는 사실은 <제자해>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해>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반설음 ㄹ과 반치음 ㄺ 역시 혀와 이의 모습을 본떴으나, 그 체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한 ‘결’에서도 반설음과 반치음이 모습을 취했음을 같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ㄹ은 혀의 모습을, ㄺ은 이의 모습을 본떴다는 사실, 곧 ㄹ과 ㄺ이 상형자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ㅇ, ㄹ, ㄺ을 모두 이체자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이 사실과 다르고, ㅇ은 가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자해>에는 중국에서도 쓰였던 구두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때 구점(句點)은, 현재의 문장 단위와 유사하게, 그 자체로 완결된 글의 의미 단위를 표시합니다. 이에 비해 두점(讀點)은 현재의 구 단위와 유사하게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 단위가 아니라 완결된 의미 단위의 부분임을 표시하는 점입니다. 구점이 표시하는 단위를 현재의 문장으로 비유하자면, 구점은 문장 단위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고, 두점은 문장의 성분인 구 단위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구점은 원문 한문의 오른쪽 아래에 권점으로 표시하고, 두점은 원문 한문의 중앙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구점과 두점을 구분해서, <제자해>에서 가획자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자 5자를 어떻게 상형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구점이 달려 있어 완결된 “喉音ㅇ 象喉形”으로 끝나고, 이어 가획의 원리를 설명한 “ㄱ은 ㄱ에 비해 약간 소리가 세게 나므로 획을 더한다.”가 완결된 뒤, 이런 가획자를 설명하는 “ㄴ而ㄷ ㄷ而ㅌ”부터 “ㅎ而ㅎ 其因聲加畫之義 皆同 而唯ㅇ爲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임을 구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ㅇ은 가획자를 설명하는, 현재의 문장에 가까운 의미 단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반설음 ㄹ과 반치음 ㄺ은 이체를 다루는 의미 단위에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가획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의 구점에 의해 분절된 의미 단위를 고려하면 ㅇ은 가획자를 다루면서, ㄹ과 ㄺ은 가획의 의미가 없는 이체자를 다루면서 각각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ㅇ과 ㄹ과 ㄺ을 모두 같은 이체자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해 결>에서도, ㅇ은 상형과 가획에 의한 제자를 설명하는 앞 부분에서 요약하고 있고, 이와는 다른 장면에서 ㄹ과 ㄺ을 이체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자해>의 체제와 설명 방식을 볼 때, ㅇ은 가획자이고, ㄹ과 ㄺ은 이체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획자라면 오직 ○은 나머지 가획자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것은, 다른 가획자들의 경우, 가획 전의 소리에 비해 소리가 약간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에 따라서 셀 때 획을 더하는 것인데, ○만은 ○에 비해 소리가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에서 더해진 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제자해 결>에서는 ○만은 ○과 흡사해서 취한 뜻이 다르다고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취한 뜻’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자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과 ○의 소리가 운서에서도 혼동해서 쓸 정도로 흡사하기 때문에 아음임에도 목구멍 모양을 취했음을 밝히고, ○이 아음이면서도 후음 ○과 흡사한 사실을 5행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행에 따르면 아음은 목(木)에 속하고 후음은 수(水)에 속하는데, 아음 ○과 후음 ○이 흡사한 것은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 흡사하지만, 싹이 있는 아음이라는 사실을 획을 더해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획의 의미는, 소리에 따라서 획을 더한 나머지 가획자들과는 매우 다른 것임은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ㄹ, ㅅ이 이체인 자라고 했을 때 이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제자해>에서 ㄹ, ㅅ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점에 의해서 가획자를 설명한 단위와는 다른 단위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획지의(加劃之義)”가 없다는 부분은 이전의 글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ㄹ과 ㅅ을 이체자라고 할 때의 이체자는 이체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체자라고 하면 한자의 ‘默’과 ‘黙’이나 ‘明’과 ‘明’, ‘土’와 ‘土’처럼 다른 자체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는 자를 가리키므로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이체자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ㄹ과 ㅅ에 대해서 <제자해>에서는 “역시 혀와 이의 모습을 본뒀으나 그 체가 다르다.(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라고 하고 있고, <제자해 결>에서는 “모습을 취한 것은 같지만 체는 다르다.(取象同而體則異)”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이때의 ‘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ㄹ이 혀의 모습을 상형한 자이고, ㅅ이 이의 모습을 상형한 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혀의 모습을 상형한 자로는 이미 ㄴ이 있고, 이의 모습을 상형한 자로는 이미 ㅅ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혀와 이의 모습을 상형해서 반설음자와 반치음자를 만들려면, 각각 ㄴ이나 ㅅ과는 다른 자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체’를 달리한다는 것은 기본자와 구별되도록 상형한 자체를 달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이때의 ‘체’는 자체(字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가획자는 상형한 자를 바탕으로 획을 더한 글자여서 상형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형자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체자도 상형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이므로 상형자의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획자와 이체자 모두 상형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각각 상형자 가운데 가획의 원리가 더 적용되어 제자되거나 기본자와 자체를 달리 해서 제자되었다는 점에서 유표적인 원리가 더 적용되어 제자된 것이지요. 따라서 훈민정음 초성자의 제자 원리는, 가장 상위의 원리가 상형의 원리이고 그 하위 원리로 가획과 이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은 ㄹ, ㅅ과는 전혀 다른 가획자이고, 이체자는 ㄹ, ㅅ만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만들 때 주목되는 것은, 당시의 한국어의 초성을 모두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표기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로 만드는 초성자는 최소화해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초성자들을 나란히 늘어 쓰거나 위아래로 붙여 쓰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초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 결과, 새로 만든 동일한 초성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와 새로 만든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의 방법으로 된소리나 어두자음군을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음자 아래 후음자 ㅅ을 연서하는 방법으로 당시의 순경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병이 한국어 표기에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병서나 연서 등은 새로 문자를 만드는 원리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문자들을 조합해서 운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형, 가획, 이체의 원리로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와 함께 각자병서자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해서, 각자병서도 제자 원리의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병서자 ㄱ, ㄴ 등은 새로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 새로 만든 ㄱ, ㄴ을 나란히 쓰는 운용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초성자 17자와 각자병서자 6자를 해례본에서의 설명을 토대로 분류해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제 중성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 중성자의 제자 원리

한글의 중성자 역시 기본자를 상형에 의해 만들고, 이들이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중성자를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성자는 구체적인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형해서 기본자를 만들고, 소리의 성질 등의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초성자들을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중성자의 제자 원리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천지만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재료인 ‘천, 지, 인’ 3재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상형하여 기본자 3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둥근 모습을 본따서 ㆍ를 만들고, 땅의 평평한 모습을 본따서 ‘一’를 만들었으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따서 丨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천지만물의 기본 재료인 삼재가 합쳐져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본따서, 기본 중성자 ㆍ, 一, 丨가 합이성(舍而成)함으로써 나머지 중성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처음 교합하는 의미를 취해서 ㆍ와 一가 합이성한 ㄴ와 ㄷ를 만들고, 천지의 용(用)이 사물에 발현되지만,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취해서 ㆍ와 丨가 합이성한 ㅏ, ㅑ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들 글자는 모두 획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一와 丨를 제외한 획은, 하늘을 상형한 둥근 점이었습니다. ㄴ, ㄷ, ㅏ, ㅑ는 3재의 교합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 나온 글자라는 의미에서 ‘초출자’라고 합니다.

초출자들이 ‘起於丨’, 즉 丨음으로부터 일어난 의미를 취한 것이 ㄴ, ㄷ, ㅏ, ㅑ 등의 4자입니다. 이들은 3재가 두 번째로 합이성하여 만들어진 중성자이므로 재출자라고 부릅니다. ㄴ, ㄷ, ㅏ, ㅑ에서 두 점은 모두 하늘을 상형한 둥근 점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점의 가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 소리가 丨로부터 일어나는 소리기 때문에, 맨 앞에 찍은 점은 ㆍ가 아니라 丨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획으로 표시하지 않고 점으로 표시한 것은 문자 운용을 위한 디자인적인 고려는 물론, 점의 개수로 초출과 재출을 의미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인위적 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출자의 앞 점이 丨의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은, <제자해>에서 이들 재출자가 모두 인(人)을 겸하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중성자 ㆍ, 一, 丨 3자와 이들이 합이성한 초출자 ㄴ, ㄷ, ㅏ, ㅑ 4자, 초출자가 丨로부터 일어난 재출자 ㄴ, ㄷ, ㅏ, ㅑ 4자 등 총 11자의 중성자를 새로 만든 후, 당시의

다른 한국어 중성은 이들 11자의 중성자들을 나란히 쓰는 병서의 방법으로 표기했습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의 병서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성자의 경우도 새로 만드는 중성자는 최소화해서 제자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다른 중성들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제적인 제자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중성자의 경우도, 상형자는 ㆍ, 一, | 3자뿐이고 나머지는 합이성자로 보아서 상형과는 무관한 중성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인식이 아닙니다. <제자해 결>에서는 중성 11자도 형상을 취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해>의 앞 부분에서 정음 28자가 모두 상형해서 제자했다는 진술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중성자는 물론이고, 초출자 4자와 재출자 4자 등도 역시 상형자인 것입니다.

이때, <제자해>에서 기본 중성자와는 달리 상형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초출자와 재출자가 상형자라면, 어떤 의미에서 상형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초출자와 재출자가 모두 기본 중성자들이 ‘합이성’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ㄴ나 ㄷ, ㅂ나 ㅅ 등의 중성자 속에, 하늘을 상형한 ㆍ나 땅을 상형한 一, 사람을 상형한 | 등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출자나 재출자들은 모두 상형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ㄴ는 상형자 ㆍ와 상형자 一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므로 하늘과 땅의 교합이라는 상형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성자의 제자 원리 역시 가장 상위의 원리는 상형이고 그 하위 원리로 합이성이라는 유표적 원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성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 중성자의 제자 원리

한글을 만들 때, 초성과 중성을 표기하기 위한 초성자와 중성자는 따로 만들었지만 중성을 표기하는 중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가져다가 중성자로 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쓴 <예의>에서 말한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글 창제의 독창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성자와 중성자는 비록 상형이라는 큰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성자는 발음기관을, 중성자는 삼재를 상형함으로써 다른 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성과 중성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형으로 글자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성과 중성의 성격이 달라서 초성자와 중성자의 자형을 달리 만들었음을 고려할 때, 만일 이들 소리와 중성자가 또 다른 성격의 소리라고 판단했다면 중성자도 또 다른 자형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초성자를 중성자로 다시 가져다 쓰고 있으니, 이러한 조치는, 중성이 초성과 같은 소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성과 중성이 동일한 소리라는 인식은, 20세기 이후 현대 음운론에서의 음소 개념과 유사한 것입니다. 위치에 따라 변이음으로 실현되더라도 하나의 음소라는 현대 음운론적 인식과, 초성이든 중성이든 위치에 관계 없이 동일한 소리라는 인식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성을 다시 중성으로 가져다 쓰는 방식은, 파스파 문자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 만큼 이러한 제자 방식이나 중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파스파 문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파스파 문자에서는 중성음을 표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자음+ㅂ’의 음을 가진 음절자를, 해당 음절자 아래에 붙여쓰는 방식을 보이고 있어서, 그 방식은 중성부용초성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벳 문자의 영향을 받은 파스파 문

자는 기본적으로 음절문자로서, 순수히 초성만을 표기하는 문자가 없으며, 독립된 음절자가 아님을 표시하기 위해 위의 문자와 밀접하게 붙여 적는 등의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글에서 오로지 초성, 즉 자음을 표기하는 자를 그대로 종성 위치에 가져다 적는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파스파 문자의 종성 표기 방식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타당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종성에 대한 인식은, 음절 3분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운학의 음절 2분법에서는, 음절에서 중성과 종성의 결합한 부분을 하나의 운모로 보는 데 비해, 음절 3분법에서는 이를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성에 대한 인식은, 문자를 만들면서 파스파 문자 등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한국에 존재 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차자 표기에서 보이는, ‘冬乙(겨슬)’, ‘有 ㄷ(잇-)’, ‘異次(잇-)’ 등의 말음첨기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冬乙’의 ‘乙’은, 이 차자 표기가 표기한 ‘겨슬’의 말음 ㄹ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有 ㄷ’의 ㄷ은 차자 표기한 어간 ‘잇-’의 말음 ㅅ을, ‘異次’의 次는 차자 표기한 어간 ‘잇-’의 말음 ㅈ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음첨기는 차자 표기한 어형의 말음, 곧 종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자 표기 방식을 사용해 온 한국에서는 종성에 대한 인식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오로지 외부의 이론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님은, 당시에 형태소 경계의 연음을 연결 표기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의 결합에서 선행 명사 ‘집’의 종성 비이, 실제 발음에서는 [지비]와 같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당시에 연음된 대로 ‘지비’와 같이 적고 있으니, 결국 이는 앞 음절의 종성을 뒤 음절의 초성에 적은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초성과 종성이 별개의 소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종성 위치에 가져다 쓰도록 하면서, ‘아고, 훤, 닭, 닭고’ 등에서 보듯 바와 같이 종성 위치에서도 초성 위치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종성해>에서는 종성에서의 병서가 3자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晝晝(酉時)’의 예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위한 것일 뿐, 종성에서의 ㄹ은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병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든 초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종성자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 한글의 음절 표기 방식

새롭게 제정한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들로 한국어를 표기할 때에는 이들 글자를 죽 늘어놓는 방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글자를 한국어의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습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 음소 단위로 제정한 글자들을 실제 표기에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음소문자인 한글이, 표기 단위로 보면 음절에 대응되어 음절문자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새롭게 문자를 만드는 제자 원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만, 새로 만든 글자들을 실제로 어떻게 표기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성자와 중성자, 종성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한 것은, 물론 초성, 중성, 종성 각각의

소리가 그 자체로는 독립된 음절을 이룰 수 없다고 본 인식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서 써야만 음절을 이룬다.(凡字必合而成音) <해례본 예의>”나 “초중종 3성은 합쳐진 뒤에야 음절자를 이룬다.(初中終三聲 合而成字) <해례본 합자해>” 등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등 음절의 부분음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고 이들이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성모와 운모가 합쳐져 한자음을 이룬다고 보는 성운학의 인식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들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은, 당시 한자와 고유어를 함께 쓰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 세종은 《용비어천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자와 한글을 병용하는, 이른바 국한문 혼용 방식의 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표기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인 한자와 함께 쓰는 고유어의 한글의 표기 단위도 음절 단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합자 방식은 한자와의 병용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전의 차자 표기에서도 음절 단위로 차자되어 표기되었다는 사실 역시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만들던 당시의 음절 단위의 실제 표기에서, 한국어 고유어 표기와 한자음 표기가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고유어에서는 ‘사름’에서와 같이 종성이 채워져 있든, 종성 없이 초성과 중성만이 결합해 있든 음절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는 모든 한자음 표기는 종성자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世聲’, ‘御聲’, ‘製聲’, ‘斗聲’ 등과 같이 실제로는 종성이 없는 한자음임에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종성 위치에 ㅇ이나 ㅁ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15세기말부터 나온 현실 한자음 표기에서는, 고유어 표기에서와 같이 초성과 중성만의 결합으로도 음절자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성자와 중성자, 종성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함으로써, 한글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가로쓰거나 세로쓰기 모두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음자와 모음자를 늘어놓는 식의 표기 방식에 비해, 표기 단위를 통해 음절을 드러냄으로써 가독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소문자인 한글이 음절문자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한 합자법의 결과인 것입니다.

9. 정리

지금까지, 한국의 자유로운 문자 생활이 가능하게 한 문자, 한글이 어떠한 성격을 지닌 문자이고,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글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적는 음소문자입니다. 예전에 ‘훈민정음’, ‘정음’, ‘언문’ 등으로도 불리던 이 문자는 20세기 이후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 한글의 창제는 한국의 문자 생활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와 한문을 통해서는 물론 차자 표기로도 한국어 요소를 온전하게 표기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문자 생활의 불편함이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한글의 창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새롭게 만드는 문자가, 그동안의 문자 생활에서 배제되었던 백성들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세종의 애민 정신이 또 하나의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의 창제는 백성들이 문자 생활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문자 생활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3) 한글을 만들면서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언어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을 폭넓게 섭렵하여,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개념을 변형하기도 하는 비판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언어 풍토관에 입각한 한글 창제의 당위성을 확보했는가 하면, 당시의 주류 이론이 중국의 음절 2분법을 버리고,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분하는 방식을 수용하여 제자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4) 초성자는 아, 설, 순, 치, 후 5음 각각의 기본자들을 발음기관의 형상을 상형해서 ㄱ, ㄴ, ㄷ, ㄱ, ㅇ 5자를 제자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 5음 중 같은 음에 속하면서 소리가 조금 세게 나오는 소리는 획을 더해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등의 9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의 현실 발음을 반영하되 차별성을 오행으로 표시해 가획함으로써 ㅇ도 만들었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기본자와 똑같이 혀와 이의 모습을 상형하면서 기본자와는 자체를 달리해서 ㄹ, ㅅ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초성자는 모두 상형자로서, 가획자는 가획의 원리를 더 가진 상형자이고 이체자는 이체의 원리를 더 가진 상형자입니다. 또한 ㅇ은 가획자이며, 이체자는 ㄹ과 ㅅ뿐입니다. 한글을 만들 때 새로 만든 초성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들을 병서, 연서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다른 초성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5) 중성자는 천지인 삼재를 상형하여 ㅡ, 一, 丨를 만들고, 이들이 처음 교합하는 의미를 표시하도록 기본 중성자가 합이성한 초출자 ㅊ, ㅊ, ㅊ, ㅊ를 만든 뒤, 초출자가 丨로부터 일어나는 재출자 ㅊ, ㅊ, ㅊ, ㅊ를 만들었습니다. 재출자의 첫 등근 점은 丨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상형에 의해 만든 기본 중성자는 물론, 기본 중성자들이 합이성한 초출자와 재출자 모두 상형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 상형자입니다. 중성자들도 새로 만드는 문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만들어진 중성자들을 병서하는 방식으로 다른 중성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6)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종성자로 가져다 썼습니다. 이는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파스파 문자로부터 차용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전의 차자 표기 등을 볼 때 종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고,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은 당시의 연철 표기를 통해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초성자와 중성자, 종성자 등은 그 자체로는 음절자가 될 수 없고 이들이 결합해야만 음절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들 글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서 적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음절 단위의 합자법은 음절문자인 한자와의 병용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고, 이전 차자 표기의 차자 및 표기 단위가 음절이었던 점에 의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음소문자인 한글이 음절문자와도 유사해 보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문제 (5분)

1. 초성자의 제자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 <초성해>에 설명되어 있다. (O/X)

정답: X

2. 한글은 그간의 동아시아의 성운학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O/X)

정답: X

3. 한글 창제 이전 차자 표기법으로는 한국어를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웠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중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문자 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한국에서 차자 표기된 요소는 비정상적인 한문을 만드는 저열한 것으로 보았다.
- ② 한국의 지배층은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했기 때문에 문자 생활의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했다.
- ③ 한국어의 질서와는 다른 한문의 질서대로 적어야 하는 언문괴리의 상태였다.

정답: ②

2. 다음 중 이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한글 자음의 이체자는 ㄹ, ㅍ이며 ㅇ는 가획자로 보아야 한다.
- ② 이체자에서 체가 다르다는 것은 자체가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한글의 이체자라는 용어는 한자의 이체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정답: ③

3. 다음 중 중성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중성자는 구체적인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영해서 기본자를 만들었다.
- ② ㅟ, ㅠ, ㅚ, ㅓ에서 두 점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 ③ 중성자 중에서 상형자인 글자는 ㆍ, 一, | 뿐 아니라 초출자, 재출자도 모두 포함된다.

정답: ③

단답형 (5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표기하는 소리의 자질도 표시하는 문자를 ○○○○라고 한다.

정답: 자질문자

2. 완결된 글의 의미 단위를 표시하는 점을 ○○, 문장의 부분을 표시하는 점을 ○○이라고 한다.

정답: 구점, 두점

3.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을 합쳐서 ○○이라고 한다.

정답: 5음(오음)

나. 토의 (30분)

1. 한글 초성자의 제자 방식과 그 예를 설명하고, 제자된 초성자의 운용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술해 봅시다.
2. ㅇ를 이체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한글은 음소문자이지만 음절별로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쓰는 음절문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글이 다른 음소문자들과 다른 이러한 음절식 조합법을 씌으로써 생기는 장단점을 설명하고, 모아쓰기와 풀어쓰기 중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할지 그 근거와 함께 써 봅시다.

■ **참고자료**

『동국정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훈민정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강신항(2003),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G. Sampson(2000), 『세계의 문자체계』, 한국문화사.

<7차시> 한글 창제 이후 한글 표기법의 변화

■ 학습목표

1. 의미와 형식에 따른 문자의 분류를 알아본다.
2. 한글의 문자 부류를 파악하고 한글 맞춤법의 두 방식을 이해한다.
3. 한글 맞춤법 변화에서 살펴보아야 할 요소를 확인한다.
4. 15~20세기에 걸친 한글 맞춤법의 변화를 살펴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표기법의 원리
3. 15세기의 한글 표기법
4. 16세기의 한글 표기법
5. 17~19세기의 한글 표기법
6. 20세기의 한글 표기법
7.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 생활사,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한글을 만들면서, 한문과 한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문자생활을 시작한 이후, 어떻게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해 왔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어의 질서와는 다른 한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어가 불완전하게 반영되어 표기되던 차자 표기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표기할 수 있게 된 한국에서의 문자생활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자민족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를 만든 이후의 문자생활의 양상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한글 표기법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일의 의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자민족의 언어와는 다른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얼마나 다양한 자민족의 언어 현상을 표기할 수 있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인 동시에, 다양한 자국어 현상이 반영될 수 없었던 한문이나 한자를 이용한 중국 주변 민족들의 문자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정확했던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한글 표기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표기법의 원리

사람의 말, 즉 언어는 일정한 소리가 일정한 의미를 표시합니다. 즉 언어는 의미 내용을 일정한 소리 형식이 표시하는 기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문자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언어의 두 측면, 곧 의미와 소리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해서 적을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표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의미를 중시해서 적는 방법입니다. 이를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의 표기라고 해서 표의주의 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달리 언어의 소리를 중시해서 표기를 통해 소리가 잘 드러나도록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표기라고 해서 표음주의 표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의주의 표기와 표음주의 표기를 언어를 표기하는 두 가지 큰 원리라고 말합니다.

표의주의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를 표의문자, 즉, ideogram이라고 합니다. 표의문자의 대표적인 예는 특정한 언어 형식이 아니라 의미 자체를 그림으로 표시한 상형 문자 이전의 문자인, pictograph 또는 pictogram이라고 부르는 그림문자입니다. 그림문자는 그림 자체가 의미를 표시할 뿐 일정한 언어 형식과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 그림문자가 발달한 것이 상형문자라고 보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상형문자, hieroglyphic은 일정한 모습을 본뜬 형상이 일정한 언어 형식, 주로 단어에 대응하는 문자로서 이집트의 상형문자, 한자 중 상형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여담을 한 가지 하자면, 문자의 발달 과정에서 볼 때 그림문자가 가장 유치한 단계의 것이라고 보는 일이 일반적인데요, 최근 아이콘이나, 컴퓨터 문자를 조합해서 만든 ππ, ^^, ^-^, OTL 등의 이모티콘, 😊, 😞, ♥ 등의 이모지[絵文字(えもじ, emoji)] 등과 같은 일종의 그림문자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문자 발달 과정에서 볼 때 매우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음주의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표음문자, 곧 phonogram에는 언어의 소리 단위 중 음절을 표기한 음절문자(syllabary)와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표기하는 음소문자(phonemic writing)가 있습니다. 음절문자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가나 문자이고, 음소문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알파벳과 한글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분명히 표음문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한다고 해서 모두 표음주의 표기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표음문자인 한글이지만, 이를 이용해서 소리를 더 중시해서 적을 수도 있고, 의미를 더 중시해서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소론적 표기나 형태음소론적 표기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음소론적 표기는, 기본적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언어의 음소를 밝혀 적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표기 대상인 어형의 자음과 모음을 밝혀 적는 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의 실제 발음은 [바블 멩는다]입니다. 이 발음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밝혀 적는 것이 음소론적 표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음대로 ‘바블 멩는다.’로 적게 되겠지요.

이와는 달리 형태음소론적 표기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형태음소를 밝혀 적는 표기라는 말입니다. 형태음소(morphophoneme)란 형태소를 이루고 있는 음소를 가리키는데, 다양하게 실현된 이형태들을 분석하여 형태소를 분석해 냈을 때, 그 형태소를 이루고 있는 음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활용형이 [먹꼬]로 실현되는가 하면,

어미 ‘-어’가 결합하면 [머거]로 실현되고, 어미 ‘-니’가 결합하면 [멍니]로 실현됩니다. 이때의 어간 형태소는 다른 이형태들의 실현형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먹-’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간 형태소의 형태음소는 ‘ㄹ, ㄱ, ㄴ’이 되는 셈이지요. 명사의 예로 더 설명하자면, 어떤 명사에 조사 ‘도’가 결합한 어형이 [입또]로 실현되고, 조사 ‘이’가 결합하면 [이피]로, 조사 ‘만’이 결합하면 [임만]이 됩니다. 이때 명사 형태소는 다른 이형태로의 실현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잎’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형태소의 형태음소는 ‘이, ㅍ’입니다. 형태음소론적 표기란 바로 이 형태음소를 밝혀서 적는 표기법을 말합니다. [멍는]의 어간 형태소의 형태음소는 ‘먹-’이므로 이를 밝혀서 적게 되면 ‘먹는’과 같이 적히게 됩니다. 또 [입또]의 경우에는, 명사 형태소의 형태음소를 밝혀 적으면 ‘잎’이 되고, 조사 형태소의 형태음소를 밝혀 적으면 ‘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어형은 ‘잎도’와 같이 적히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음소를 밝혀 적게 되면 그 표기형이 실제 발음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소들의 결합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형태음소론적 표기는, 달리 말하면 실제 발음이 어땠든 형태소를 고정시켜서 적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기를 통해서 실제 소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단위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표기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음소론적 표기는 표기를 통해서 실제 발음, 즉 소리를 밝혀 적는 표기가 되고, 형태음소론적 표기는 표기를 통해서 의미 요소를 밝혀 적는 표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소론적 표기는, 소리를 중시해서 적는 표음주의 표기라고 할 수 있고, 형태음소론적 표기는 의미를 중시해서 적는 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花, flower”를 의미하는 한국어 명사에 조사 ‘이’와 ‘도’, ‘만’ 등이 결합한 어형의 경우 실제 발음을 충실하게 드러낸 음소론적 표기라면 각각 ‘꼬치’, ‘꼐또’, ‘꼐만’ 또는 ‘꼐만’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형태음소론적 표기라면 여기 각 형태소들의 형태음소를 밝혀서, 곧 형태소를 고정시켜 적어서 각각 ‘꽃이’, ‘꽃도’, ‘꽃만’으로 표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음소론적 표기를 철저히 적용한다면, 실제 발음을 충실히 적게 되니 음절말 중화 현상이나 경음화 등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형의 실제 소리가 표기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표기 방법은 한국어의 발음과 그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의 대응 관계를 익히기만 하면, 발음만 듣고도 그 어형을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꼬치’, ‘꼐또’, ‘꼐만’ 또는 ‘꼐만’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여기에서는 단어)가 다양하게 적히기 때문에, 표기형만으로 이들이 모두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어형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는, ‘꽃이’, ‘꽃도’, ‘꽃만’에서와 같이 형태음소를 밝혀서, 곧 형태소를 고정시켜서 적게 되기 때문에 음절말 중화 현상과 같은 음운 변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침 위치에서 모든 자음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꽃이’와 같이 형태소끼리 결합한 경우, 각각의 형태소를 고정시켜서 적기 때문에 이른바 각 형태소를 끊어서 적는 분철 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표기는 실제 발음과 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차이를 파악해서 적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정확하게 적기에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하나의 형태소가 고정되어 적히기 때문에 표기된 결과들을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적은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소론적 표기의 장점이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는 단점이 되고, 음소론적 표기의 단점이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표

기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은 표기 방법이라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현재 한국의 표기 규범인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을 취하지 않고, 각각의 두 표기 방법 중 장점이 살 수 있는 경우를 선별해서, 형태음소론적 표기의 장점이 살 수 있는 경우에는 형태음소론적 표기 방법을, 음소론적 표기의 장점이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음소론적 표기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표기 방법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나 규칙적인 활용형, 생산적인 접사 등은, 쓸 때의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표기형을 통해 의미를 쉽게 파악하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형태음소론적 표기 방법을 적용하고, 불규칙 활용, 비생산적인 접사, 어원에서 멀어진 경우 등과 같이 굳이 어렵게 형태소를 밝혀 적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음소론적 표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표기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음소론적 표기와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 각각 나타나는 특성을 기준으로, 각 시기의 한글 표기형 어떠한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예를 들자면, 음운 변동 가운데 음절말의 평폐쇄음화, 곧 음절말 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영해서 적는 음소론적 표기에서는 음절말 위치, 곧 받침 위치에 7가지 종류의 자음만이 표기되는 데 비해,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는 음운 변동과 무관하게 형태소를 고정시켜 적기 때문에 받침 위치에 모든 자음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표기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선 받침 위치에 몇 종류의 자음이 표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침 위치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변화한다면, 한글 표기법은 음소론적 표기와 형태음소론적 표기 두 방법 사이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기별 한글 표기법이 음소론적 표기인지, 형태음소론적 표기인지를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각 시기의 한글 표기가 연철 표기인지, 분철 표기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음소론적 표기라면, 실제 발음이 반영되어 적힐 것이므로, 어느 시기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연음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어 연철 표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 비해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라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형태소를 끊어서 고정시켜 적기 때문에 분철 표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음소론적 표기라면 실제 발음이 반영되어 적힐 것이므로, ‘임만(임+만)’, ‘멍니(멍+니)’에서와 같이 음운 변동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는 음운 변동이 반영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어 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일도 시기별로 두 가지 표기 가운데 어떤 표기가 적용되었는지를 살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한글 표기법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현상 가운데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의한 중화나 뒤에서 살펴볼 15세기부터 16세기 전반기에 나타나는 ㄱ의 약화 현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한글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글 표기에 반영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물론 한글이 만들어진 직후인 15세기 이후 한글 문헌에 ‘달ㄴ나라’가 ‘다ㄴ나라’로 표기되어 나온다는지, ‘듣니-’가 ‘듣니-’로도 표기되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규칙적으로 표기에 반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따라서 음운 변동이 한글 표기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는 한글 표기법의 변화와 관련해서 살펴볼 주요 현상임에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후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한글 맞춤법>과 과거의 한글 문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띄어쓰기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데 비해서, 현재는 띄어쓰기를 적용

하여 표기하고 있지요. 따라서 띄어쓰기는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것도 한글 표기법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헌에서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표기된 예는 1896년의 <독립신문>에서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한글 문헌들에서는 띄어쓰기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자음자와 모음자를 늘어쓰는 영어 알파벳 표기와는 달리 한글은 만들어진 직후부터 음절 단위로 모아 썼기 때문에 띄어쓰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신문> 이전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는 한글 표기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띄어쓰기도 한글 맞춤법의 변화를 살피는 자리에서 굳이 자세히 살피지는 않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글 표기법의 변화를 살필 때 주요하게 검토해 보는 대상은 음절말 위치, 끝받침 위치에 몇 종류의 자음이 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분철과 연철 표기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적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중심으로 15세기 이후 한글 표기법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3. 15세기의 한글 표기법

1443년 한글이 만들어지고 1446년 반포된 뒤, 이듬해인 1447년부터 한글 문헌이 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15세기말까지의 한글 문헌을 대상으로 어떠한 표기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시기는 최초의 한글 표기가 나타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글을 만들면서 이들 자모를 음절 단위로 모아 썼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음절 단위로 모아 쓸 때의 구체적인 방법이 《훈민정음》 해례에서 세종이 작성한 <예의>에서 ‘부서(附書)’로 설명하고 있고, 집현전 학사들이 작성한 <합자해>에서도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이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ㄱ, ㅋ, ㆁ, ㆁ, ㆁ 등과 같이 세로획이 있는 중성자는 초성자의 오른쪽에 붙여서 ‘기, 나, 더, 래, 메’ 등과 같이 적고, ㅡ, ㅏ, ㅑ 등과 같이 가로획이 있는 중성자는 초성자의 아래에 붙여서 ‘ㄱ, ㄴ, ㄷ, ㄹ’ 등과 같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성자 중 ‘ㄱ, ㄴ, ㆁ’ 등과 같이 가로획과 세로획이 모두 있는 병서자의 경우는, 이런 방법들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미’의 경우 초성자와 가로획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ㅁ’를 적고 그 뒤에 ㅏ를 병서해서 ‘미’와 같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뉘’ 역시 이런 순서대로 적은 예입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표기된 예들을 살펴보면, 초성자와 세로획이 있는 중성자를 부서했을 경우, 초성자나 중성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서한 글자 전체의 아래에 중성자가 오도록 적고 있습니다. ‘꺇, 난, 덜, 맴’은 물론, ‘꺇, 님’ 등의 예를 보면 중성자가 초성자와 중성자를 부서한 그 전체의 아래에 중성자가 오도록 적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성자와 가로획의 중성자가 부서된 글자 아래에 중성자를 적을 경우에는, ‘꺇, ㄴ, ㄷ’ 등과 같이 그 초성자와 중성자를 부서한 아래에 초성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중성자를 부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기에는 이렇게 부서되어 있는 음절자의 좌측에 방점으로 그 음절의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당시의 성조는 가장 낮은 소리인 평성, 가장 높은 소리인 거성,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인 상성이 있었는데, 그 음절이 평성인 경우에는 아무런 점을 찍지 않고, 거성인 경

우에는 점을 하나를 찍어서 표시하며, 상성인 경우에는 점을 두 개를 찍어서 표시했습니다. 입성은 음절의 높낮이와는 무관하게, 음절 말음이 폐쇄음이어서 빨리 끝나는 소리가 입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성이면서 평성인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입성이면서 거성인 소리, 입성이면서 상성인 소리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점은 오로지 그 음절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5세기의 한글 표기가 어떠한 표기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한글 창제 직후인 15세기의 문헌들에서는 받침 위치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 8가지 종류의 자음만이 표기되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 고졸’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한 경우를 통해서 이 명사의 마지막 형태음소는 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명사 형태소는 ‘꽃’(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도’가 결합한 어형은 ‘꽃도’와 같이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형태소 ‘꽃’에 ‘도’가 결합했을 때의 형태음소론적 표기는 ‘꽃도’이니, 실제 나타나는 ‘꽃도’라는 표기형은 이때의 소리를 반영한 음소론적 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음절말에서 ㅈ이 ㅅ으로 변화한 현상이 나타났고 표기에서는 이런 음운 변동을 적용하여 표기한 것이지요. 이런 표기는 ‘마자’에서 알 수 있는 동사 어간 형태소 ‘맞-’(迎)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져’가 결합한 활용형이 ‘맞고져’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니피’, ‘기퍼’에서 각각 확인되는 명사 ‘잎(葉)’과 형용사 어간 ‘깊-’이, 자음 형태소와 결합했을 경우, ‘닙마다’, ‘깊고’와 같이 표기됩니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잎’의 마지막 형태음소 ㅍ이 음절말에서 ㅂ으로 평폐쇄음화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15세기에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데, 표기에서 이 음운 변동을 반영해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절말에서 ㅋ이 ㄱ으로, ㅌ이 ㄷ으로, ㅍ이 ㅂ으로 바뀌는 평폐쇄음화가 15세기에 존재했고 실제 표기에서 이 현상을 반영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훈민정음》 해례의 <종성해>에서는, 종성에는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 등의 8자만을 쓰기에 가히 족하다고 하면서, “배나무 꽃”은 ‘빛꽃’으로, “여우의 가죽”은 ‘엿의 갖’으로 적을 수 있지만, 이때의 종성에는 ㅅ으로 모두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절말에서 ㅈ, ㅊ, ㅌ 등의 소리가 모두 ㅅ으로 중화되는 현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ㅅ만으로 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기는 대부분 규칙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종성해>의 이 설명은, 당시에 음절말 평폐쇄음화 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에 종성자로 8종류의 글자만을 쓸 수 있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에 음절말 평폐쇄음화 등의 음운 변동에 의한 중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해서 8가지 종류의 종성자만을 사용한 표기법을 <종성해>의 진술에 따라서 ‘8종성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실제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한글 표기법과는 다른 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종성해>의 진술과 달리 ‘앗이’나 ‘긔어’와 같이 ㅌ이 종성 위치에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15세기에 종성 위치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은 실제로는 9가지 종류인 셈이고, 따라서 당시의 받침 표기법은 엄밀하게 말해 9종성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절말에 ㅌ으로 표기된 ‘긔어’, ‘앗이’ 등은 같은 시기의 한글 자료에서 ‘긔어’, ‘앗이’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보이는 등, 이 시기가 음절말의 ㅌ이 ㅅ으로 중화되는 현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표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성 표기법을 편의상 8종성법 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절말에 여덟 종류의 자음만이 표기되는 8종성법 받침 표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음절

말에서 ㄷ과 ㅅ이 구별되어 적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낱’과 ‘낫’에서 보듯이 음절말의 ㄷ과 ㅅ이 평폐쇄음화하여 두 소리가 구별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음절말에서 ㄷ과 ㅅ의 표기가 혼동된다든지, 한 단어의 음절말 자음이 ㄷ과 ㅅ으로 넘나들면서 적힌다든지 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음절말의 ㄷ과 ㅅ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표기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뒤에서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이 표음주의적 표기법이었음을 살펴볼 터인데, 이렇게 당시의 발음이 드러나도록 표기했던 당시의 표기법을 고려하면, 음절말에서 ㄷ과 ㅅ이 서로 달리 발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세기에는 현대 한국어에 비해서 음절말에서 발음되던 자음의 종류가 한 가지 더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적은 것이 음절말의 ㄷ과 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의 한글 문헌들에서 8종성법의 받침 표기가 나타나는 데 반해서, 독특하게 한글 창제 직후에 간행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만은 8종성법과는 다른 받침 표기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최초의 한글 문헌인 《용비어천가》의 경우 사진에서 보듯이 ‘꽃’이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8종성 표기였다면 ‘곶’으로 표기되었어야 할 것인데, 마치 현재의 형태음소론적 표기와 같이 ㅈ이 종성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월인천강지곡》의 표기는 더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꽃’(花), ‘낫’(面)은, 원래 간행되었을 때는 ‘곶’, ‘낫’으로 간행되었는데, 간행된 뒤에 이를 붓으로 칠해서 ‘곶’, ‘낫’이 되도록 교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교정된 획이 간행된 획에 비해서 진하고 칠해진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8종성법 받침 표기로 간행된 표기형에 대해서, 형태음소론적 표기형으로 교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문헌에서만은, 당시의 나머지 대부분의 한글 문헌들과는 다른 받침 표기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적 받침 표기가 이 두 문헌에서만 나타난 이유는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황적으로 그 사정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세종이 직접 문헌의 간행에 관심을 가지거나, 책의 내용을 직접 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용비어천가》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세종의 6대조인 목조로부터 부왕인 태종에 이르기까지의 사적을 중국에서 천명을 받아 역성 혁명에 성공한 중국 역대 왕조의 인물들과 대비시켜서 조선 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책입니다. 한글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책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자기 집안의 조상과 관련된 사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세종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월인천강지곡》은, 훗날 세조가 된 수양대군이 1447년에 불경들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뒤 한글로 번역한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이 그 내용에 감동하여 《석보상절》의 장면들을 총 551절의 노랫말로 압축해 간행한 것입니다. 애초에 《석보상절》은 1446년에 돌아가신 세종의 정비이자 수양대군의 친모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여러 불경들에서 부처의 일대기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엮은 뒤 한글로 간행한 책입니다. 세종이 이 책을 보면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비였던 소헌왕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에 더욱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노랫말을 모아서 간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헌은 모두 세종이 그 책의 간행에 직접 관여했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이 두 문헌에서 보이는,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받침 표기법은 아마도 세종 개인이 추구하던 한글 표기법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할 《월인천강지곡》에서 보이는 예외적인 분철 표기의 이유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세종은 한자와 한글이 함께 사

용되는 표기법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자이므로 이런 한자와 함께 표기되는 한글도 모아쓴 단위가 한 음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음절자로 모아 쓰는 표기 방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자로 표기되는 한자어 명사가 받침으로 끝났을 경우, 뒤에 오는 한국어 조사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서로 분리되어 ‘幽谷에’와 같이 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한글로 표기한다면 ‘빈곡에’와 같이 한자어와 조사가 분리되어 표기될 것이므로, 한글 표기에서도 분철 표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의 명사 등을 분철 표기했을 경우 그 명사 표기형은 그 명사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하고 그런 표기 방법은 마치 현재의 형태음소론적 표기와 유사하게 받침에 원래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반영해서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매우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문헌에서만 보이는 예외적인 받침 표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한글 표기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주요 내용의 두 번째 항목으로, 분철 표기가 나타나느냐, 연철 표기가 나타나느냐 하는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거나, 자음으로 끝난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명사나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후행하는 조사나 어미의 두음으로 내려가 발음되는 연음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여 연철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명사 ‘사름’에 조사 ‘이’가 결합할 경우는 ‘사르미’로, 동사 어간 ‘먹-’에 어미 ‘-어’가 결합할 경우에는 ‘머거’로 적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철 표기는 조사나 어미 외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어근 ‘울-’에 명사 파생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는 ‘우름’으로, 어근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는 ‘머기-’로 적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철 표기는 거의 대부분의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명사 ‘아들’, ‘뽕’에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 각각 ‘아드리’, ‘쁘디’와 같이 연철 표기되고, 명사 ‘꽃’, ‘힝덕’에 조사 ‘을’이나 ‘을’이 결합하면 ‘고졸’, ‘힝덕글’과 같이 표기됩니다. 용언의 경우에도, 형용사 어간 ‘즐겅-’, ‘쉴-’, ‘없-’에 어미 ‘-은’이 결합하면 각각 ‘즐거븐’, ‘쉴븐’, ‘업스’으로 표기되고, 동사 어간 ‘담-’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닷가’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월인천강지곡》은 이런 표기 경향에서도 예외를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명사 ‘몸’에 조사 결합체 ‘앗’이 결합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모맷’으로 표기되지 않고 ‘몸앗’으로 분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사 어간 ‘담-’에 어미 ‘-아’가 결합한 활용형도 ‘다마’가 아닌 ‘담아’로 분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받침 표기법에서 일반적인 8종성법의 예외를 보였던 《월인천강지곡》에서, 또 일반적인 연철 표기가 아닌 분철 표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문헌의 분철 표기는 아주 규칙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르세’의 경우에는 연철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연철 표기가 아닌 분철 표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독특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역시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세종이 추구했던 개인적인 표기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기법을 추구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8종성법과 연철 표기를 더 적합한 표기 방법으로 인식했고, 이러한 대부분의 인식을 세종으로서도 뒤집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15세기에는 음운 변동 현상 가운데 적어도 특정 형태소 말음 뒤에서 후행 형태소의 ㄱ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약화하는 현상은 규칙적으로 약화된 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태소 말음이 ㄹ일 경우에, 후행하는 형태소의 두음 ㄱ은 ㅇ/h/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존재했는데 이를 표기에 반영하여, ‘말+고’는 ‘말오’로, ‘멀+거늘’은 ‘멀어늘’로, ‘罰+가’는 ‘罰아’와 같이 적혔습니다. 이렇게 ㄹ말음 형태소 뒤에서의 ㄱ약화 현상을 표기한 ‘말오, 멀어늘’ 등은 외형상 분철 표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분철 표기가 아닙니다. 여기의 ㅁ은 아무 자음이 없다는 zero 표시로서의 ㅁ이 아니라 ㄱ이 약화된 유성 후두 마찰음 ㅁ/h/을 표기한 것입니다. 외형은 zero 표시와 같지만 실제로는 자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철 표기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형태소 말음이 |/y/인 경우에도 후행하는 ㄱ이 유성 후두 마찰음 ㅁ/h/으로 약화하는 현상을 반영해서, ‘히+고’는 ‘히오’로, ‘드외+거늘’은 ‘드외어늘’로 표기되었습니다. 또한 선어말어미 ‘-리-’ 뒤의 형태소 두음 ㄱ도 유성 후두 마찰음 ㅁ/h/으로 약화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보+리+거늘’은 ‘보리어늘’로, ‘흐+리+거든’은 ‘흐리어든’으로 표기되었는가 하면,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 뒤의 형태소 두음 ㄱ에서도 이런 ㄱ약화 현상이 나타나 ‘사름+이+고’는 ‘사름미오’로, ‘집+이+거+니’는 ‘지비어니’로 표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에서는 음절말 평폐쇄음화 등에 의한 중화 현상을 반영한 8중성법에 의해 표기되었고, 말음이 자음인 형태소 뒤에 모음을 두음으로 한 형태소가 결합할 경우 연철 표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형태소 경계에서의 ㄱ약화 현상이 규칙적으로 표기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표기 방법은 바로 발음을 표기에 드러내는 표음주의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은 표음주의 표기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 표기법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을 살펴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제는 한자음의 한글 표기 방법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그 표기 대상은 한국어 고유어만이 아니라,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소리도 표기 대상이었습니다. 맨 처음 간행된 한글 문헌인 《용비어천가》에서는 “海東 六龍이 느르샤”와 같이 한자어는 한자로, 한국어 고유어는 한글로 적는 국한문 혼용 표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한글을 만든 목적이, 한자와 한문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편안한 문자 생활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국한문 혼용 표기로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게 되면, 한자로 적히는 한자어 부분은 백성들이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한자어들을 한자로 적되, 그 한자어의 음이 무엇인지를 표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글과 함께 표기되는 한자어의 각 한자음을 달아 주고자 했을 때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자음이 당시의 중국 한자음과 달랐음은 물론, 중국의 한자음도 당시의 중국 한자음과 이전의 한자음 연구서인 운서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서마다 한자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 당시로서 가장 규범적인 한자음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까지 알려진 중국의 다양한 운서들을 검토하여, 우리가 볼 때 가장 규범적이라고 생각되는 한자음을 재구성해서 규정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물론 이때 우리의 한자음대로 한글로 표기하면 되었을 것이지만, 한자가 기원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자음은 정통적인 한자음이 아니리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규범적인 한자음을 중국의 각종 운서를 검토하여 가장 정통적이고 바른 음이라고 생각되는 음을 재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447년에 편찬되어 1448년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동국정운》입니다. 바로 이 책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부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살펴보면, 당시에 한국에서 발음하는 한자음과는 다른 한자음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한자 가운데 전탁자로 표시되는 음을 초성으로 가진 한자들이 있다고 보아 이 발음을 재구한 뒤, 그 한자음을 전탁자로 표기했다는 점입

니다. 예를 들어 ‘蚘蛄’, ‘覃蛄’, ‘字蛄’, ‘洪蛄’ 등에서 보듯이, 한자음 가운데 규범적인 음이 전탁음을 지녔다고 판단한 결과, 이를 재구하여 전탁음을 표기하는 각자병서로 한자음을 표기했습니다.

둘째는, 운서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현실 한자음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모두 ㅛ(유모)으로 발음하는 한자음 가운데에는, ‘影母’ 즉 ㅎ을 초성으로 가진 한자와 ‘疑母’ 곧 ㅛ을 초성으로 가진 한자가 있어서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영모’자는 ‘扨흠’, ‘의모’자는 ‘業업’과 같이 재구해서 한자음을 표기했습니다.

셋째, 한국의 한자음에서 ㄹ종성을 가진 한자들의 규범적인 한자음은 입성음이어야 한다고 보아 이른바 ‘이영보래(以影補來)’라고 하는 한자음의 종성 표기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영모로 래모를 보충해 적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영모는 ㅎ소리를, 래모는 ㄹ소리를 가리키므로, ‘불’과 같이 한자어의 종성 위치에서 ㄹ 뒤에 ㅎ을 더 적는 방법을 말합니다. ‘不 불’, ‘月 월’, ‘日 일’ 등과 같이, 한자음 표기의 종성 위치에 보이는 ㄹ이 바로 이영보래 표기입니다.

이영보래 표기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不, 月, 弊’ 등의 당시 한국 한자음은 ‘불, 월, 별’이었는데, 당시 학자들은 이때의 ㄹ종성은 원래 입성음이었던 ‘분, 월, 변’ 등을 쉽게 발음 하면서 나타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통적이고 바른 한자음은 입성음을 가진 소리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 한자의 한자음을 원칙대로 ‘不분, 月월, 弊별’과 같이 입성음임이 드러나도록 표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자음을 적을 경우에는, 당시 한국에서 익숙해진 현실 한자음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면서도 올바른 음인 입성음임이 드러나도록 마련한 절충적인 한자음 표기가 바로 ‘이영보래(以影補來)’ 표기법입니다. 즉 ‘不, 月, 弊’ 등의 현실 한자음 ‘불, 월, 별’ 등을 표기에 반영하면서도 ㄹ 뒤에 ㅎ을 더해 적음으로써 이들 모두 입성음이어야 함을 드러내도록 한 한자음 표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에 의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모든 한자음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표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의 표기에서는 종성이 비어 있더라도 음절자로 성립함에 비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世쟁’, ‘御영’ 등과 같이 종성이 없더라도 여기에 ㅛ를 적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만을 보면,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야만 하나의 소리자, 즉 음절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斗똥’과 같이 순경음으로 적히는 경우는 그 한자음이 하향 이중모음을 가진 경우로서 이 경우도 종성 위치에 자음이 온 경우는 아닙니다.

세종은 한글 문헌에 적히는 한자의 한자음을 모두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世쟁宗중御영製쟁쟁훈민민正정音음’과 같은 한자음 표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동국정운》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한자음이 아님은 물론, 당시의 중국 한자음도 아니고 어느 한 운서에 규정된 한자음도 아닙니다. 여러 운서들을 고찰해서 가장 옳다고 판단되는 한자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자음은 이 세상 어디에서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한자음이고, 《동국정운》이라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한자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글 문헌을 만들 때 그 문헌 속의 한자음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매번 《동국정운》을 조회해 보아야 할 만큼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종은 물론, 그 뜻을 이어 받은 세조와 성종대까지는 한글 문헌의 한자음 표기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따랐으나, 점차 불편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버리고 현실 한자음대로 한자음을 표기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실 한자음으로 한자음을 표기한 최초의 문헌은 《훈

몽자회》의 인용에 따르면 1458년(세조 4)에 만들어진 《초학자회》부터였다고 하지만 이는 전하지 않고, 실제 한글 자료에서 한자음이 현실 한자음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은 1496년(연산군 2)에 간행된 《육조법보단경언해》, 《시식권공언해》부터입니다. 이후에 새로 간행되는 한글 문헌에서는 현실 한자음으로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이 16세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16세기의 한글 표기법

16세기의 한글 문헌에서도 받침 표기법은 15세기와 마찬가지로 8종성법에 의한 표기가 나타납니다. 받침 표기법으로만 본다면 16세기도 15세기와 마찬가지로 음절말에서 나타난 음운변동에 의한 중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표음주의 표기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받침 표기법에서만 일입니다. 형태소 경계에서, 선행 형태소의 말음이 자음이고 후행 형태소의 두음이 모음인 경우 연음되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해서 연철 표기하는지, 분철 표기하는지와 관련해서는 15세기와 다른 양상이 16세기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명사 ‘님금’과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나 명사 ‘손볼’에 조사 ‘올’이 결합한 경우, 명사 ‘겨집’에 계사의 활용형 ‘이며’가 결합한 경우에는, 15세기였다면 연철 표기되어 각각 ‘님그미’, ‘손볼’, ‘겨지비며’와 같이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이런 연철 표기도 나타나지만, ‘님금이’, ‘손볼올’, ‘겨집이며’와 같이 분철 표기된 경우도 발견되고, ‘님금미’, ‘손볼를’, ‘겨집비며’와 같이 이른바 중철 표기된 예도 발견됩니다. 분철 표기나 중철 표기의 경우에도 8종성법이 적용되어 ‘곳+이’는 분철 표기되어 ‘곳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철 표기되어 ‘곳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넙+을’의 경우도 분철 표기되면 ‘넙을’로, 중철 표기되면 ‘넙플’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한글 문헌에서는 이렇게 분철 표기된 경우나 중철 표기된 경우가 발견되기 시작해서 16세기말에 오면 명사와 조사의 결합인 경우에는 분철 표기되는 일이 아주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연철, 분철, 중철 표기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연철 표기란, 15세기 표기법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선행 형태소의 말자음이 후행 형태소의 두음으로 내려가 연음되는 현상을 반영한 표기이므로, 의미 단위인 형태소의 차원에서 보면 두 형태음소가 분리되어 표기되지 않아서 표기형에서 의미 단위인 형태소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 표기법입니다. 반면 분철 표기는 실제로는 두 형태음소가 겹쳐져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음과는 달리 형태소 단위를 끊어서 표기하기 때문에, 표기형에서 의미 단위를 파악하기가 수월한 표기법입니다. 중철 표기는 연철과 분철의 요소를 모두 표기에 반영하는, 일종의 절충적 표기 방법입니다. ‘밭+이’의 경우, 중철 표기되면 ‘밭티’와 같이 적히는데, 이때 ‘밭’은 분철되었을 때의 해당 명사형에 해당하고, ‘티’는 실제 연음되는 발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철과 분철의 성격을 모두 지닌 표기가 중철 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가 16세기 전반기 한글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에서는 분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깁피’와 같은 중철 표기는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도 ‘깁피’와 같은 중철 표기가 간혹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의 경우에는, 16세기말에 이르면 분철 표기가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됩니다. 명사에서부터 분철 표기되는 것은, 명사가 독립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등 명사 그 자체의 단독형으로 인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비해 활용형의 경우에는 용언 어간을 단독형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철 표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에 점차 분철 표기나 중철 표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연철 표기만 나타났던 15세기에 비해 한글로 표기할 때, 실제 발음을 중시하는 표기에서 점차 의미 단위를 중시하는 표기로 변화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기에는 15세기에 비해 표의주의 표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글 표기법이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글 표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5. 17~19세기의 한글 표기법

17세기 이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한국어가 크게 변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5세기와 16세기를 한국어의 역사에 있어서 후기 중세한국어 시기라고 말하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한국어 시기라고 말할 정도로, 17세기 이후에는 한국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 표기법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선 한글 표기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주요한 내용 가운데, 음절말 자음으로 몇 종류의 자음이 올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5, 16세기에는 음절말에 8종류의 자음이 올 수 있는 8종성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17세기에는 음절말에 7종류의 자음이 나타나는 이른바 7종성법 표기가 나타납니다. 이는 15, 16세기에 보였던 음절말에서 ㄷ과 ㅅ의 구별되는 일이 사라진 결과인데, 현대 한국어에서 음절말에서 7종류의 자음만이 발음되는 현상이 17세기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 7종성법입니다. 그렇다면 음절말 표기법에서는 당시의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니 음절말 표기에서는 표음주의 표기가 여전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의 7종성법 표기와 관련해서 명심할 일은 음절말의 ㄷ과 ㅅ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중화된 소리를 ㄷ이 아닌 ㅅ으로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직관으로는 ㄷ으로 적었을 법한데 당시인들은 이 소리를 ㅅ으로 적었습니다. 그 결과 ‘끝’의 선대형 ‘글’에 조사 ‘도’가 결합한 경우, 16세기까지는 ‘글도’로 표기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음절말의 ㄷ과 ㅅ이 중화된 소리를 ㅅ으로 표기해서 ‘긋도’로 표기했습니다. 용언 어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어간 ‘민-’에 어미 ‘-고’가 결합한 활용형의 경우, 16세기까지는 ‘민고’로 적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밧고’로 적었습니다. 17세기부터 나타난 음절말의 [t] 소리를 ㅅ으로 적는 전통으로 인해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서도 ‘사뭇, 얼핏’과 같이 음절말의 ㄷ 소리를 ㅅ으로 적는 일이 이어진 것입니다.

형태소 경계에서의 연음 현상에 대한 표기가 이 시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6세기말에 이미 명사와 조사의 결합에서는 분철 표기가 완성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17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분철 표기가 확대되어, 용언의 활용형에서 용언 어간과 어미까지 분철해 적기도 하고, 파생어에서 어근과 접미사도 분철해 적기도 했습니다. ‘먹은’에서 활용형에서의 분철을, ‘죽이다’와 ‘움죽이다’ 등에서 파생어에서의 분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철과 이 시기의 7종성법 표기가 동시에 적용되어 ‘민+어’가 ‘밧어’로, ‘얻+으니’가 ‘엇으니’로 적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기에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은 물론 용언의 활용형, 파생어에서도 분철이 일반화되면서, 분철할 상황이 아님에도 분철을 하는 과잉 분철 현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과잉

분철이란 분철 표기가 일반화되면서 분철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할 때 나타나는 표기로서, 그만큼 분철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나+를’을 ‘날을’로, ‘가+나라’를 ‘간이라’로 적은 경우, 그리고 ‘아비’를 ‘압이’로, ‘흐르+고’를 ‘흘르고’로 적은 경우가 바로 과잉 분철의 예입니다. 이들은 모두 형태소가 경계가 없는 한 형태소 내부의 요소인 ‘를’, ‘-나라’, ‘아비’, ‘흐르-’를 잘못 분철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과잉 분철을 17세기부터 19세기의 한글 표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사실 이러한 표기는 16세기말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철 표기에 대한 의식은 이미 16세기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17세기에는 받침 표기법에서는 발음을 반영한 7종성법이 나타나고, 형태소 경계의 연음 표기에서는 분철 표기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와 마찬가지로 받침 표기에서는 표음주의 표기가, 형태소 경계의 연음 표기에서는 표의주의 표기가 나타났고, 특히 17세기에는 표의주의 표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했던 한글 표기법이 20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 20세기 이후의 한글 표기법

19세기말에 한글이 국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글 표기법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한글 표기의 통일을 위해 1907년 조정 학부에 설치된 국문연구소에서 작성한 <국문연구의정안>이 이러한 이른 시기의 노력입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언문철자법> 등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결정적으로는 1920년대의 일제의 소위 문화정치에 따른 활발한 잡지, 신문 등의 출판이 많아지면서 한글 표기법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마련한 만큼, 이 통일안에는 주시경 선생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일안의 내용 가운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와 형태소 경계에서의 연음에 대한 분철, 연철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음절말 자음의 경우 통일안에서는 모든 자음자를 받침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형태음소론적 표기 방법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형태음소를 밝혀서 형태소를 고정시켜 적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표기형들에서 의미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이전까지 있었던 일반적인 한글 맞춤법의 변화 방향으로 보아 매우 이질적인 것입니다. 받침 표기법의 경우 15, 16세기의 8종성법,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7종성법과 같이, 통일안 이전에는 모두 표음주의적 표기를 보여왔는데, 20세기의 통일안에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표기가 나타난 셈입니다.

형태소 경계의 연음에 대한 표기는 통일안에서 생산적인 현상인 경우에는 분철 표기를 지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꽃이’, ‘잡았다’, ‘먹이다’와 같은 표기가 규범적 표기로 자리잡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전의 한글 맞춤법의 변화 방향과 통하는 것입니다. 15세기에는 연철 표기만이 나타나던 것이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7~19세기에는 거의 완성된 분철 표기의 변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안은 민간 학회의 안이었음에도 해방 이후 공식적인 표기에 적용될 정도로 공식적 규범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후 통일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적용해 오다가 1987년 정부에서 공식적인 규범으로 <한글 맞춤법>을 만들어 고시 과정을 거친 뒤 1988년부

터 국가의 공식적 어문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7.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 창제 이후 20세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간의 언어를 문자로 표기할 때, 언어의 소리를 반영해서 적느냐 의미를 반영해서 적느냐에 따라 표음주의 표기와 표의주의 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음주의 표기를 보이는 문자를 표음문자, 표의주의 표기를 보이는 문자를 표의문자라고 했을 때, 한글은 표음문자 중,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표기하는 음소문자입니다.

(2) 음소문자인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할 경우에도, 실제 발음을 드러내서 적는 음소론적 표기와 발음과는 다르더라도 의미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적는 형태음소론적 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음소론적 표기는 실제 음운 변동 등이 반영되어 적히는 반면, 형태음소론적 표기에서는 형태소가 고정되어 표기됩니다. 이 두 가지 표기 중 한 가지 표기의 장점은 다른 표기의 단점이 되고, 그 단점은 다른 표기의 장점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각각의 표기 방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두 가지 표기 방법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한글로 소리를 반영해 적는 음소론적 표기와 의미 요소를 중시해서 적는 형태음소론적 표기 중 어떠한 표기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는 한글 표기법의 변화를 살펴볼 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절말, 곧 받침 위치에 몇 가지 종류의 자음이 올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과,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연음을 분철해 적느냐 연철해 적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글 맞춤법의 역사에서 대부분은 음운 변동이 반영되어 적히지 않고 띄어쓰기도 19세기말에 가서야 공식적인 문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살피는 데 크게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4) 15세기의 한글 맞춤법은 전적으로 소리를 반영해서 표기하는 음소론적 표기였습니다. 우선 받침 표기법은, 음절말 위치에 8종류의 자음이 오는 현상을 반영한 8종성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음절말 위치에서 ㄷ과 ㅅ이 구별되었습니다. 한편 형태소 경계 사이의 연음은, 연음되는 대로 표기하는 연철 표기가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형태소 경계에서의 ㄱ약화 현상도 규칙적으로 반영되어 표기되었습니다.

(5) 15세기의 한글 표기법 가운데, 한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나타났습니다. 운서들의 검토를 통해 규범적인 소리로 재구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현실 한자음 표기와는 달리 전청음을 재구하여 전청자로 한자음을 표기한다든지, 한자음 표기에서 영모(ㅇ)와 의모(ㅇ)를 재구하여 표기하고, 현실 한자음에서 음절말의 ㄹ 소리의 규범적 소리를 이영보래의 방법으로 표기했으며, 모든 한자음은 종성 자리가 비지 않도록 표기했습니다.

(6) 16세기의 한글 맞춤법 중 받침 표기법은, 15세기와 마찬가지로 8종성법이 나타났습니다. 음절말 표기에서는 음소론적 표기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서의 연음 현상에 대한 표기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의 경우는 16세기말에 분철 표기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 표기법에서 점차 의미를 중시해서 적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7)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우선 받침 위치에 7가지 종류의 자음이

쓰이는 7종성법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음절말에서 구별되던 ㄷ과 ㅅ의 구별이 없어졌는데, 이 소리를 ㅅ으로 표기했습니다. 7종성법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받침 표기에서는 소리를 중시해서 적는 음소론적 표기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철이나 연철 이냐의 여부는 분철이 거의 완성되어,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이나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에서도 분철 표기가 나타났습니다. 표기에서 분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사실은 과잉 분철 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 20세기 초인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들어 통일성 있는 한글 표기를 지향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시경 선생의 이론이 많이 영향을 주었는데, 음절말 표기법의 경우는, 그동안의 한글 맞춤법의 변화 방향과는 달리 모든 종류의 자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음소론적 표기 방법을 취하고, 형태소 경계에서의 연음도 형태소를 고정시켜서 적도록 분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후 계속 이어져 1987년에 제정한 <한글맞춤법>까지 이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세기부터 20세기 이후까지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16세기에는 15세기와 달리 형태소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음소론적 표기법이 나타났다.

(O/X)

정답: X

2. 한글 표기법에서 띄어쓰기는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O/X)

정답: O

3. 15세기에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분철 표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문자의 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문자는 의미와 소리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해서 적을 것이냐에 따라 크게 표음문자, 표의문자로 나뉜다.

② 최근 아이콘이나 이모티콘, 이모지 등은 일종의 표음문자라고 할 수 있다.

③ 한글은 음절문자처럼 기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소문자이다.

정답: ②

2. 다음 중 형태음소론적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형태음소론적 표기를 사용하면 의미 단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② 형태를 표기에 드러내어 적기 때문에 실제 발음을 충실하게 적을 수 있다.
- ③ ‘잎+-이’를 ‘이피’로 적는 것은 형태음소론적 표기의 예 중 하나이다.

정답: ①

3. 다음 중 15세기 한글 표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15세기에 종성 위치에는 8종성법에 의해서 8개 자음 이외의 자음은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 ②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음절말에서 ㄷ과 ㅅ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적혔다.
- ③ 일부 문헌을 제외하면 분철 표기보다는 연철 표기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 1. 분철할 상황이 아님에도 분철을 하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정답: 과잉 분철

- 2.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면서도 올바른 음인 입성음임이 드러나도록 마련한 절충적인 한자음 표기를 ○○○○ 표기법이라 한다.

정답: 이영보래

- 3. ‘잎’의 마지막 형태음소 ㅍ이 음절말에서 ㅂ으로 발음되는 것을 ‘음절말 ○○○○○’라고 한다.

정답: 평폐쇄음화

나. 토의 (30분)

- 1. 문자의 종류를 특징에 따라 나누고 종류마다 대표적인 예를 써 봅시다.
- 2. 세종이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만들어낸 목적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형태음소론적 표기와 음소론적 표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한 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표기법은 어떤 것인지 근거를 갖추어 설명해 봅시다.

■ 참고자료

한글맞춤법([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형태음운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연구』, 한국문화연구원.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이희승(1959),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 신구문화사.
최태영(1989), 『한글맞춤법강해』, 송실대학교출판부.

<8차시> 한글 창제 이후 한국의 언어생활

■ 학습목표

1.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을 살펴보고 한글 창제의 의의를 확인한다.
2. 한글의 보급과 확산 과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한글 학습 방법의 양상과 반절의 방식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한글 창제 전후의 문자 생활
2. 한글의 보급과 확산
3. 한글 학습의 방법
4.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 생활사의 여덟 번째 시간,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 한국에서의 언어생활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글의 창제는 한국의 언어생활을, 말과 글이 괴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서로 일치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시킨 큰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창제가 지닌 한국의 문자생활사에서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의 문자생활사의 획기적 사건인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은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널리 보급되고 확산되었는지 또 보급될 수 있었던 한글 학습의 방법은 어떠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한글이 한국의 문자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먼저 한글이 창제되기까지 한국의 문자생활을 포함한 언어생활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한글이 창제되기 전, 한국의 언어생활은 말로는 고유어를 구사하면서도, 이를 글로 적기 위해서는 한국어와는 다른 질서의 한자와 한문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말과 글이 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표기될 수 있는 한국어 요소는 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지명, 인명, 관직명 등의 명칭, 호칭이 고유어로 지어졌음은 물론, 향가나 고려 속요 등의 노랫말도 한국어 고유어로 지어 노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는 고유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대에 통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지명을 한자식으로 통일하고, 문식층에서 한자식 인명을 쓰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차 한자어가 세력을 높여 가긴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고유어로 언어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문자 생활의 경우에는, 한문으로 된 책이 모두였던 독서 생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사 생활에서도 우리말 요소가 포함되기 어려운 한문으로 글을 쓰느냐, 우리말 요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이두문으로 글을 쓰느냐 하는 차이점은 있기는 했지만, 이런 문자생활의 주체는 모두 한자와 한문에 능숙한 소수의 상위 문식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자생활이 한자와 한문으로 이루어졌고 점차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와 구사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정규적인 한문만을 권위 있고 바른 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문은 동아시아에서 국가를 초월해 통용되는 공통문어로 인식하게 되면서, 차차 표기의 방법으로 우리말의 요소를 반영해 적은 향찰이나 석독구결문은 공통문어가 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글로 보아서 이런 글들을 정규적인 한문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한문 속에 차차 표기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유어 요소에 대해 정규적인 한문을 망치는 요소로 인식해서 이런 요소들을 ‘이어(俚語)’ 라는 부정적 어감의 명칭으로 부르고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생활의 주체에서 나타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한국어 고유어가 기록 속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것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자생활사에서 그동안의 문자생활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 획기적 사건이 바로 한글의 창제입니다. 한글은 문자생활의 주체로 이전의 문식층만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이전에는 글로 적히기 어려웠던 한국어가 드디어 정확하게 글로 적힐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어가, 이전에는 글을 망치는 저열한 말이었던 ‘이어’ 에서, 드디어 글로 표기할 수 있는 한국의 말인 ‘언어(諺語)’ 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의 창제는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계기로서의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고유어가 전에는 구어로만 사용된 언어였다면, 한글이 창제됨으로써 문어로서의 지위도 얻게 됨으로써, 전과는 달리 고유어가 다시 세력을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지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지닌 한글의 창제 이후, 한글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한글의 보급과 확산

1443년(세종 25년)에 한글을 만들고, 1446년(세종 28년)에 새 문자 한글을 만든 원리와 사용 방법을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행해서 널리 알린 뒤, 1447년(세종 29년)부터 한글이 실제로 문헌의 간행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종은 새로 만든 한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글의 유용성은 물론 한자와 동등한 권위를 지닌 문자임을 보이기 위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세종 자신의 6대조에서 부왕에 이르기까지의 사적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 간행한 일이 한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세종의 노력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간행하게 한 사실과 당시의 몇몇 사실을 함께 고려해보면, 세종은 우선 당시 문자 생활의 주체로서 향후의 문자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층의 문관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한 달쯤 뒤인 10월, 세종은 당시 불사 반대 상소를 올린 대간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임금에게 거짓을 고해 속이려 했다면서 그 죄상을 일일이 한글로 적어서 의정부와 승정원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인 기록이 바로 일을 적은 《세종실록》 세종 28년 10월 10일의 기사입니다. 그 3일 뒤인 10월 13일에는, 정창손 등의 대간을 용서 해주기를 청하는 하연, 김종서 등에게, 또 전에 적었던 언문서 몇 장을 들고 오도록 해서 보여주면서 죄상이 이러한데 용서해야 하는지를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이 한글을 모른다면, 임금의 심중을 적은 글을 이해할 수 없으니 결국 임금의 뜻을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한글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신하들로 하여금 한글을 익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종은 한자만으로 문자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문관들이 한글을 익히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중앙의 상급 아전은 물론 중앙 및 지방의 아전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합자해서 쓰는 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했습니다. 《세종실록》의 세종 28년 12월 28일 기사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세종은, 중앙의 상급 아전을 뽑는 이과(吏科)와 경외 아전을 선발할 때, 《훈민정음》을 함께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글의 뜻과 의미가 통하지 못하더라도” 라는 기록에서는 그 시험 대상이 《훈민정음》 해례였고, 그 글의 의미를 잘 아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의 의미는 잘 모르더라도 ‘합자’, 즉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음절자로 모아 써서 표기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한글로 말을 잘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전의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을 부과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조선 개국 초 백성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형옥과 관련된 규정인 《대명률》과 백성들의 민생과 관련된 《양잠경험촬요》를 이두로 번역한 것이, 이두에 능한 하급 관리들로 하여금 이두 번역문을 보고 백성들을 계도하도록 했던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의 아전들은 백성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은 만큼, 아전들이 한글을 아는 일은, 장차 백성들도 한글을 구사하게 될 것이니 아전으로서 백성들의 한글 기록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명률》이나 《양잠경험촬요》의 이두 번역에서와 같이,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한글을 널리 알리고 계도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전을 선발할 때 세종이 《훈민정음》을 취재 과목으로 부과한 일은, 하나의 전통이 되어 조선의 국정 운영의 대원칙을 담고 있는 《경국대전》에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은 1455년(세조 1)에 편찬이 시작되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끝에 1485년(성종 16)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 안에 여기에서 보인 ‘녹사(錄事)’의 취재 과목 중 ‘서산’, 즉 글씨와 계산 능력이라는 평가 항목 중 글씨 시험으로 한자의 해서와 언문, 곧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평가해서 녹사를 선발하는 것이지요. 녹사는 경아전으로서 상급의 아전입니다. 외아전 등 하급 아전의 선발까지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급 아전의 경우도 녹사의 예에 비추어 한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가 평가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전을 선발할 때 한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경국대전》의 1차 편찬의 마무리를 관리한 세조와 수정과 보완을 관리한 성종이, 선왕인 세종의 유지를 받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조대에는, 아전의 선발 시험이 아닌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문과 시험에도 《훈민정음》 해례가 시강 과목으로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세조실록》의 세조 6년(1460년)의 기사에는, 예조에서 선왕인 세종이 찬정한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을 문과 초장(初場)에 시강하도록

청하여 시행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듬해인 세조 7년(1461년)에 세조가 문과 시험에서 운서는 쓰지 말고 예전처럼 시행하라는 명을 내려서, 문과 시험에 《훈민정음》이 부과된 것은 한 번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세종이 그랬듯이 경외 아전들의 선발에는 한글을 부여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종의 한글 확산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이 《경국대전》에 수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국대전》 권3 <예전>의 ‘장려’ 조항에는,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해서 부녀자와 아동들을 가르치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포상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인 것이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삼강행실도》는, 세종 10년(1428년) 9월에 있었던 김화의 살부 사건에서 충격을 받아서 백성 교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세종의 명으로 세종 14년(1432년)에 한문본으로 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백성들이 읽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 사실이 세종 16년 4월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글을 만든 이후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읽히게 했음이 세종 26년(1444년) 최만리 등의 갑자 상소문에 대한 처결 내용에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강행실도》의 간행은 세종대에 이뤄지지 못하고 간행이 미뤄지다가 성종 12년(1481년)에야 간행되는데, 단종 원년(1452년) 세조가 요동에서 강맹경에게 보낸 글에서, 선왕으로부터 받은 일이라면서 ‘병요(兵要)’, ‘병서(兵書)’와 함께 《삼강행실도》를 언급하면서, <효자도>를 먼저 반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유지로 아들 수양대군에게 《삼강행실도》의 언해와 간행을 부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세종의 노력이, 세조대에 《경국대전》의 1차 편찬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규정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해서 경외의 아녀자와 아동들을 가르치는 일은, 이들이 한글을 알아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종이 백성들에게 널리 한글을 보급하고자 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견 세종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40년 정도 뒤인 성종 16년(1485년) 7월 17일에, 시전을 읊기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시전 사람이 재상과 판서, 참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은 ‘언문’을 호조판서 이덕량의 동생 집에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전 사람들 150명을 의금부에서 잡아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산군 10년(1504년) 7월 19일에는 연산군을 비방한 사실을 고변하는 언문 익명서 3장이 투서돼서 20일에는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적발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당시 시전 사람들도 한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과 당시 한성 내에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글을 반포한 후 50년 정도 후인 1490년에서 1498년 사이에 작성된 한글 편지가 최근 발견돼서 당시의 한글 보급 정도와 관련해서 주목됩니다. 당시 함경도 경성에서 하급 군관으로 근무하던 나신결이 회덕의 아내 신창 맹 씨에게 써서 보낸 한글 편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데, 지방 출신의 하급 문관의 개인 편지가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한글이 꽤 널리 보급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연 이 시기에 한글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보급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종 16년의 언문 투서 사건의 경우 그 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언문 투서를 작성한 사람이 과연 시전 사람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습니다. 한자와 언문에 두루 능한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시전 사람들까지 한글을 알았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연산군 10년(1504년)의 언문 익명서

사건에서 그 익명서에 사람 이름은 한자로 적혀 있었다고 하니 이 글을 쓴 사람은 한자와 한글을 모두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반 백성들이 한글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근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언문 익명서로 인해 연산군 10년 7월 20일에 연산군은 언문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하면서,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 5부로 하여금 적발해서 필체를 언문서와 비교해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는 언문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언문을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나신결의 한글 편지는 그나마, 지방까지 한글이 보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만, 나신결이 평민이 아닌 무관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편지가 일반 백성들 까지도 한글을 자유롭게 썼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오히려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말해 주는 사실이나 증언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459년(세조 5년)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맨 앞부분에 《훈민정음언해》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훈민정음언해》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이 직접 쓴 앞부분, 즉 어제 서문과 예의 부분에 구절을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월인석보》와는 전혀 거리가 먼 《훈민정음언해》가 《월인석보》의 앞에 끼어 있는 이유는, 이 책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한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 자모의 음가와 운용법을 간단히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훈민정음언해》의 맨 마지막에, 원래 《훈민정음》 해례의 예의에는 없는 치두음과 정치음의 표기 규정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인석보》에 수록되는 《석보상절》 권 21의 다라니 부분에 실제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 표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표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월인석보》의 앞에 새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월인석보》가 만들어진 1459년(세조 5년) 경에는 한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527년(중종 22년)에 최세진에 의해 간행된 《훈몽자회》의 <범례>에는 당시 지방에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범례>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변두리 시골에 있는 사람 중에는 필시 언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에 언문 자모를 함께 보이니,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언문을 배운 다음에 《훈몽자회》를 배우게 하면, 곧 거의가 깨우치는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례>의 뒷부분에서 ‘언문 자모’ 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언문 자모’ 를 보인 이유가, 지방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훈몽자회》에서는 한자의 훈과 음을 한글로 달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알아야 익힐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굳이 ‘언문 자모’ 와 같이 한글 자모의 음가와 합자법을 간단히 알려주는 내용을 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16세기 초까지는 한글이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와서 15세기와는 다른 사실이 나타납니다. 15세기에는 한글 문헌들이 모두 중앙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문으로 쓰인 책은 지방에서도 간행되었던 사실과 대비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1500년 경상도 함천 봉서사에서, 중앙에서 간행한 《목우자수심결언해》를 복각한 책이 나왔는가 하면, 1518년(중종 13년)에는 경상도에서

《이륜행실도》,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등을 처음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지방에서 많은 한글 문헌들이 간행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쓰인 책이 지방에서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에서 한글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지방에까지 한글이 보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6세기의 사대부가에서는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14년(중종 9)에는, 1510년에 있었던 왜구의 난 때 포로가 돼서 대마도로 잡혀간, 영등포 만호 양지손의 첩과 종 3인이 한글 편지[언간]를 보내 돌아오기를 청하여 대마도주로 하여금 돌려보내도록 하자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16세기에 사대부가의 사람들에게 한글이 널리 보급되어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등의 문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순천김씨 묘 출토 한글 편지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주고받은 한글 편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면서도, 1490년에 쓰여진 나신걸 한글 편지와는 다르게 순천김씨 묘 출토 한글 편지는, 그 양도 방대한데다가, 다양한 대상과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한글 편지는 당시의 한글 보급정황을 알려주는 다른 사실들과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김씨 묘 출토 한글 편지는 1550년부터 임진란 이전까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친정 어머니로부터의 편지, 친정 아버지로부터의 편지, 친정 남동생으로부터의 편지, 또 남편으로부터의 편지 등 한 집안의 다양한 관계의 다양한 인물 사이의 편지라는 점에서, 당시 매우 다양한 관계 사이에서 한글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보편화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글이 널리 보급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문신 이문건이 1536년(중종 31년)에 부모님의 합장묘 앞에 건립한 이른바 한글 영비(靈碑)를 통해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이 보급되었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는 영험해서 이를 다치게 하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와, 이런 한글은 글, 즉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한글로 새겨 놓고 있습니다. 당시 한글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러한 경고문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경고를 비문으로 새겨 둘 만큼 한글이 보급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83년(선조 16년)에 간행된 《석봉천자문》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 후반에는, 《훈몽자회》에서와 같이 한글의 음가와 합자법에 대한 간략한 해설인 ‘언문 자모’가 없이 그대로 한자의 훈과 음을 한글로 단 천자문이 널리 읽혔습니다. 이 역시 당시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17세기 이후에는 한글이 보다 더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글 소설, 한글 가사 등 한글로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17세기 후반에는 상전인 송규렴이 노비에게 보낸 배지(牌旨) 성격의 언간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한글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널리 보급돼서 한글을 통한 문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늘게 되면서, 19세기 후반 한글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쓰이는 문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독립신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순한글로 작성한다고 표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글이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을 가르쳐 깨우치도록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웠던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 한글 학습의 방법

한글이 만들어진 직후에 한글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글 학습법은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글의 음가 및 운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부하는 일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심오해서 한글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에게 결코 유용한 교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459년(세조 5년)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앞에 끼어들어가 있는 《훈민정음언해》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성 자체가, 앞에 세종이 쓴 <어제 서문>과 <예의>에 새 문자 한글의 음가와 운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훈민정음해례>가 앞의 세종이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에 대한 주석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세종이 쓴 《훈민정음》 해례의 앞 부분인 <어제 서문>과 <예의>를 본문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말로 옮긴 《훈민정음언해》가, 한글의 음가와 운용법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배우는 초학자들이 처음 한글을 학습할 때 《훈민정음언해》는 훌륭한 교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훈민정음언해》가, 《월인석보》의 앞에 끼어들어가 있게 된 것이지요. 한글로 된 《월인석보》를 읽기 위해서는 한글을 알아야 하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간략하게 익힐 수 있도록 《훈민정음언해》를 먼저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527년(중종 22년)에 최세진에 의해 간행된 《훈몽자회》의 <범례>에 제시되어 있는 ‘언문 자모’가 다시 주목됩니다. 이 역시 당시 지방에는 한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것도 한글을 배우는 초학자가 학습하기 용이한 내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문 자모’는 《훈민정음언해》보다도 내용이 더 간략하게 한글의 음가와 운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이 바로 《훈몽자회》 <범례> 중 ‘언문 자모’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의 책이므로 읽어가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언문 자모’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은 ‘반절 27자’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이 초성자 17자와 중성자 11자를 만들었으므로 한글 자모는 28자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27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을 만들 때 있었던 ㅎ(여린 히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는 고유어를 표기할 때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 단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영모(影母)’의 한자음을 표기할 때만 나타났던 문자입니다. 그런데 《훈몽자회》에서는 한자의 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아니라 현실 한국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ㅎ(여린 히읃)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언문 자모가 27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의 구성을 보면, ‘언문 자모’를 ‘초성중성통용8자’, 즉 초성과 중성에 모두 쓰이는 8자와 ‘초성독용8자’, 즉 초성에만 쓰이는 8자, 그리고 ‘중성독용11자’, 즉 중성에만 쓰이는 11자로 분류해서 한글 자모 27자의 음가를 보인 뒤, ‘초중성합용작자례’, 즉 초성자와 중성자를 합해 써서 글자를 만든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성중성통용8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옛 이읃)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모의 배열 순서가 오늘날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던 사실과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가 기원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8자에 대해 각각의 아래에 두 글자씩이 제시되어 있는데, ㄱ은 ‘其役’, ㄴ은 ‘尼

隱', ㄷ은 '池末' 이 달려 있으면서 '末' 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ㄹ은 '梨乙', ㅁ은 '眉音', ㅂ은 '非畝', ㅅ은 '時衣' 이 달려 있으면서 '衣' 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ㅇ은 '異癡' 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그라미를 친 '末' 과 '衣' 두 글자는 그 글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소리로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末' 은 '곧말' 이었으므로 의미인 '곧' 을 음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衣' 도 '옷 의' 이므로 의미인 '옷' 이 음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한자는 '기역, 니은, 디근,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됩니다. 이는 현재의 한글 자모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서 최세진이 《훈몽자회》 <범례>에서 한글 자모의 이름을 붙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글 자모의 이름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글자는 초성과 중성에 두루 쓰이는 글자이므로, 한자를 이용해서, 해당 글자가 표기하는 소리가 초성에 쓰인 예와 중성에 쓰인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其' 는 ㄱ이 초성에 나타난 예이고, '役' 은 ㄱ이 중성에 나타난 예입니다. 'ㄴ' 은 ㄴ이 초성에 나타난 예, '隱' 은 ㄴ이 중성에 나타난 예인 것이지요. 이는 바로 뒤에서 '기, 니, 디, 리, ...' 등의 8자는 초성에 쓰인 경우이고, '역, 은, 을, ...' 등 8자는 중성에 쓰인 경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준 것을, 20세기 이후 명칭으로 원용한 결과 현재의 한글 자모 명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자모 명칭의 기원이 《훈몽자회》 <범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최세진이 《훈몽자회》에서 한글 자모의 명칭을 붙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 초성에만 쓰이는 8자 ㅋ, ㅌ, ㅍ, ㅈ, ㅊ, ㅍ(반치음), ㅇ, ㅎ을 제시하고 각각의 아래에 초성에 쓰인 예를, 해당 초성 뒤에 i 모음이 온 한자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箕' 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이것도 이 한자의 의미[석]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음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키 기' 자이므로 석인 '키' 가 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ㅌ의 예로 '治' 를 들고 있는데, 이 한자의 현재 한자음은 '치' 이지만, 이 당시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한자음이 '티' 였기 때문에 ㅌ의 예로 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성에만 쓰이는 11자, 즉 중성자를 한자 중 그 중성을 가진 한자들 들어서 음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一의 경우는 한자 가운데 '으' 라는 음을 가진 한자가 없기 때문에, '應' 으로 보이어서 주석으로 이 글자의 중성은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一(아래 아)의 경우도 '으' 음을 가진 한자가 없어서 '思' 로 예를 보이면서 이 글자의 초성은 쓰지 않는다고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一의 예로서 '伊' 를 들면서 이 글자의 초성은 쓰지 않는다고 주석을 달고 있는데, 이는 앞의 초성독용8자에서 ㅇ의 예로 '伊' 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자의 음 '이' 를 초성 ㅇ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으니, 일관성을 위해서 중성자의 예로 '伊' 를 들 때에는 초성은 쓰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중성자의 배열 순서가 현재의 한글 자모 배열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써서 음절자를 만드는 방식을, 해당 초성과 '중성독용11자' 각각이 합쳐진 '가,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ㄱ' 를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음절자의 실제 예로 초성 ㄱ과 중성 ㅏ가 합쳐져서 '家' 의 음 '가' 가 되는 경우를 든 뒤에, 여기에 다시 ㄱ이 중성으로 합쳐지면 '각' 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성 ㄱ 자리에는 '초중성통용8자' 중 나머지 글자들이 결합한 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작자례' 아래에 달아준 한자에 동그라미를 친 것들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한자의 우리말 의미가 그 음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훈몽자회》 <범례>에 수록된 '언

문 자모’는, 《훈민정음언해》보다 더 간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한글 자모의 음가와 이들 자모를 합자해서 음절자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 ‘언문 자모’를 통해서 한글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확인한, 《훈몽자회》〈범례〉의 ‘언문 자모’는 이후 한글 문헌에서 한글 학습을 위해 신는 교재의 전범이 됩니다. 이후 한글 문헌에서 한글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소개된 내용이 ‘언문 자모’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의 명칭인 ‘반절’이라는 명칭은 물론, ‘작자례’로 제시한 ‘가갸겨겨고교구규구기ㄱ’가 19세기말부터 한글 학습을 위해 사용되었던 반절표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훈몽자회》〈범례〉의 ‘언문 자모’는 20세기 초까지의 한글 학습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훈몽자회》보다 뒤인 1569년(선조 2년)에, 전라도 무등산 안심사에 간행된 《진언집》의 목록 뒤에 ‘언본(諺本)’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한글 학습 교재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훈몽자회》〈범례〉의 ‘언문 자모’와 일치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이 바로 《진언집》에 실려 있는 ‘언본’입니다. 이 책은 실담자, 곧 범자로 이루어진 진언에 대해서 실담자의 음가를 한글로 보인 책이므로, 한글을 익혀야 실담자의 음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훈몽자회》에서 앞에 있는 〈범례〉에 ‘언문 자모’를 둔 의도와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훈몽자회》〈범례〉에는 ‘언문 자모’ 아래에 있었던 ‘속소위반절27자’라는 주석이 빠져 있는 점만 제외하면, 이하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훈몽자회》의 ‘언문 자모’가 당시 한글을 학습하기 위한 초학자의 교재로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이후 17세기는 물론 18세기에 간행된 책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한글 학습 교재처럼 제시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1751년(영조 27)에 중앙에서 간행된 《삼운성휘》에는, 이전의 ‘언문 자모’에 약간의 변경이 가해진 한글 학습 교재가 실려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자초중중성지도’에는 ‘초중성통용8자’로 《훈몽자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초성독용자’는 6자로서 《훈몽자회》에서와는 다르게, 초성독용자에서 △과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결국 초성자는 총 14자가 되어, 현대의 자음자와 개수가 같아졌습니다. 다만 ㅋ와 ㅌ의 순서만이 현대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몽자회》에서와는 다르게 ‘합중성2자’로 ‘ㄴ, ㄷ’가, 각각 ‘光(빛 광)’과 ‘月(달 월)’을 예로 들어 더 포함되어 있고, ‘중중성1자’라 해서 이른바 ‘딴이’라고 하는 음절 모음 ㅣ가 ‘橫’을 예로 들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삼운성휘》에 실려 있는 ‘언자초중중성지도’는, 《훈민정음》 예의와 《훈몽자회》의 ‘언문 자모’를 모두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모 배열의 순서가 ‘언문 자모’와 일치하고, ‘초중성통용8자’의 중성에 쓰인 예는 ‘언문 자모’에서 제시한 중성의 예와 일치합니다. 특히 ㄷ의 예인 ‘末’과, ㅌ의 예인 ‘衣’를 동그라미 표시하고 이들의 한국어 석을 음으로 하고 있는 점이 ‘언문 자모’와 동일합니다. 반면 모든 초성의 예와 ‘중성11자’의 예는 모두 《훈민정음》 예의에서 보인 한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합중성2자’인 ㄴ와 ㄷ, 그리고 ‘중중성1자’인 ㅣ(딴 이)는 《훈민정음》 예의나 《훈몽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운성휘》에 실은 ‘언자초중중성지도’가 당시에 존재하던 반절표를 참고해서 반영한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반절표는, 《객관취찬집》에서 수록된 〈언문서〉와 《화한창화집》에 수록된 〈조선언문〉입니다.

이들 기록은 1719년 통신사로 갔던 조선의 사신이 일본인에게 한글을 알려주면서 써 준 글

을, 일본에서 책으로 간행하면서 수록된 것입니다. <언문서>는 당시의 정사 서기였던 강백(姜栢)이 나고야에서, <조선언문>은 당시의 종사관 서기였던 장응두가 오오사카에서 일본인에게 써 주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인 것이 바로 이들 반절표입니다. <언문서>에는 ㅂ과 ㅅ가 빠져 있고, 초성의 마지막 4행이 ‘과타카하’의 순서로 되어 있는 점에서 근대 이행기의 반절표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언문서>에서의 실수로 보입니다. 또한 <조선언문>의 반절표에서는 자모의 마지막이 ㅇ, ㅣ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초종성통용8자의 마지막 ㅛ을 ㅣ와 ㅜ으로 잘못 분석한 결과인데, 다른 반절표들에서는 ㅣ, ㅜ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또한 초성의 아행 이하가, 일반적인 ‘자차카타파하’가 아니라 ‘카타파차차하’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으며, 매 행의 마지막이 ㄹ(아래 아 두 개를 찍은 이 글자로 되어 있는 점도 특이합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조선 사신들이 당시에 존재하던 반절표에 대한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착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외하면 ㅅ, ㄱ 행도 제시되어 있는 등, 여기에서 보이는 반절표가 근대 이행기 때 널리 통용되었던 반절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18세기 초에는 근대 이행기의 반절표와 거의 똑같은 반절표가 존재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반절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증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 반절표는 18세기 초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삼운성휘》를 만들면서 한글 입문 교재로서, 《훈민정음》 예의, 《훈몽자회》는 물론 당시의 반절표들을 종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반절표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절표의 초성 및 중성의 순서 등은 모두 《훈몽자회》의 ‘언문 자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절표의 기원은 《훈몽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18세기 초부터는 한글 입문자를 위한 교재로서 반절표가 널리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이 반절표는 기본적으로 《훈몽자회》를 바탕으로 약간의 변형만을 가한 것입니다. 우선 초성과 중성의 자모 배열 순서가 《훈몽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훈몽자회》의 ‘언문 자모’에서 언급한, “ㄱ(초종성통용자), ㅋ(초성독용자) 이하 각각의 음이 초성이 되고, ㅌ 이하 각각의 음이 중성이 돼서 만들어진 ‘가, 갸’와 같은 글자, 176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 반절표의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 나나 너녀노뇨뉴뉴느니느’ 등등인 것입니다. 다만 《훈몽자회》에는 포함되어 있는 초성 ㅛ, ㅜ이 현실적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아야 등의 ㅛ행과 아야 등의 ㅜ행을 제외한 154자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반절표에서 ㅅ, ㄱ가 더 포함된 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이들 글자는 《훈민정음》 해례의 중성해에서 중성의 병서자로 다루어진 바 있고, 실제 표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절표에 반영되었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근대 이행기 이후의 반절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자료는, 1798년(정조 22년)에 간행된 《재물보》의 ‘언서(諺書)’와 1869년(고종 8년)에 간행된 《일용작법(日用作法)》의 ‘언본(諺本)’입니다. 이들 반절표에서는 18세기 초의 반절표와 마찬가지로 ㅛ을 ㅣ와 ㅜ으로 분석해서, <언서>에서는 ㅣ를 ‘伊’, ㅛ을 ‘行’으로 음을 달고 있고, <언본>에서는 ㅣ를 ‘而’, ㅛ을 ‘行’으로 음을 달고 있으며, 초성 마지막 4행이 《삼운성휘》에서와 같이 타카파하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체제는 19세기말 반절표와 같습니다.

반절표는 19세기 후반에 한글을 입문자를 위한 교재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1장으로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877년에 간행된 방각본 <정축신간 반절

표>입니다. 1869년에 간행된 《일용작법(日用作法)》의 ‘언본(諺本)’에서는 초성자 각 행의 첫 음 위에, 가는 한자 可, 나는 한자 那, 다는 한자 多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즉 한자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의 음을 제시해 준 데 비해서, <정축신간 반절표>에서는 그 첫 음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을 위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가는 개에 해당하는 당시의 단어 ‘가히’의 그림을, 나는 나비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이러한 정성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9세기말에 널리 유통되던 반절표는 국가 조정에서 간행한 국정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들어갔습니다. 1896년(건양 2년) 학부에서 간행한 《신정심상소학》의 앞에 반절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유통되던 반절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렇듯 반절표에 의한 한글 입문자의 한글 학습은 매우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행을 거쳐 20세기 초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에서 처음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여 ‘가가날’이라고 이름붙인 데에서도 간접적으로 이 당시 한글 학습이 반절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심훈의 <상록수>의 내용 가운데에도 반절표에 의해 한글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등, 반절표에 의한 한글 학습은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맥이 이어져 오던, 반절표를 이용한 한글 입문자의 한글 학습 방법은 1945년 광복 후에 크게 변화합니다. 처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민학교’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한글 자모를 따로 가르치지 않고, 문장 속에서 한글 자모를 익히도록 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글 자모를 교육하더라도 자모 순서와 명칭을 익히는 데 그치고 자음자와 모음자가 결합하여 음절자를 이루는 반절표 방식의 교육은 따로 이루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실제 문장 속의 음절자들이 반절표의 음절자를 대신하는 셈인 것이지요. 요즘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도 반절표는 제시되지 않고, 자음자와 모음자의 명칭과 음가를 교육한 뒤에 이들이 결합하여 음절자를 이루는 방식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반절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세분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규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반절표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 데 비해서, 유아들의 한글 학습을 위한 보조 학습 자료로는 반절표 방식의 한글 교재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최근의 유아용 한글 학습 교재를 한글 음절표로 부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반절표보다 정확하고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음자와 모음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음절을 제시하고 각 자음자 행의 첫 음절자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음절자가 들어간 단어의 그림을 제시해 주고 있는 방식은 1877년의 방각본 <정축신간 반절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반절표를 통한 한글 입문 학습의 유용성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리

오늘은, 한국의 문자생활에서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한글의 창제 이후에, 한글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고 확산되어 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확산되어 갈 때 한글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글의 창제는, 입으로는 한국어를 말하면서도 글을 쓸 때는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문 속에 한국어 요소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차자 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자 표기가 동아시아 공동 문어인 한문을 망가뜨리는 요소라는 인식을 크게 바꾸어서, 한국어도 당당히 표기될 수 있는 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곧 구어로만 존재하던 한국어가 한글의 창제로 인해서 문어로서의 지위도 얻게 된 것입니다.

(2) 한글 창제 이후 세종은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작성하여 간행하고, 어지를 한글로 작성해서 내리는가 하면, 아전의 선발 시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쓰기를 과목으로 부과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에는 이후의 왕들에게 계승되고, 일부는 《경국대전》에 수록되기도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세종의 의도만큼 한글이 빠르게 보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세기에 간헐적으로 사대부가에서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기도 하고, 각종 기록을 통해서 지배층에서의 한글 사용이 확대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한글이 널리 확대된 것은 16세기 중엽이후로 보입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헌이 16세기 초부터 지방에서 간행되기 시작해서 16세기 중엽 이후 지방관이 많아지는 사실이나 다양한 관계인 사이의 한글 편지 등이 당시 지방에서 한글 독자층이나 한글 구사층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후는 한글 고전 작품이 창작되고 유통되는 등, 한글이 매우 폭넓게 보급되었습니다.

(3) 이렇게 한글이 널리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의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직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 부분에 구절을 달고 한국어로 번역한 《훈민정음언해》가 교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비해 새로운 문자의 음가와 운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한글로 된 문헌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책의 앞에 끼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4) 16세기 초의 《훈몽자회》 <범례>에 있는 ‘언문 자모’는, 《훈민정음언해》보다도 더 간략하고 요령 있게 한글 자모의 음가와 합자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언문 자모’가 한글 입문자를 위한 학습 교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18세기는 물론 근대 이행기에 이르는 동안 다양하게 발견되는 한글 입문자용 학습 교재라 할 수 있는 반절표가 바로 ‘언문 자모’에서 기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하는 자료로 보아 적어도 18세기 초에는 반절표에 의한 한글 학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반절표는 이후 ‘언본’, ‘언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아주 작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모 배열 순서나 합자 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학습을 위한 반절표는 19세기말에 널리 유통되었고, 그것이 조정 학부의 교과서에도 수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반절표에 의한 한글 학습의 전통은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식 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뒤, 표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 역시 반절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교육하도록 한 것이기도 하고, 특히 현재도 널리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한글 음절표는 이전의 반절표와 매우 흡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절표에 의한 한글 학습의 유용성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반절표에 의해서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의 문자생활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현재 전해지는 한글 자모의 이름은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유래한 것이다. (O/X)
정답: O
2. 반절표 방식의 한글 교육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O/X)
정답: O
3.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지명, 인명, 관직명 등의 명칭, 호칭은 모두 한자어로 지어졌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일상 생활 속에서도 주로 한자어를 활용하였다.
② 이런 문자생활의 주체는 모두 한자와 한문에 능숙한 소수의 상위 문식층이었다.
③ 향찰이나 석독구결문은 한문을 이해하기 편리했으므로 공통문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답: ②
2. 다음 중 《훈몽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례>에는 당시 지방에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② 한자의 음을 현실 한국 한자음이 아니라 현실 동국정운식 한자음대로 표기하였다.
③ ‘언문 자모’는 당시 한글 학습에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답: ②
3. 다음 중 반절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삼운성취》의 ‘언자초중중성지도’는 반절표와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반절표의 초성 및 중성의 순서 등은 《훈몽자회》의 ‘언문 자모’와 무관하다.
③ 근대 이행기 때 널리 통용되었던 반절표는 이후 한글 학습에도 활용되었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가장 오래된 반절표는, 《객관최찬집》에서 수록된 <○○○>와 《화한창화집》에 수록된 <○○○○>이다.
정답: 언문서, 조선언문

2. 한문 속에 고유어 요소를 표기한 차자표기에 대하여 정규적인 한문을 망치는 요소로 인식하여 ‘○○’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정답: 이어

3. 세종은 한글의 유용성은 물론 한자와 동등한 권위를 지닌 문자임을 보이기 위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 노래한 《○○○○○○》를 간행하였다.

정답: 용비어천가

나. 토의 (30분)

1. 17세기 이후 한글 보급이 널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여 써 봅시다.
2. 반절표를 활용한 한글 학습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써 봅시다.

다. 과제 (60분)

한글 창제 직후,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세종의 노력에 대해 찾아 써 봅시다.

■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훈몽자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반절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이기문(1971), 「훈몽자회연구(訓蒙字會研究)」, 『한국문화연구총서』 5,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9차시>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 문제

■ 학습목표

1.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환경을 이해한다.
2. 근대 중국의 어문 혁신 과정을 살펴본다.
3. 일본의 국어, 국자 문제의 해결 과정을 확인한다.
4. 한국의 국문과 언문일치의 노력을 알아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
3. 중국의 어문 혁신
4. 일본의 국어·국자 문제
5. 한국의 국문과 언문일치
6.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와 한국의 언어 생활사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동아시아가 서구 열강과 접촉하면서 무력에 의한 개항이 이루어진 이후에,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구 문명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명에 적응해 가면서 나타난 사회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맞이했던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개화기라고도 부르고, 근대 이행기라고도 부르는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동아시아의 전통만으로는 당시의 세계 질서에 순응하기 어렵다는 자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기존의 한자 문화권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던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나 제도만으로는 서구 문명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서구 문명을 도입하든 그렇지 않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응전이 필요했던 것이 당시 동아시아의 사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 문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동아시아 공동 문어로서의 한문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동안 동아시아 문화의 수원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자민족 언어

와 문자에 대한 재인식과 자각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자민족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근대 이행기라는 대변혁의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이루어졌던, 자국의 언어와 문자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것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언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우선 동아시아의 근대 이행기가 시작된 계기가 된, 19세기 서구에 의한 개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은 19세기 중엽까지 공통적으로 쇄국 정책을 펼친 점에 서로 공통적입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에는, 명 나라에서부터 청 나라까지 이어진 해금(海禁) 정책으로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마카오에 진출한 포르투갈에 의해서 통상이 이루어지고 천주교 전파 등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의 건륭제는, 광둥에서만, 그것도 공행(公行)을 통해서만 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광둥 무역체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천자의 나라로서 '지대물박(地大物博)', 즉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해서 서구의 문물은 필요 없지만 시혜의 차원에서 문물 교류를 허용한다는 중화적 인식이 바탕이 된, 조공 무역의 하나로 서구와의 문물 교류를 허용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국의 광둥 무역체제보다 더 이른 시기인 1630년대 말에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서 나가사키(長崎) 항에서만, 그것도 네덜란드와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조치 역시 중국의 광둥 무역체제와 유사하게, 천주교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임은 물론, 조공 무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막부와만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서양과의 독점적 교류를 통해서 막부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청과의 자유 교역을 통해서 대량 생산한 물품의 판매 확대를 노렸던 영국의 시도가 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계속되자, 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청에 대해서 몰래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 판매를 늘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의 아편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의道光제(道光帝)는 임칙서를 특사로 광주에 파견해서 강력한 아편 무역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봉쇄 당한 자본가들이 영국 의회에 압력을 가해서, 1840년 영국의 육해군 원정군에 의해서 아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자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나라를, 순전히 열강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짓밟는 추악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청의 재래식 함선과 무기는 최신식으로 무장한 영국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고, 급기야는 1842년, 오히려 청에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홍콩을 할양하도록 하는 등의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기존의 공행을 통한 독점 무역이 폐지되고, 광둥, 하문, 복주, 영파, 상해 등의 5곳이 개항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동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호령해 온 청의 허약한 실상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후 미국, 프랑스 등과도 불평등 조약을 맺는 등 서구 열강에 의해 침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나가사키에서만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는 쇄국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도,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에 의해 들어온 난학을 통해 서구 문명을 접하면서 서구와의 교류를 주장하는 난학자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막부의 완강한 쇄국 정책으로 외국과의 교류는

봉쇄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태평양 지역까지 진출한 미국은, 아편 전쟁 이후 확대된 중국과의 안전한 교류를 위한 기항지의 필요성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일본의 개항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1853년 7월 페리 제독은 미국의 동인도함대의 흑선 4척을 이끌고 우라가(浦賀) 항 앞바다에 정박하여 시위하면서, 미국 피난선의 피난처 제공과 구조를 요청하는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전한 뒤 중국으로 물러갔습니다. 이듬해인 1854년 2월에 에도만에 8척의 함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조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여서, 드디어 그해 3월에 시모다, 하코다테 등의 개항을 약속한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서구와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도쿠가와 막부에서 200여 년간 유지해 온 쇄국 정책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과 순차적으로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열강에 개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리에 의한 개항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주로 서구 문물에 일찍 눈을 뜬 난학자들 가운데, 일본인들도 해외에 진출해서 교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방론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페리 함대로부터 받은 서구의 발전한 함대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근대적 함대를 갖춘 해군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도 취합니다. 서구의 발전한 근대 문명으로부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곧바로 이를 도입하는 일본 특유의 특성이 여기에서도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 막부 사이에서 체결된 1854년의 미일 화친조약과 뒤이어 1858년에 맺은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빌미가 돼서, 일본에서는 존황양이(尊皇攘夷)파와 막부의 정쟁 끝에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본의 개항은 이후 근대적 일본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박해하고,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丙寅洋擾)는 물론,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辛未洋擾)로 인해서 척화비를 세웠을 정도로 당시 집권하고 있던 대원군은 위정척사를 표방하는 쇄국정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서구와 접촉했을 때, 서구에 대해서 통상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은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일찍 서구에 의한 강제 개항을 경험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 성공한 뒤에 그 국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서구에 의해서 당했던 그대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1875년 조일 통상을 위한 해안 측량을 내세운 군함 운요호를 강화도에 파견하여 조선의 발표를 유도한 뒤 영종도를 점령하고, 이를 빌미로 조선에 대해 불평등 조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876년 조일수호조규, 즉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부르는, 그 조약이 체결된 지명을 넣은 강화도 조약으로도 부르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개항지 부산 외에 인천과 원산이 더 개항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을 맞은 이후 조선에서는 서구 세력과의 수교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880년대에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대 이행기에 접어든 한국에서는 위정척사를 표방하면서 쇄국을 옹호하는 척사파와,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개화파가 대립하기도 했고, 갑신정변, 갑오경장 등으로 개화파가 주도권을 잡기도 하면서 서구 문물의 도입을 통한 부국강병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19세기에 서구 열강에 문을 열게 되면서 동아시아를 지탱해 오던 기존 질서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응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루어졌지만, 특히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한편, 그 정체성 또는 효용성 등을 돌아보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의 백화문 운동과 표준어 운동, 간체자, 또 일본에서의 국어 국자 및 언문일치 논쟁, 한국에서의 국문론과 언문일치 논쟁 등이 바

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 이행기에 있었던 언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 중국의 어문 혁신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데다가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하면서 동아시아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음은 물론, 일본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후한 중국의 문물, 제도를 변혁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지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낙후한 중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인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의 문제와 실제 말의 질서와는 거리가 있는 당시의 문어였던 문언문, 즉 한문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중국에서도 정통적인 문어는 문언(文言), 곧 과거 중국어의 질서를 반영한 한문이었습니다. 구어를 반영한 백화문도 있었지만, 백화문은 수준이 낮은 문어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전 한문, 곧 문언은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로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근대 이행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자민족어를 자국의 문자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동 문어의 지위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1868년 황준헌(黃遵憲)이 “아수사아구(我手寫我口)”, 즉 ‘내 손은 내 입의 말대로 쓴다’는 구호를 내세웠는가 하면, 1898년 구정량(裘廷梁)이 “송백화이폐문언(崇白話而廢文言)”, 즉 ‘백화를 우선하고 문언을 폐기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을 실천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20세기 초 백화문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917년(민국 8) 진독수(陳獨秀)가 편찬한 잡지 《신청년》에서 처음 ‘문학혁명’을 주창하고, 백화문으로 작성된 진독수의 연설문과 호적(胡適)의 번역 단편소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1918년부터 《신청년》은 완전히 백화문으로 작성되기도 했는데, 특히 호적은 자신들이 주창하는 문학 혁명이란,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라 해서 문학과 ‘국어’를 일치시키는 것임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학 운동은 중국 국어연구회의 ‘국어 통일’, ‘언문일치’와 결합하여 세를 넓힘으로써, 국문을 국어로, 곧 백화문으로 바꾸자고 교육계에서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1920년에 초등학교 교과서가 어체문(語體文), 곧 백화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백화문 운동은 당시에 있었던 ‘국어’ 통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경 관화를 중심으로 표준적인 국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던 중화민국에서는 국가적 통합을 위한 통일된 ‘국어’의 사용을 추구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중국보다 먼저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간 일본에서 도쿄의 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국어’로 삼아 널리 보급하던 사실을 모방해서, 북경어를 표준어로 삼아 중국어를 통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중국어의 통일적인 표준어를, 북경어를 가리키던 ‘관화’ 대신에 ‘국어’로 부른 것도, 일본의 ‘국어’ 통일을 본 딴 것이었습니다. 이때 통일을 추구했던 ‘국어’가, 대륙에서는 1955년, 보통교육을 받은 인민들이 두루 쓰는 말이라는 의미의 ‘보통화’로 명칭이 바뀐 데 비해, 대만에서는 민국 시대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백화문 운동은, 문언문, 즉 한문이 아닌 구어를 표기하고자 하는 언문일치가 목표였고, ‘국어’ 통일은 표준어

를 통해서 방언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둘은 서로 결합해서, 통일된 북경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의 구어를 표기하는 문어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동아시아의 근대 이행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한자가 일반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에 저해되는 문자라는 인식으로 인한 한자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근대 이행기에 한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중국에서조차 이런 현상이 발견됩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는,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로의 이행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는 일이 동아시아에서의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는 한자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화민국 건국 이후에도 계속돼서, 1913년 표준어 제정을 위해서 소집한 '독음통일회'에서는 새로운 문자로서 주음 자모가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음 자모는 뒤에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주음을 위한 부호로 변모하여 '주음부호'라는 이름으로 현재 대만에서 한자의 주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음통일회에서 제안된 또 다른 신문자의 안으로는 로마자를 이용한 방법이었는데, 이후 1930년에는 '라틴화 신문자'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 초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표음문자 사용을 세계적인 공통적 추세로 보아서 한자를 폐지하고 로마자로 문자를 대체하고자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54년부터 설치된 중국문자개혁위원회에서의 검토 끝에, 1958년 주은래는 중국의 문자 개혁의 임무는 한자의 간화, 보통화의 보급, 한어병음방안의 제정 및 보급이라면서, 한자병음방안은 한자의 보통화 음을 달아서 보급하기 위한 것이지 한자를 대체하는 문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안은, 한자를 대체하지 못하고, 단지 간화한 한자의 발음기호로 남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한자를 간략화하고자 한 시도도 일찍부터 있어왔습니다. 명말청초의 황종희(黃宗羲)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화민국 시대의 전형동(錢玄同)이 간체자 안을 제안했는가 하면, 1935년 국민당 정부는 <제일비간체자표>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체자가 확고하게 사용된 것은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일입니다. 앞의 주은래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문자개혁위원회에서는 복잡한 한자를 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1956년 '한자간화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하고 국무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 공표해서 한자의 간체자, 또는 간체자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만에서는, 이미 국민당 정부에서 간체자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체자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본에서는 근대 이행기에 어떠한 언어, 문자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일본의 국어·국자 문제

1868년 삼권 분립에 의한 천황제를 표방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에서는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제를 추구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를 표방했던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국력을 천황의 정부로 집중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기존의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사민평등을 추구했는가 하면, 기존의 '번(藩)'을 폐지하고 '현(縣)'을 설치하는 등 하나로 권력이 중앙으로 집권된 강력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국가의 단합을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고, 이를 위해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일본어와 통일된 표기법 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까지는 봉건적인 막번(幕藩) 체제였고, 백성들은 자신이 속한 영지 밖으로는

이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언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메이지 정부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일본어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어느 지역의 말로 표준으로 할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19세기말에는 이러한 표준적인 말을 ‘표준어’라고 하고, 도쿄 지역어를 표준어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는 1895년(메이지 28년) <표준어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에 통일된 언어가 필요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규범적 언어인 ‘표준어’의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의 말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과거의 수도인 교토가 아닌 현재의 정치 중심지인 도쿄의 말을 표준적이고 통일된 일본어로 삼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국어를 국가의 근본이자 일본인의 정신적 혈액으로까지 보는 인식의 결과였습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 1902년에는 문부성에 ‘국어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방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방언을 표준어로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오카노 히사타네(岡野久胤) 등 많은 사람들은, ‘도쿄의 중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을 표준어로 삼고자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 결과 1903년에 국정 교과서 《심상소학독본》이, 도쿄 중류사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쓰여져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쿄 중류사회의 ‘말’을 표준어로 정하는 규정은, 국어조사위원회에서 1916년과 1917년에 각각 간행한 《구어법(口語法)》과 《구어법별기(口語法別記)》에서 명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일본어의 표준어 선정에서 지역과 계층을 고려하는 이러한 선정 원칙은, 1936년에 한국의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조선어 표준어들의 선정 원칙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문자와 표기와 관련된, 이른바 ‘국자’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에도 시대까지 한문과 한자가나 혼용문이 쓰였으나, 정통적인 문장은 문언문, 즉 한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식층인 지배층의 문장이었기에, 보통교육을 추구하는 메이지 시대에 한자와 한문은 적합하지 않은 국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한자 폐지론으로 나타났는데, 그 시초는 막부 말 1866년, 보통교육의 실시와 한자 폐지 및 표음문자인 가나 사용을 건의한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였습니다. 이러한 한자 폐지론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난부 요시카즈(南部義籌)는 1869년, 서양과 같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우선 문자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은 ‘국체’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한자의 대안으로서 로마자로 국자를 삼자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자 폐지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급격히 한자를 폐지하기는 어려우니 문장에서 한자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는 한자 절감론이 1873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로마자국자론’의 극단적인 경우가 니시 아마네(西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어를 일본의 국어로 삼아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자 폐지론과는 정반대로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는, 한자를 폐지했을 경우 일본어의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자를 폐지하거나 개량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자 논란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교육사절단이 작성한 1945년의 보고서에는 국자 문제에 있어서 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이 드러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에서의 한자 문제와 더불어서 가나 표기법 자체도 변화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후에도 가나 표기법은, 나라 시대 문헌의 표기에 바탕을 둔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발음과 표기가 괴리되는 불편함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사적 가나 표기법은 1946년까지 공문서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1946년부터는 현실 발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현대 가나 표기법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던 메이지 시대에, 보통교육의 근간이었던 국어(이때의 국어는 일본어겠지요) 교육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구어와 문어의 일치 문제였습니다. 메이지 정부에서는 기존의 문언문, 즉 한문을 지양하고 한자가나 혼용문을 택하기는 했지만 이때 가나 표기법에서도 얼마나 실제 구어가 반영되도록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장 표기의 대상을, 도쿄의 중류사회의 ‘말’인 표준어로 정하기는 했으나, 남성의 말인지 여성의 말인지, 얼마나 격식을 차린 말인지 등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가 1885년에 (<文章ヲ讀ム>[문장론을 읽다]에서(처음으로 ‘구어와 문어의 일치’를 의미하는 ‘언문일치’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1898년 우에다 카즈토시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언어학회에서, ‘언문일치’ 대신 ‘구어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언문일치 문장은 19세기 말 문학 분야에서 시작돼서 점차 계몽서나 신문 등으로 확대되어가서, 20세기 초에는 소설 등은 물론 신문, 교과서 등에서도 언문일치체가 적용돼서 작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946년 현대 가나 표기법이 채용되면서 언문일치체는 더욱 확대돼서 정부의 공문서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국어와 국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일본어의 표기 방법은 한자와 가나를 혼용해서 표기할 수도 있고, 히라가나만으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가타카나만으로 표기할 수도 있는 등 표기 방법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타카나 표기는 외국어나 학술용어, 일부 지명이나 기업명의 표기로 그 사용역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자와 가나의 혼용 표기와 히라가나만으로는 표기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여전히 모두 가능합니다. 또 로마자를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제기되었던 근대 이행기의 언어와 문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시 한국에서 제기되었던 언어, 문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 한국의 국문과 언문일치

1443년 한글이 창제돼서 다양한 방면에서 한글이 사용되었지만, 19세기말까지도 한글은 공적인 문자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의 공적인 문자는 한자였고 공적인 문어는 한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자와 한문을 약간 변형한 차자 표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두에 의한 이두문도 공적인 문어로 인정이 되긴 했지만, 이는 하급 관청의 문서로 그 사용역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랬던 한글이, 당당히 나라의 공적인 문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 때였습니다. 따라서 갑오경장은, 조선의 정치, 제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근대화를 추구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자 생활사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고종실록》의 고종 31년(1894년) 11월 21일 기사에, 당시에 내릴 고종의 칙령과 공문서 규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종은 칙령 1호에서 “종전의 공문과 반포한 예규는 오늘부터 폐지한다.”라고 밝히고, 이후 사용할 공문식을 제시했습니다. 그 공문식의 14조에서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을 번역해서 덧붙이거나 혹 국한문을 혼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문’은, 틀림없이 한글을 의미합니다. 이날 이후 12월 12일의 <관보>에, 고종이 종묘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맹세하며 고하는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이 바로 순한글, 한문, 국한문의 세 가지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국문’은 바로 한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글이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한국의 문자 생활이 비로소 중세적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문’이라는 용어는 위의 칙령보다 몇 달 앞선 1894년 6월 28일 <관보>에서 군국기무처에서 논의한 아문 관제 중 학무아문 내의 편집국 업무를 규정한 “편집국: 국문 철자와 각국의 문자로 된 글의 번역 및 교과서 편집 등의 일을 관장함”에서 보이는데, 여기의 ‘국문’ 역시 ‘우리나라의 글’이라는 의미로 한글을 가리킵니다. 또한 유명한 1896년 <독립신문> 창간호의 논설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 보게 흠이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문자라는 의미로 쓰인 ‘국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시에 ‘국문’을 우리나라의 글, 곧 한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음을 말해 줍니다.

실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이전 조선에서 한글이 어떤 지위를 지녔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 수정 끝에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권3 <예전>에 당시의 각종 공문 양식인 ‘용문자식(用文字式)’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한자로 된 한문 문서와 이두 문서만이 실려 있습니다. 문서 중에, ‘關, 牒, 帖’ 등의 문서 양식은 “...者”로 끝나는 이두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문서들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글이 조선 시대에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쓸 수 없는 문자였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 시대의 또 다른 법령인 단행법률 ‘교지(教旨)’ 중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1750년(영조 26) 전후에 편찬한 《백헌총요》의 <형전> 가운데 ‘문기’조에는 언문, 즉 한글로 기록된 문서는 시행할 수 없다고 해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언문으로 된 것이나 증인과 집필자가 없는 것은 시행치 말라.”라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어떤 문서든 그것이 언문, 즉 한글로 기록되어 있거나, 문서의 증인, 그리고 그것을 쓴 사람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모두 정당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글은 18세기 중엽까지도 공문에서는 쓰일 수 없는 문자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1675년(숙종 1) 숙종이 내린 교지에서도, 글쓴 사람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문서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사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사채의 경우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한글로 기록된 문서는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입니다.

조선 시대의 법령들을 통해서 볼 때, 한글은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 볼 때, 1894년에 반포된 <공문식> 제14조는 한국의 문자 생활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대변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이 국문으로 인식된 것은 물론, 당시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의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이 동아시아 맹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서구 열강의 침탈의 대상이 되면서 서구 문명의 도입을 통한 근대화에 몰두하게 되었고,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으로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였던 문언문, 곧 한문의 지위가 흔들리고 한자의 권위도 약화된 터였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자국의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에 몰두하게 되면서 자국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쉬운 문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는 자연스레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실제 갑오경장 이후 1895년(고종 32)의 2월 2일 <관보>에는, 국가의 부국강병은 결국 신민의 교육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종의 <교육입국조서>가 실려 있습니다. 국민 교육을 통해 근대국가를 이루고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한 고종의 의중은, 이미 1894년 갑오경장 때

근국기무처의 논의에 따라서 조정 체제를 아문 체제로 개편하면서, 예전에 예조에서 관장하던 교육 문제를 담당할, 현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조정 기구인 학무아문을 설치했을 때부터 발견됩니다. 학무아문을 1895년 학부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담당할 교원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의 관제와 규칙을 공포했으며, 이때 국문의 독서와 작문이라는 시험 과목으로 부과되었으니, 고종이 국문, 즉 한글을 통한 근대적 교육을 추진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학교령을 공포하고 학부에서 소학교용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을 1895년 7월에 간행하고, 이듬해인 1896년 2월에 또 다른 소학교용 교과서 《신정심상소학》을 간행했습니다. 이 두 교과서는, 고종의 공문식 제14조와는 다르게,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순한글 표기를 추구하기가 시기상조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신정심상소학》의 서문에는, 아동들이 일단 국문으로 쉽게 깨닫게 하고, 점차 한문으로 급을 높여 교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국한문 혼용으로 교과서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두 교과서의 제작에 일본의 교과서의 체제를 참고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민소학독본》을 만들기 전에 주일 공사관으로 하여금 일본 사범학교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사서 보내도록 한 바도 있으며, 《신정심상소학》의 서문에서는 이 교과서를 만드는 데, 일본인 2명[다카미 히사시(高見龜)와 아사카와 마츠지로(麻川松次郎)]의 보좌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 시기 국문의 중요성을 설파한 당시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에서는, 국문과 국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국어 국문 일체론적인 인식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렇게 보면 국문의 문제는 곧 국어의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인식의 대표적인 예를, 주시경 선생이 1908년에 쓴 《국어문전음학》의 “국문은 국어의 그림자이고 국어의 사진이다. 그림자가 그 실체와 같지 않으면 그 실체의 그림자가 아니고, 사진이 그 실제 모습과 같지 않으면 사진이 아니다.”라는 진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이런 인식은 1909년의 <국문연구보고서>의 “국문의 발음이 곧 국어의 발음”이라는 진술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밖에 유길준이 1895년에 지은 《서유견문》의 서문에 있는 “언어와 문자는 나누자면 둘이지만, 합하자면 하나”라는 주장이나, 신해영이 1897년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5호에 쓴 ‘한문자와 국문자의 손익여하’라는 논설의 “언어와 문자는 한 덩어리에 있는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에서도 국어 국문 일체론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어와 국문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음에도 19세기 후반에는, 주로 ‘국문’이 논의되었을 뿐, ‘국어’가 주장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10년대에 가까워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19세기 말에는 서구 및 일본 등에 맞서서 독립된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계몽이 시급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계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존의 표기 체계인 한문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1897년에 쓴 《국문론》을 위시해서, 당시의 많은 논설에서 공통적으로 한문의 폐단을 지적한 사실이 이를 말해 주는데요, 이런 한문의 폐단이 강조될수록 한자, 자연스레 한문과 대척점에 있는 국문, 즉 한글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로서 많은 백성의 계몽을 위해 간행하는 신문, 잡지 등의 문자 매체에서 표기의 문제, 문자의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기 문제가 당장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1896년 주시경 선생이 주도해서 독립신문사 안에 구성한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가 이러한 사정을 응변해 줍니다. 셋째는 일제에 의한 국권 위축으로 인해서 언어 민족주의적 인식이 싹튼

결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는 도쿄 유학생들의 활동이 많아지는데, 이들이 유학했던 시기인 1902년에는 일본에서 국어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우에다 가스토시(上田 萬年)의 언어 민족주의에 기초한 언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도쿄 유학생들은 이러한 인식과 정책을 접하면서 언어 민족주의적인 언어관이 싹틔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내정을 간섭받는 등 자주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은, 이러한 언어 민족주의에 눈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1910년 가까운 시기에, 이전의 국문보다도 언어인 국어가 관심의 전면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19세기말 계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국문이 강조된 것은 민족주의적 인식의 산물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적 민족국가를 위한 제도로서의 국문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문은 독립을 보장하고 문명 부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종의 도구로서 국문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신문> 창간호의 사설에서도, 이 신문에서 국문으로만 쓰는 이유가 상하귀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듯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계몽을 통해서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보다는 한글을 써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1905년 전후 시기에 이르면, 국문이 단순히 문명 부강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으로부터, 사회 조직의 근본, 또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도구 정도로 약간의 인식 변화가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905년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으로 인해, 국권의 침탈과 자주권의 훼손 등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점차 국어, 국문을 서구적 근대 민족국가의 제도로서의 국어나 국문에 가깝게 인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병합으로 국권을 상실했던 기간 동안 국어를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언어 민족주의적 관점이 한국에서 강화되었습니다.

19세기말부터 발견되는, 문명개화를 위해서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또 다른 원인은 한글이 표음문자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명 개화를 이룩한 서구의 문자가 표음문자라는 사실은 표음문자인 한글 사용의 당위성을 지지해 주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의 1897년 <국문론>에서 표의문자와 표음문자 가운데, 말이 곧 글이 되는, 즉 말소리를 적는 표음문자가 더 뛰어난 문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1907년 <필상자국문언>에 오면 더더욱 강화돼서, 상형문자는 과거 미개한 시대에 쓰던 것이고, 표음문자가 문명 개화한 시대에 쓰이는 문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적 근대화를 통해 독립과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당시로서는, 서구에서 사용하는 알파벳과 같은 표음문자 한글이 보다 적합한 문자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독립과 문명 개화를 통한 부국강병은 신민의 교육과 계몽에 달려 있고 이를 좌우하는 것은 문자인데, 이를 위해 적합한 문자는 표음문자인 국문, 즉 한글이라고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나 사용론보다 한자 절감론이 더 우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국문 사용이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국한문 혼용이 더 우세한 표기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신채호의 '문법을 의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문자 사용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모두 버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초기 독립협회장을 지낸 안경수의 <독립협회 서>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급선무는 지식과 식견을 넓히고 정치와 교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독립과 부국강병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순국문이나, 한문이나, 국한문 혼용문이나 하는 사실이

중요치 않다고도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국문, 즉 순한 글로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우리보다 먼저 개화해서 근대화를 이룬 일본 등으로부터 신 지식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한문 혼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광수가 1910년에 쓴 '금일아한용문에 대하여'에서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자 절감론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이유와 동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자를 국문으로 쓰는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는 모두 문명 개화를 위한 한자 폐지론이 주장되었으나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을 지닌 셈입니다.

이번에는 20세기 초부터 한국에서 제기되었던 언문일치(言文一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문일치라고 하면 구어와 문어의 일치를 말합니다. 실제로 같은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에서 나타났던 언문일치 운동은 이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에서 나타났던 백화문 운동은 과거 중국어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 문언문, 곧 한문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구어인 백화를 반영한 문장으로 글을 쓰자는 운동이니, 구어와 문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언문일치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자 폐지론이 주장돼서, 중국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 문장 표기에서 한자 폐지론이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언문일치 운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을 달리합니다. 즉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도 당시의 구어를 문장 표기에 반영해서 말과 문장을 일치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언문일치를 추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근대 이행기에 나타난 언문일치 운동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언문일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길준의 《대한문전》의 <자서>에서는, 고유한 언어를 그 언어에 어울리는 문자로 적는 일을 '언문일치'로 지칭하고 있고, 우리 고유어를 특성이 다른 한자로 적는 일을 들어 이런 현상을 '언문이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1909년에 보고된 <국문연구의정안>에서도 이런 현상을 '언문이치'로 지칭하고 있는데, '언문이치'의 의미는 주시경 선생이 말했던 문자와 언어가 같지 않은 '문언 부동'한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인용문들을 통해서 볼 때, 당시의 언문일치는,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인용문에서 '언문이치'는 한국의 말을 한문으로 적는 일을 가리키므로, 그 반대인 '언문일치'는, 한국의 말을 한국의 문자로, 곧 '국어'를 '국문'으로 적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10년까지 한국에서 주장한 언문일치는, 한자 대신 국문, 즉 한글을 써야 한다는 주장과 같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구어와 문어를 일치시키는 의미의 언문일치는 1910년대 이후 주로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전소설은 물론 신문 기사 등에서도 보였던 '-더라'나 '-라'와 같은 종결형을 '-했다', '-었다'나 '-다'로 하는 등 당시의 구어체를 반영해서 글을 썼을 경우 이를 언문일치의 표지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문일치는 최남선, 이광수 등의 문학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특히 이광수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하고, 이를 묶어서 1918년에 간행한 《무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최초의 한국 근대 장편소설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어가 많이 반영된 언문일치체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1919년의 <기미독립선언서>에서 보듯이, 이때까지는 언문일치와 거리가 있는 국한문 혼용문이 여전히 위세를 떨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잡지 등에서 언문일치 문장들이 발견되는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구 문명과 접촉한 이후에,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말과 문자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모두 서구적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위해서, 말과 문자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9세기 이전 동아시아에서는 공통적으로 쇄국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국에서는 1840년, 자국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부도덕한 전쟁임에도 최신식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에 의해 처참히 패배하게 됨으로써 이후 서구 열강의 침탈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동아시아 맹주로서의 중국의 권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중국 내부에서도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일본 역시 1854년 미국의 페리 함대에 의해 개방되면서 서구 문명과 접촉하게 되고, 이후 일본에서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서구 문명을 도입해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1875년 근대화를 이룬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한 이후, 서구 열강들의 침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동아시아에서는 공통적으로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언어와 문자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중국에서는 서구에 비해 낙후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어려운 한자를 혁신하고, 당시의 구어와 동떨어진 문어인 문언문, 즉 한문을 백화문으로 고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수사아구(我手寫我口)”를 표방한 백화문 운동은 1868년부터 나타났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었습니다. 이 백화문 운동과 함께 국어의 통일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심각한 방언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중국에서는 북경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어인 ‘국어’로 통일시키고자 했습니다. 이후 대륙에서는 ‘국어’ 대신 ‘보통화’로 개칭한 데 비해서, 대만에서는 ‘국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주음 자모가 고안되었는가 하면, 한자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한자병음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20세기 초에 어려운 한자를 간략화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는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56년 ‘한자간화방안’을 마련해서 간체자를 공식적인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3) 일본에서는,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방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 지역어를 표준어로 삼자는 제안이 나타났습니다. 언어 민족주의적인 인식이 짝트면서 일본어가 일본의 근본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표준어의 제정은 더욱더 힘을 받게 되었는데, 20세기 들어 국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쿄의 중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을 표준 일본어로 삼게 됩니다. 이와 함께 막부 말부터 문명 개화를 위해 일본어의 표기에서 한자를 폐지하자는 한자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한자 절감론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가나 표기법 자체도 1946년부터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 가나 표기법 대신 현대 가나 표기법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구어와 문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언문일치가 제창되고, 그 개념도 구어체의 사용으로 명확해진 뒤에, 20세기 이후 언문일치체가 일본어 문체의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4) 한국의 경우는, 이전에는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글이, 1894년에 드디어 국가로부터 국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9세기말부터 동아시아에서 한자의 권위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자보다는 한국의 문자인 국문, 즉 한글로 표기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문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 가운데에는, 한글이 발전한 서구에서 사용하는 문자와 같이 표음문자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계몽 주의자들은 국어와 국문이 하나라는 국어국문 일체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문명 개화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국문을 강조했을 뿐, 언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문의 사용을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국문의 사용을 강조했지만, 문자 사용의 전통, 일본을 통한 신지식의 수입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국한문 혼용이 우세한 문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말에서 1910년까지 한국에서 언문일치가 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의 언문일치는 구어와 문어를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말과 한국의 문자를 일치시킨다는 의미, 곧 한자가 아닌 한글을 써야 한다는 의미의 언문일치였습니다. 구어와 문어의 일치라는 의미의 언문일치는 1910년대 말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해서 1920년대 이후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문명 개화와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해 제기된 언어 및 문자의 문제들이, 크게 볼 때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각국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작은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한문이 아닌 한자가나 혼용문이 정통적인 문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O/X)

정답: X

2.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안은, 한자를 대체하지 못하고, 단지 간화한 한자의 발음기호로 남게 되었다. (O/X)

정답: O

3. 문명개화를 위해서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또 다른 원인은 한글이 표음문자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동아시아 각국의 언문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한국에서 언문일치 운동은 언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처음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② 한국, 중국,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은 19세기 서구로부터의 침탈에 의한 한문과 한자의 권위 하락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 ③ 일본에서는 언문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한자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이는 결국에 성공을 거두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중국의 어문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정통적인 문어는 문언문, 즉 한문이었다.
- ② 백화문 운동은 당시의 북경 관화를 중심으로 했다.
- ③ 중국의 어문 혁신으로 도입된 ‘국어’는 대만에서 ‘보통화’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답: ③

3. 다음 중 한국의 국문과 언문일치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1443년 한글이 창제된 이래 한글은 한문, 이두문과 함께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로 기능했다.
- ② 한국에서 국문의 중요성을 설파한 계몽주의자들은 국어 국문 일체론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 ③ 근대 시기 한국에서 한문의 폐단을 지적한 결과 당시의 표기는 한글 전용이 우세하였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일본이 영종도를 점령한 뒤 조선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을 ○○○ ○○이라고 한다.

정답: 강화도 조약

2. 근대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 문헌의 표기에 바탕을 둔 ○○○ ○○ ○○○이 사용되었다.

정답: 역사적 가나 표기법

3.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사용하는 문체를 ○○○ ○○이라고 한다.

정답: 국한문 혼용

나. 토의 (30분)

1. 한국의 언문일치 운동이 중국, 일본과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쩌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2. 한국, 중국,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의 목적과 그 의의를 정리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동아시아 삼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서구 침탈기에 나타난 언어 운동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하고 시대별로 양상을 정리해서 써 봅시다.

■ 참고자료

언문일치([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1, 2차 아편전쟁([우리역사넷 보기](#))

김민수(1964), 『신국어학사』, 일조각.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이연숙(2006), 『국어라는 사상』, 소명.

이응호(19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철사.

<10차시> 동아시아의 서구 문화 수용과 언어 변화

■ 학습목표

1. 동아시아 국가의 서구 문화를 접촉과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2. 근대화에서 수용한 외국어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어 어휘 체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 강의 목차

1. 동아시아의 서구 문화 접촉과 수용
2. 근대화와 중국의 언어 변화
3. 근대화와 일본의 언어 변화
4. 근대화와 한국의 언어 변화
5.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동아시아의 서구 문화 접촉과 수용

우선, 중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봅시다. 전근대 시기에, 중국인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에 관심도 없었고, 굳이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만 해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서양어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점차 외교적 필요로 인해서 서양어를 배우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외교 사절이 왔을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곳이 통문관(通文館)이었는데요, 이 통문관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등의 중국 주변 민족의 언어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양어가 더해지게 된 것인데, 최초로 더해진 서양 언어는 러시아어였습니다.

이후, 중국인들은 선교사와 상인들을 만나면서 서양인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약한 서양 선교사와 상인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에서 서구 문화와 어떻게 접촉하고 이를 수용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 17세기에는 가톨릭 선교사 중에서도 주로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명나라 초기의 수도인 난징에 거주하다가, 수도가 베이징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베이징에 거주하게 됩니다. 난

징과 베이징은 모두 관화 방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배웠던 중국어는 당연히 관화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회 선교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테오 리치인데,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이마두(利瑪竇)라는 중국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선교 전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기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나온 책을 읽어야 하고, 중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국의 조정, 왕실도 점점 서양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보였던 것은 서양의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이 점을 알아챈 마테오 리치는 중국어로 서양 과학을 소개하는 책을 쓰기도 하였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서양의 the god, gravity 등을 번역해서 적절한 중국어 단어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the god을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마테오 리치가 쓴 유명한 책이 '천주실의'입니다. 이 책에서 마테오 리치는 the god을 '천주(天主)'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번역한 '천주'라는 말이 오늘날 '천주교'에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중국인 가운데에는 스스로 서양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본격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중국인 중에서 사제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려면 라틴어라든지 서양어를 배워서 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에게 서양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에게 라틴어를 가르쳐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마테오 리치는 서광계(徐光啓)를 제자로 삼아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니콜라스 트리고는 왕징(王徵)에게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서광계나 왕징은 중국에서 서양어를 배웠는데, 정마낙(鄭瑪諾)이라는 사람은 17세 때 로마에 유학하여 로마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부가 되어 사제 서품을 받고 중국에 돌아와서 사제 활동을 했는데, 이로 인해 정마낙은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최초의 중국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과 서양 상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상인과의 접촉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중국 동남쪽 해안인 광둥성과 복건성이었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많은 서양 상인들이 중국에 왔고, 이에 따라 항구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증기선이 아니라 범선을 주로 이용했는데, 바람이나 해류가 1년을 주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서 불일을 다 보아도 몇 달을 거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상인들이 광둥성, 복건성 등의 항구 도시에서 몇 달씩 체류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로 인해 상당히 골치를 썩게 됩니다. 서양 상인들이 항구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과 서양 상인이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중개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 중개인은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양 상인과의 거래를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이들 중개인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서양 사람들이 중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개인들은, 서양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투르게나마 서양 언어를 배워서 단어들을

대충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생겨난 잡종어를 피진(pidgin)이라고 합니다. 피진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의 business를 중국식으로 발음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서양 상인들이 중국까지 올 때 한 번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는데, 그 기착지는 말레이시아 혹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피진은 처음에는 포르투갈어+중국어+합쳐진 말이었는데, 여기에 말레이어와 인도어 요소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중국과 영국 사이의 무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식 피진은 주로 마카오에서만 사용되고, 광저우 등의 기타 지역에서는 영어식 피진이 사용되었습니다.

1840년은 아편전쟁이 일어난 시기로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국은 중국에서 차를 아주 많이 수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점차 무역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영국은 중국에서 차, 도자기 등등 많은 것을 사 왔는데 막상 영국에서 중국에 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이 생각한 방법이 아썸 지역, 뱅갈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중국에 가져다 판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묵과할 수 없는 나쁜 짓이었기 때문에, 임칙서(林則徐) 등의 관리를 파견해서 서양에서 보내온 아편들을 압수해서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중국으로 함대를 보내서 사격을 하고, 당시 영국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최신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완패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전쟁 후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면서 중국도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루었는데,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더는 서양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서양을 배우고 서양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서양의 글을 읽고, 또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책이 《해국도지(海國圖志)》입니다.

이 책이 바로 《해국도지(海國圖志)》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국도지》를 쓴 사람은 위원(魏源)입니다. 위원보다 앞서서,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파견되었던 임칙서가 서양 신문 등의 많은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칙서는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해임당하고, 준비했던 모든 자료를 위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위원은 임칙서로부터 물려받은 자료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더 수집해서 《해국도지》라는 책을 1844년에 출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양의 국가, 국민, 과학 기술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읽을 수 있는 서양에 관한 백과사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던 계기 중 하나는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로 서양을 알아야겠다는 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후에 일본에서도 널리 읽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요약본이 출간되었다가 나중에는 《해국도지》 전체가 완간되어 읽혔습니다.

《해국도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당시의 구어를 반영한 평이한 문체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졌던 단어 중의 상당수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무역, 문학, 정치, 국회’ 등과 같은 단어가 그런 예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公司)’라는 말은 원래 연합 동인도회사라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지금의 회사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이때의 ‘신문’은 news라를 뜻하는 단어여서, 현재 한국에서 newspaper의 의미로 사용되는 ‘신문’과는 다소 의미 차

이가 있습니다.

한편, 개신교 선교사들은 광저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도 번역하고 각종 기독교 서적도 출간했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성경 원문을 번역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중국식으로 번안을 해서 짤막하게 번역하는 작업만을 했던 데 비해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 전문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1807년 광저우에 온 모리슨이 이런 번역 작업의 가장 선두에 섰으며, 1850년대 말까지 약 50년 동안 266종의 서적을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관화 방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성과로 신약전서가 번역되면서, 많은 단어들이 중국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전도 만들었는데, 한자를 표제어로 해서 한자의 발음과 뜻이 어떠한지 등을 기술한 중영 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장 크게 공헌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이 서양과 어떻게 접촉했고 또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본 적 있지만, 일본은 본격적으로 개항을 하기 이전에 나가사키항에서 네덜란드 및 중국 상인들이 머물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17세기부터 네덜란드 서적들이 유입되고, 18세기부터는 네덜란드 서적이 일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서적을 통해 네덜란드를 공부하는 것을 난학(蘭學)이라고 하는데, 난학은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 꽤 이전 시기부터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 서양 과학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54년, 일본도 타의에 의하여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근대화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발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인 것은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 주요한 사건을 보인 것인데요, 일본이 얼마나 기민하게 근대화를 이루어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발빠른 근대화에는 일본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 시기 국제 질서가 일본에 행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서양 열강이 개항을 요구하여 통상조약을 맺은 뒤에, 서양 열강의 경제적 침탈이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일본도 자칫하면 서양 열강의 경제적 수탈 대상이 될 뻔했는데, 이 무렵에 서양 열강이 각각의 사정 때문에 일본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나이팅게일이 활약한 크림미아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이 틈을 타서 일본은 빠른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개항은 비록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본의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은 적극적으로 서양을 배워 근대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배우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정치, 사회 제도도 적극적으로 배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이지 시대에 매우 빠른 속도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근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그 이전 시기부터 제한적이기는 해도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난학입니다.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용하고자 한 사실과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아편전쟁 이후 서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이때 서양인들도 중국어에 대한 학습과 연구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청나라 정부에서는 서양 세력의 진출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를 위해 서양의 책들을 번역하

고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외국인 전문가, 국제문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1862년에 베이징에 근대적 학교인 동문관(同文館)이 설립되었는데, 동문관은 그 뒤 상해와 광주에도 설립되었습니다. 베이징 동문관은 통역, 번역의 인재를 양성했는데, 이들의 서양 저작물의 번역물과 서양 여행기는 근대 중국어 어휘의 형성과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아시아의 서구 문화 접촉의 결과 동아시아의 어휘 체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근대화와 중국의 언어 변화

본격적으로 어휘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주요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은 동아시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우선, 1854년에 미국의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나가사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의 개항은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개방과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868년에는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근대화를 이룩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의 요청으로 1871년, 청일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패배가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을 늘 무시해 왔던 청나라가 그제서야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 다수의 중국 지식인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어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신문명 한자어들이 일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에 전해진 신문명 한자어들은 중국에서 1840년대부터 열심이었던 서양의 신문물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새로운 어휘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18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에 ‘신문명 어휘’ 라고 하는 새로운 한자어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이들 한자어가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가져온 일본에서 수입된 단어라고 생각해서 ‘화제한자(和制漢字)’, 즉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어들 중에는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전해졌던 단어들도 꽤 있습니다. 즉 이들 단어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가 역수입된 것인데 중국인들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어에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 서양인과 중국인에 의해 중국어로 저술된 책에 신문명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들 책이 일본에 전해져 재간행됨으로써 일본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번역의 전통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정이 워낙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만들어졌음에도 중국에서는 한동안 잊혀졌던 신문명어들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역수입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들을 회귀차용어라고 합니다.

‘철로(鐵路), 철도(鐵道)’ 나 ‘신문(新聞), 신문지(新聞紙), 공사(公司), 국회(國會), 문학(文學), 민주(民主), 권리(權利), 세포(細胞)’ 등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귀차용어들입니다. 이들 단어는 한동안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져 중국으로 유입된 최초 차용어라고 오해하

는 일이 많았지만,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일본에 전해졌다가, 다시 중국으로 재수입된, 회귀차용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1870에서 1871년에 걸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 국가들은 아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들 중 일부는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홍장(李鴻章)과 증국번(曾國藩)이 일본의 제안에 동의하여 1871년 텐진에서 청일 수호조규가 맺어집니다. 이때 1870년에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청일 외교 담당자로 파견했던 야나기하라 사키미츠(柳原前光)는 중국의 상하이제조국을 방문해서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과학 서적들을 구입해 갔는데, 이는 중국어 과학 용어가 일본에 전파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1890년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양계초(梁啓超)가 아닐까 합니다. 양계초는 1890년 회시(會試)에 낙방하고,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에 잠시 머무는 동안 서양 지리학에 눈을 떴습니다. 이때 《영환지략》, 상하이제조국의 번역서, 프라이어의 《격치회편》 등의 많은 서양 서적을 구입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96년 베이징에서 2개월 동안 티모시 리처드의 비서로 있다가 다시 상하이로 가서 ‘시무보(時務報)’의 주필을 역임하고, 《변법통의(變法通議)》, 《서학서목표(西學書目表)》 등의 책을 저술합니다.

양계초는 당시 이미 있었던 단어인 ‘전학(電學), 화학(化學), 중학(重學), 수학(數學), 성학(聲學), 광학(光學), 의학(醫學)’ 등의 단어와 이들 단어를 바탕으로 ‘천학(天學), 기학(氣學), 지학(地學), 도학(圖學, 지도에 관한 학문)’ 등의 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의원(醫院), 전체학(全體學), 기하(幾何), 대수(代數), 기기(器機), 공법(公法), 부국책(富國策)’ 등의 단어와, 일본어 최초 차용어인 ‘민법(民法), 역사(歷史), 종교(宗教), 체조(體操), 상업(商業), 상무(商務), 동물학(動物學), 우정(郵政), 사범(師範), 농학(農學)’ 등의 단어, 그리고 회귀차용어인 ‘세계(世界), 중학(中學), 학교(學校)’ 등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양계초는 언어, 어휘의 혁신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양의 표음문자를 본받아, 중국어 발음부호 체계를 고안하여 어린이, 하층계급이 글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문(古文)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인들이 읽기 쉬운 평이한 문체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양계초의 사상은 20세기 초 작가들의 문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어 문법서를 쓴 사람인 마건충(馬建忠)을 만나서 근대적 문법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는가 하면, 서양의 정치, 법률 서적을 번역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인 가운데 일부라도 서양어를 배워서 번역의 기본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양계초는 번역의 방법 또는 원칙과 관련해서, 동일한 원어가 다양하게 번역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번역어 대조표를 작성해서 번역자들이 이를 존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명, 지명을 음역할 때, 기존에는 광동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했던 것을 버리고, 베이징 방언을 바탕으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양 제도, 관직명, 화학 원소 등의 번역법에 대해서도 일정한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전통적인 중국의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字’, 즉 글자와 ‘詞’, 즉 단어를 구별하지 못했으나, 점차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자를 만들거나 옛 글자에 새로운 뜻을 덧붙이는 방법 이외에, 기존의 글자들을 결합해서 다음절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바로 일본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사실 양계초 사상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본으로부터 배우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19세기 말 청나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근대화한 일본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술변법 운동에서 중국의 정치 체제 개혁의 모델로 일본을 상징했지만, 결국 무술변법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강유위(康有爲), 양계초 등이 일본으로 망명하고,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중국 지식인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를 대규모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양계초는 지식인들 중에서도 일본의 학문, 번역서로부터 배울 것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입니다. 중국인이 서양어를 배워서 공부하려면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일본어 서적은 한자가 많아서 중국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배우기 쉬우니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어 번역서를 통해서 신문명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담은 책이 《논학일본문지의익(論學日本文之益)》, 《화문한독법(和文漢讀法)》 등입니다.

중국의 경우, 서양어, 일본어와 접촉하고 배우면서, 중국어의 단점, 개선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자해득률(文字解得率)이 근대화의 열쇠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문자해득률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자의 자형을 간략화하고, 상용한자를 제한하고, 표음부호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백화문체가 새로운 시대의 문어체로 확립됩니다. 대중이 쉽게 읽기 위해서는 언문일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구어와 거리가 먼 문언보다는 구어에 가까운 백화문을 새 시대의 문체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표준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생겨납니다. 방언 간의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본의 시도를 모방하여 표준어 제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절어를 이용해서 손쉽게 어휘 체계를 풍부하게 하였고, 접미사, 접두사 또한 많이 만들어져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 중국어의 성립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근대화와 일본의 언어 변화

일본에서 신문명 어휘를 새로 만들고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는 메이로쿠샤(明六社)와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가 있습니다. 1873년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제창으로 후쿠자와 유키치, 니시 아마네(西周),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등이 모여 메이로쿠샤(明六社)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지식인들을 모아 개화 사상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를 만들어 서구 신문명의 도입을 위한 계몽에 힘쓰게 됩니다. 바로 이 잡지가 일본에서 신문명어를 새로 만들고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서양 학문을 도입할 때,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번역해서 도입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신문명어의 도입에 있어서 번역주의를 택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ociety’ 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소사이어티”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社會)’ 라고 번역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사회’ 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아이패드 등과 같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일본의 번역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서양 학문이 소개되고 이를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의 난학에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양어, 특히 네덜란드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서양 용어를 그대로 음역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역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번역의 주체는 동아시아의 한문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었고 번역서를 읽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서양 서적을 읽을 때에도 이전 한문 서적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훈독의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서양 문명어의 의미를 살려 읽은 번역어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문의 소양을 바탕으로 서양어를 그 의미를 살려서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이렇게 한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은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어를 낯설지 않게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 낼 때 모든 단어를 일본에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은행(銀行), 보험(保險)’ 과 같이 일본에 앞서서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신문명 한자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고전에서 발견되는 한자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放送)’ 은 중국 고전에 “놓아서 보내다” 라는 의미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말인데, 여기에 ‘broadcast’ 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신문명어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한자어로는 ‘자유(自由), 관념(觀念), 분류(分類), 경제(經濟)’ 등을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번역어를 만들면서 그 한자어가 쓰인 원래의 중국 고전을 출전(出典)으로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1884년에 간행된 《철학자휘(哲學字彙)》와 같은 책에서는 ‘형이상학(形而上學) <역경>, 상대(相對) <장자>, 교육(教育) <맹자>, 연역법(演繹法) <중용>, 법률(法律) <회남자> 등과 같이 단어와 출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근대 이행기에 일본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한자어도 있습니다. 이런 한자어의 예를 들자면, ‘철학(哲學), 상식(常識), 추상(抽象), 우편(郵便), 진화(進化), 희극(喜劇), 정의(定義) 등과 같은 단어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의 단어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원래의 서양어와 번역어 사이에 개념이나 어감의 차이가 생기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하나의 서양어에 대한 여러 번역어가 존재해서 경쟁할 때, 어떤 번역어가 원래의 서양어가 바탕에 깔고 있는 개념 체계에도 잘 부합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개념 체계나 가치관에 잘 부합한다면 어휘 경쟁에서 승리해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번역어가 그 번역의 대상인 원래의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그 단어와 연관된 개념 체계를 이해하는 데까지도 도움을 주어야 좋은 번역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ociety의 번역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양어 society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지닌 몇 사람이 모인 아주 작은 규모도 society라고 할 수 있고, 귀족이나 상류층의 교제를 위한 모임 또는 사교계도 society라고 할 수 있으며, 근대 이후의 국가 전체를 society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까지 일본은 상당히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습니다. 지방의 번이 있고, 중앙에 약간의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근대 시대의 일본은 근대 이후의 국가에 해당하는 개념은 강하지 않았고,

자기가 속해 있어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은 지역 공동체가 자신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서양의 society 개념 중에서 큰 집단을 의미하는 society는, 일본인들의 사고 체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 일본의 번역가들은 society의 여러 의미 중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society를 ‘사교’, ‘교제’ 등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서양의 society가 폭넓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규모의 진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社會)’라는 번역어를 고안해 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뒤 일본은 물론 이를 받아들인 한국에서는 society의 번역어로 ‘사회’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회’라는 단어는 국가 전체 등 큰 집단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한정되어 쓰이게 되었고, 오히려 작은 집단을 의미하는 용법을 담당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 society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의미와 사용의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회’로만 번역하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원래의 제목은 Dead poet's society인데, 영화에서 보면 그것은 시를 좋아하는 몇 명의 동아리를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을 한국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번역해 놓으니, 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의미는 규모가 상당한 집단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영화 속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서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원어에 대한 하나의 번역어가 지닌 의미의 폭을 일반인이 널리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의 단어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와 같이 하나의 번역어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그 번역어의 원어가 지닌 의미 폭의 다른 부분을 가리킬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아시아가 서양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한자를 사용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번역된 한자어들이 한국, 일본, 중국에서 널리 교류되면서 동아시아의 어휘 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하여 중국어,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많은 단어 중에는 근대화 시기에 번역이 된 한자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새로운 문물과 접하게 되는 기회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번역어 또한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접촉과 문화 수용에 있어서 번역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4. 근대화와 한국의 언어 변화

현재 한국인의 생활 양식 가운데에는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것도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양식은 특히 19세기 후반, 개화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서양의 근대 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크게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언어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변화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에는, 먼 옛날부터 써 오던 것들도 있지만, 19세기 후반 개화기에 서양의 근대 문명과 관련된 단어들도 대거 새로 나타났습니다.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많은 사물과 개념들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이런 사물과 개념들을 가리키는 단어들도 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개화기에 근대 자본주의 경제 제도는 물론 민주주의 정치 제도도 한국에 소개되어 이러한 사회 제도와 관련된 단어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

어 어휘의 역사에 있어서 개화기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개화기에 서양 근대 문명과 그에 관한 어휘가 나타난 것은, 한국이 서양과 직접 접촉하면서 한국인 스스로가 신문명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양과 접촉한 중국 및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휘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번역과 관련해서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의 사실들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청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는 신문명 어휘도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다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쥐게 되면서, 한국은 점차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국의 지식인 가운데 일본의 근대화를 모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는 신문명어도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경유해서 서구 문물과 신문명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1890년대 이후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됩니다. 신문명 어휘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주로 한자어로 만들어냈는데,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자산이었기 때문에, 한·중·일 어느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데 큰 저항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189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청일전쟁에서 패한 이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급속도로 근대화를 이루어낸 일본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 1890년대부터 20세기 초에 많은 수의 중국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일본의 신문명 어휘를 대거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신문명 어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주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양 문명을 주체적으로 수입하고 신문명 어휘도 스스로 만들어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서양 열강이나 일본이 중국과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권 아래에 넣으려고 각축을 벌이는 와중에서 한국은 정신없이 갈팡질팡했을 뿐, 주체적 근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음을 아쉽게 여기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아시아의 공통 문화 자산인 한자를 이용하여 신문명 어휘를 미리 만들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며, 한국이 이렇게 미리 형성된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여기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이러한 근대 문명을 섭취하는 것이 부족해서 문제였지, 지나쳐서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들 가운데 어떤 평가가 옳은지는 개인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우선 당시의 역사적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도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생겨났으며 한국어 어휘 체계 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 갔는지를 아는 것은, 가치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종종 한국에서는 ‘언어에서 일본 식민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자’ 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 자유, 개인, 민주, 연애, 경제, 물리(학), 심리(학)’ 등 현재의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말까지 전부 철폐하자는 주장이라면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인식에서 출

말해야 하고, 언어에서의 일본 식민 잔재 청산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 한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와서 한국의 어휘 체계에 자리 잡은 한자어들을 분야 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도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학술 용어의 대부분이 이러한 한자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철학(哲學), 과학(科學), 화학(化學), 물리(物理), 수학(數學), 이성(理性), 원소(元素), 원자(原子), 물질(物質)” 등 수많은 학술 용어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한국에 들어온 한자어입니다. “교육(教育), 교수(教授), 학교(學校), 대학교(大學校), 교사(教師)” 등등의 교육 용어나 “정치(政治), 정부(政府), 행정(行政), 선거(選舉), 투표(投票), 대통령(大統領), 공화국(共和國)” 등등의 정치 용어도 이런 한자어들입니다. 한편 “경제(經濟), 산업(産業), 자본(資本), 회사(會社), 은행(銀行), 수출(輸出), 관세(關稅), 통상(通商), 생산고(生産高)” 등등의 지금도 친숙한 경제 용어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져 한국에 들어온 신문명어였습니다.

이 밖에 “철도(鐵道), 기차(汽車), 정거장(停車場), 인력거(人力車), 전기(電氣), 전신(電信), 전보(電報), 전화(電話), 우체(郵遞)” 등의 교통 및 통신 용어, “헌법(憲法), 법률(法律), 공법(公法), 사법(司法), 원고(原告), 법관(法官), 검사(檢事)” 등의 법률 용어, “신앙(信仰), 교회(教會), 세례(洗禮), 성서(聖書), 복음(福音), 부활(復活)” 등의 종교 용어 등도 근대화 시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져 한국에 수입된 한자어들입니다. 이 밖에 “현미경(顯微鏡), 평화(平和), 관점(觀點), 약속(約束), 역할(役割), 입구(入口), 안내(案内)” 등과 같은 한자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 가운데 많은 수가 근대화 시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 한자어였던 것이 한국에 수입되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들어온 일본계 한자어가 기존의 한국 전통 한자어를 대체한 경우도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생산액(生産額)’이 ‘생산고(生産高)’로, ‘소임(所任)’이 ‘역할(役割)’로 ‘호상(互相)’이 ‘상호(相互)’로 ‘어구(於口)’가 ‘입구(入口)’로, ‘인도(引導)’가 ‘안내(案内)’로 대체된 경우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계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체계로 들어와 자리 잡은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때 중국계 한자어가 자리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철로(鐵路)’, ‘마력(馬力)’, ‘공사(公司)’, ‘보도(報道)’, ‘점검(點檢)’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한편, 19세기 말 동아시아가 서양과 접촉하면서 서양의 국가명, 지명 등이 한자로 음차 표기되었는데, 음차 표기인 만큼 다양한 음차 표기로 쓰이다가 점차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1844년에 간행된 중국 위원(魏源)의 《해국도지》에서는 프랑스를 ‘불란서(佛蘭西)’로 표기하고 있는데, 1850년에 간행된 서계여(徐繼畬)의 《영환지략》에는 이 외에도 그동안 써왔던 ‘법란서(法蘭西)’, ‘불랑찰(拂朗察)’, ‘불랑기(佛朗機)’ 등등으로 다양한 표기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법란서(法蘭西)’의 첫 자만을 따서 ‘법국(法國)’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음차 표기가 18세기부터 발견되는데, 근대화 이후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음역어로 ‘불란서’가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Deutch를 ‘德意志’로 음차하여 표기했는가 하면 이를 줄여서 ‘덕국(德國)’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덕국(德國)’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Deutch를 일본어로 음차하여 ‘獨逸’[ドイツ]로 표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가운데 일본에서 쓰는 한자어 지명 ‘獨逸’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한국식 한자어로 발음하여 원래의 발음과는 거리가 있는 ‘독일’이 국가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에서 ‘아라사(俄羅斯)’나 이를 줄인 ‘아국(俄國)’,

‘나선(羅禪)’ 등으로 표기해 왔는데, ‘아라사(俄羅斯)’는 Pyc ʘ(Rus)에 대한 몽골어식 발음의 음차이고 ‘나선(羅禪)’는 Pyc ʘ(Rus)에 대한 만주어식 발음의 음차입니다. 근대화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국가명 표기 외에 Russia를 음차한 ‘노서아(露西亞)’나 이를 줄인 ‘노국(露國)’이 함께 쓰였는데, 한국에서는 점차 당시의 국가명을 음차한 ‘노서아(露西亞)’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도 동아시아는 서양 기술과의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현재 한국어의 컴퓨터(computer), 노트북(notebook), 스마트폰(smartphone), 터치패드(touchpad)와 같은 단어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외국어를,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대로 음차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번역주의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현재도 번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도 차이를 보이는 사실입니다.

5. 정리

이번 시간에 우리는 19세기 말 동아시아 각국이 서양 세력과 접촉하면서 서양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이때 중요하게 부각되는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그 결과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동안 외국과의 교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중국은 16세기 이후 서양 선교사와 상인들과 만나면서 서구 문화와 만났습니다. 16, 17세기에는 가톨릭 선교사 중 예수교 선교사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과학 기술 중심의 서양 서적을 이해하기 위한 서양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소개한 책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으며 교리서 《천주실의》를 한문으로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라틴어를 배운 중국인이 등장하고, 서양에서 유학한 중국인 사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6~19세기에 걸쳐 많은 서양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광동성과 복건성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했는데, 이들을 중개하는 중국인들에 의해 잡종어, 피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는 서양의 배워야 한다는 자각이 생기면서 서양의 글을 번역해서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44년 간행된 위원의 《해국도지》와 같은 서양의 문물 제도를 소개하는 서적들이 간행되었는데, 이들 책에서는 서양의 신문물어를 번역한 한자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번역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서양의 신문물어의 번역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이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3) 17세기부터 난학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서양 과학을 접했던 일본에서는 비자발적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른 속도로 근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4) 중국에서도 서구로부터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베이징 등에 근대적 학교를 세워 서양어의 번역과 통역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들의 저작물이나 번역물, 서양 여행기 등은 이후 근대 중국어 어휘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5) 청일전쟁에서 패한 중국에서는 근대화한 일본의 존재를 재인식하게 되고 일본으로 유학을 하는 지식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신문물어의 번역 한자어들이 일본에 유입되어 일본의 근대어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또한 이들 일본 유

학 지식인들이 귀국할 때 일본에서 번역한 신문물 한자어가 유입되었음은 물론, 원래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던 한자어가 다시 역수입된 회귀 차용어도 유입되었습니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의 외교관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중국의 번역서들이 일본에 도입되었는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미 서양 문물과 학문에 눈을 뜬 양계초를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으로부터 근대화를 통한 부국 강병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들에 의해 일본에서 번역된 신문물어들이 20세기 초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근대화를 위한 문자해독률을 높이기 위해 한자를 간략화하고, 상용 한자의 수를 제한하는가 하면, 표음부호를 개발하고 표준어를 제정했으며, 구어를 반영한 백화문으로 문체를 개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번역을 본받아 다음절어를 만들어 어휘 체계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6) 일본의 신문물어의 번역과 보급은 1873년에 결성된 메이로쿠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서양 학문이나 문물을 도입할 때 번역주의에 입각해서 한자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문을 혼독해서 한자 문화를 습득했듯이 서양어 역시 혼독의 방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주의는 낫설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문물어의 번역어를 새로 만들기도 했지만, 기존 한자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한자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전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구 신문물어의 번역 한자어는 거부감 없이 한국과 중국에 수입되어 현대의 어휘 체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 서양어의 번역어의 경우 서양과 동아시아의 문화적, 인식적 차이로 인해 이 둘 사이의 개념이나 어감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문물어가 만들어질 당시의 배경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개화기 한국에 유입되어 사용된 신문물어들은 현재의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신문물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번역된 한자어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서양 문물을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어들은 신문물어로 그대로 수입되었고, 그 중 일부는 기존에 한국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표시하던 단어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양 국가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의 경우 대부분 이 시기에 음차되어 쓰였던 한자어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서양 문물과의 접촉과 이로 인해 나타난 동아시아 각국 어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통문관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등의 중국 주변 민족의 언어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했다. (O/X)

정답: O

2. 서양 상인들은 중간 기착지 없이 중국까지 한 번에 올 수 있었다. (O/X)

정답: X

3.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파견되었던 임칙서는 많은 서양 자료를 번역하여 1884년에《해국도지》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2. 다음 중 중국인과 서양 상인과의 접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유럽 상인들은 광둥성, 복건성 등의 항구 도시에서 몇 달씩 체류하며 중국인들과 원활하게 교류하였다.
- ② 서양 상인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단어들을 대충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때 생겨난 잡종어를 피진(pidgin)이라고 한다.
- ③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판매하자 임칙서(林則徐) 등의 관리를 파견해서 아편을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정답: ②

2. 다음 중 마테오 리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이마두(利瑪竇)라는 중국식 이름도 있었다.
- ② 선교를 위하여 왕징(王徵)을 제자로 삼아 라틴어를 가르쳤다.
- ③ 중국어로 서양 과학을 소개하는 책을 쓰기도 하였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

정답: ②

3. 다음 중 《해국도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당시의 구어를 반영한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만들어졌던 단어 중의 상당수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 ② 서양의 국가, 국민, 과학 기술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읽을 수 있는 서양에 관한 백과사전 역할을 했다.
- ③ 중국은 아편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서양을 알아야겠다는 자각이 생겨《해국도지》를 출간하였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마테오 리치는 the god을 '○○'라고 번역을 했다.

정답: 천주(天主)

2. 네덜란드 서적을 통해 네덜란드를 공부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답: 난학(蘭學)

3. 베이징에 근대적 학교인 '○○○'에서 양성된 통역, 번역의 인재들이 저작한 번역물과 서양 여행기는 근대 중국어 어휘의 형성과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답: 동문관(同文館)

나. 토의 (30분)

1. 중국이 '문자해득률(文字解得率)'이 근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정리해봅시다.
2. 일본이 신문명어를 도입할 때 수용했던 방식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19세기 후반 개화기에 한국이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하며 겪었던 한국어 어휘 체계의 변화와 실제 용례를 정리해 봅시다.

■ 참고자료

근대화([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1, 2차 아편전쟁([우리역사넷 보기](#))

김민수(1964), 『신국어학사』, 일조각.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이연숙(2006), 『국어라는 사상』, 소명.

이응호(19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